독파민

정답과 해설

중학 국어

문학3

1 운문 문학

예제 01 눈 | 김수영

여러분은 '눈'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더러운 것들도 하얗게 덮어 버리는 '눈'을 통해 작가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지 떠올리며 시를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적, 비판적, 의지적, 참여적
주제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특징 • '눈'과 '가래'의 상징적 의미가 대립 구조를 이룸
•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함
• 문장의 점층적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살림

㉠은 살아 있다 ○↔△: 대조적인 시어
깨끗함, 순수함, 진정한 가치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점층적 반복을 통해 눈의 생명력을 강조함
▶ 1연: 눈의 순수한 생명력

: 청유형 어미 '-자'를 통해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함
㉠ 기침을 하자
가래(불순한 것)를 뱉어 내는 행위, 자기 정화 행위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점층적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지금까지는 마음껏 기침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기침을 하자
▶ 2연: 순수한 생명력 회복의 의지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마저 초월한 순수한 영혼과 육체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눈의 강인한 생명력
▶ 3연: 눈의 강인한 생명력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어두운 시대 상황
더러움, 불순한 것
마음껏 뱉자
억압과 불의에 대한 저항
▶ 4연: 자기 정화를 통한 순수한 삶 소망

눈

본문 012~01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시의 화자는 현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 화자는 밤새도록 가래를 뱉자고 하는데, 이는 화자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것을 토해 내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즉, 화자는 현실의 억압과 불의에 저항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시어(구)
• 이 시에서 '눈'은 깨끗함, 순수함, 진정한 가치를 의미해요.
• 이 시에서 '기침'을 하는 행위는 순수한 내면을 더럽히는 행위로 그려져요. (○, ⊗)
기침은 가래를 뱉어 내는 자기 정화 행위이다.

표현
• 이 시는 문장의 반복과 변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문제
1 ⑤ 2 ⑤ 3 ① 4 ④

1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시는 평서형 종결 어미 '-다' 또는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하고 있다. '-구나' 등의 감탄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이 시에서는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눈, 기침, 가래, 밤'과 같은 일상어에 각각 '순수한 존재, 자기 정화 행위, 불순한 것, 어두운 시대 현실' 등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❷ 이 시의 2연과 4연에서는 '-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여 청자로 하여금 함께 행동할 것을 권하고 있다.
❸ 1연과 3연에서 '눈은 살아 있다'를 반복하여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2연과 4연에서 '기침을 하자'를 반복하여 순수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❹ 이 시는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로, '눈'은 순수한 존재를 의미하고 '가래'는 불순한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기침'을 통해 '눈'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지는 '가래'를 뱉어 냄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순수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2 시어(구) 시구의 의미
㉠은 불순한 것을 뱉어 내자는 목소리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은 정의롭고 순수한 세상을 추구하는 정치인(ㄷ)과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가진 노동자(ㅁ)이다.

오답 노트 ㄱ. 일상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직장인은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ㄴ.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본가는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과 거리가 멀다.
ㄹ. 불합리한 것을 보고 모르는 체하는 공무원은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과 거리가 멀다.

알아 두기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눈	• 깨끗함, 순수함, 진정한 가치 •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기침	• 가슴 속에 고여 있는 불순한 것을 뱉어 내는 행위 • 자기 정화 행위
젊은 시인	• 순수함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 화자이자 작가 자신
가래	• 더러움, 불순한 것, 부정적인 것 • 부정적인 현실에서 생긴 속물근성, 소시민성 등

3 어휘 어휘의 의미

㉡의 '대고'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거나 향하고.'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였음을 나타낸 ①의 '대고'이다.

오답노트 ❷ '이유나 구실을 들어 보이고.'라는 뜻이다.
❸ '무엇을 어디에 닿게 하고.'라는 뜻이다.
❹ '차, 배 등의 탈것을 멈추어 서게 하고.'라는 뜻이다.
❺ '다른 사람과 신체의 일부분을 닿게 하고.'라는 뜻이다.

4 표현 표현상 특징

2연의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기침을 하자'는 4연의 '밤새도록 고인 ~ 마음껏 뱉자'로 변주되었으므로, '마음 놓고'가 '눈을 바라보며'로 변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노트 ❶ 1연의 내용은 3연에서, 2연의 내용은 4연에서 변주된다.
❷ 1연과 3연은 '눈은 살아 있다'를 중심으로 내용을 덧붙인 변주가 나타나고, 2연과 4연은 '기침을 하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덧붙인 변주가 나타난다.
❸ 1연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에 '떨어진', '마당 위에 떨어진'이 점층적으로 덧붙으면서 상황이 구체화된다.
❺ 4연에서는 '기침을 하자'가 좀 더 더러운 것을 깊숙한 곳에서부터 뱉어 내려는 의지를 담은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로 변주된다.

알아 두기 반복과 변형을 통한 주제 강조



배경지식 참여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눈」

참여 문학은 작품 창작을 통해 현실 문제에 개입하는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우리 문학에서 참여 문학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작가들의 자각에서 시작되었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에 대한 항거 의식을 담은 4·19 혁명을 기점으로 참여 문학이 활발해졌다. 분단과 통일, 민족의식 등을 바탕으로 한 참여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수영, 신동엽, 고은, 김지하 등이 있다. 김수영 작가가 쓴 「눈」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담은 대표적인 참여시로 꼽힌다.

예제 02

추억에서 | 박재삼

여러분은 '추억'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보통 추억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지난날이 다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시를 통해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애상적, 서정적, 향토적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한(恨)
특징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한(恨)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구체적 지명과 경상도 방언의 사용으로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함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공간적 배경)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 1연: 저녁 무렵의 진주 장터
(시간적 배경(어둑한 저녁) –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 조성)

(팔리지 않고 남은)
울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우리 엄매(경상도 방언, 토속적))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 』: 고기의 '눈깔'이 '은전'의 시각적 이미지로 비유됨)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가난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
울 엄매야 울 엄매, ▶ 2연: 가난으로 한이 맺힌 어머니의 삶

(□: 의문형, 추측형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고 운율을 형성함)

별밭은 또 그리 멀리 ○↔△: 대조
(소망의 세계(밝음))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가난한 삶(어두움))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추위에 떠는 오누이의 모습을 촉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가난한 삶을 강조함)
▶ 3연: 추운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

진주 남강 맑다 해도
(구체적 지명)
오명 가명
(오며 가며 – 운율 형성)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어머니의 고달픈 하루)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 』: '옹기들'의 반짝임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4연: 어머니의 눈물과 한

추억에서

본문 014~01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시에서 화자는 가난했던 어 린 시 절을 회상하고 있어요.

시어(구)
• 이 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 시구는 무엇인가요?
> 이 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1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 시구는 '해 다 진 어 스 름'이고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 시구는 '진 주 장 터 생 어 물 전'이에요.

표현

• 이 시에서는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요. (○, ⊗)

회상적, 애상적 어조를 통해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

1 ① **2** ⑤ **3** ② **4** ⑤

1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을 뿐, 현재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❷ '해 다 진 어스름', '빛 발하는 눈깔들', '은전',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한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❸ '-ㄴ가', '-ㄹ꼬'와 같은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절제하여 드러내고 있다.

❹ '은전만큼', '옹기들같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❺ '울 엄매야 울 엄매',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등에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어머니의 한과 가난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종결 어미와 시구의 반복 효과

의문형, 추측형의 종결 어미 반복	'한이던가', '떨던가', '어떠했을꼬', '것인가' 등	⇒	어린 시절에 느꼈던 슬픈 감정을 직접 토로하지 않음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여 드러냄
시구의 반복	'울 엄매야 울 엄매', '오명 가명',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	운율감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2 시어(구) 시구의 의미 + 표현 표현의 효과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은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물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 노트 ❶ '해 다 진 어스름'은 해가 진 뒤의 어둑한 상태로, 어둡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❷ 팔리지 않고 남은 고기의 '빛 발하는 눈깔들'에서 '은전'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은전'은 가질 수 없는 '손 안 닿는' 것이기에 어머니의 '한'을 느끼게 한다.

❸ '별밭'은 '골방'과 대비되는 소망의 세계를 의미한다.

❹ '손 시리게 떨던가'는 골방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화자와 누이의 모습으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추위와 가난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 시어(구) 시어의 기능

'울 엄매'는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상도 방언으로, 화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려 주는 시어이자 화자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담긴 시어이다.

오답 노트 ❶ '생어물전'은 어머니가 일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❸ '오명 가명'은 경상 방언으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를 통해 애틋한 심정이나 회상의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❹, ❺ '신새벽'과 '밤빛'은 각각 새벽과 깊은 밤을 의미하며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어머니의 고달픔을 나타낸다.

알아 두기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울 엄매	우리 엄마, 울고 있는 엄매(가난으로 한이 맺힌 어머니를 떠올리게 함)
은전	만져 볼 수 없는 물질, 소유할 수 없는 부
별밭	삶의 위안을 가져다주는 대상, 희망과 소망의 공간, 이상적 세계
골방	춥고 가난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공간, 절망적 세계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	한으로 채워져 글썽이던 어머니의 눈물

4 화자·대상 대상의 처지 및 상황

'장면 3'은 '진주 남강'이 맑다고 하지만 오며 가며 신새벽이나 밤빛 아래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그려진 부분이다. 화자는 그러한 어머니의 삶에 연민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어머니가 진주 남강의 풍경을 통해 위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노트 ❶ '진주 장터'가 배경으로 드러나는 1, 2연에는 생계를 위해 어두워진 밤까지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❷ 2연에서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는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고기를 다 팔지 못한 어머니의 고단한 삶과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❸ '골방'이 배경으로 드러나는 3연에서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손 시리게 떨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❹ 어머니가 진주 장터를 오가는 길이 그려진 4연에서 어머니에게 진주 남강은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이었다고 한 것을 통해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실전 01

와사등 | 김광균

여러분은 '와사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와사등'이란 석탄 가스로 불을 켜는 가로등을 이르던 말로, 이 작품이 창작된 1930년대의 도시 문물에 해당해요. 당시 도시의 야경과 가로등이 주는 느낌을 바탕으로 화자의 심정을 떠올리며 시를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화적, 감각적, 주지적, 비유적
주제 도시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특징 • 감각적인 표현과 참신한 비유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함
• 수미상관의 구성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떠남의 신호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 시적 허용
차디찬, 도시 문명에 대한 태도 공허함
㉠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구)
화자 고독함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슬픔 ▶ 1연: 현대인의 고독과 방향 상실
문장 부호 '—'의 사용: 시어를 장음(長音)으로 읽도록 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킴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활유법 :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늘어선 고층을 비유한 표현(직유법)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찬란한 야경을 비유한 표현(직유법)
사념(思念)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2연: 황량하고 무질서한 도시 문명
마음속 생각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통해 도시인의 정신적인 위기를 보여 줌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공감각적 심상(시각의 촉각화)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3연: 도시의 소란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군중 속의 고독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 ▶ 4연: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비애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5연: 현대인의 고독과 방향 상실

와사등

본문 016~01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시에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 ⊗)
이 시의 화자는 1연, 4연, 5연에 '내'로 드러나 있다. 즉 '나'가 화자이다.

시어(구)
• 이 시에서 '묘', '석'과 '잡초'는 도시의 물질문명을 빗댄 시어예요.

표현
• 이 시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촉각화하여 나타낸 시구는 무엇인가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주제
• 이 시는 도시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그리고 있어요.

문제

1 ② 2 ② 3 ⑤ 4 ④

학습 노트

• **시적 허용:** 일상 언어의 규범에 어긋나지만 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용하는 표현. 시적 분위기와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풍부하게 함
• **감각적 심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 마음속에 재현되는 감각적인 상

1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시에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소재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대상이 지닌 특징을 점층적으로 나열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는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한 활유법이 사용된 것이다.

오답 노트 ❶ 이 시는 1연과 5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며 도시 문명 속에서 고독과 비애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❸ 이 시에서는 '차단—한', '비인', '호올로' 등의 시적 허용이 나타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과 공허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❹ 이 시는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찬란한 야경'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제시하고 있다.
❺ 이 시에서는 '슬픈', '눈물겹고나', '공허한', '무거운 비애'와 같이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수미상관 구성의 효과

1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5연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첫 연과 마지막 연이 행의 배열이 바뀐 역대칭의 구조로 배치됨
↓
마지막까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냄

2 시어(구) 시구의 의미 + 표현 표현상 특징

2연에서 도시의 고층 건물을 '창백한 묘석'에,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에 비유하여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❺ 1연과 5연에서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현대인의 고독과 방향 상실을 표현하고 있다.
❸ 3연에서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도시의 소란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❹ 4연에서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3 표현 감각적 심상

㉠에는 시각을 촉각화하여 나타낸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⑤에서

도 '새파란 초생달'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시리다'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나타낸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오답노트 ❶ 후각적 심상이 쓰였다.
❷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
❸ 청각적 심상이 쓰였다.
❹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4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4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지닌 비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묻고 있을 뿐, 비애의 근원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화자는 등불을 '슬픈 신호'로 받아들인다. 화자 혼자 남겨진 자신의 쓸쓸한 심정이 드러난다.
❷ 도시의 야경을 마주한 화자가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라고 한 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위축된 내면이 드러난다.
❸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에서는 도시의 소란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소란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❺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에서는 화자의 고독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어둡게 길어진 그림자가 제시된다.

독해 체크 본문 018쪽

❶ 도시 ❷ 군중 ❸ 고독 ❹ 방향 ❺ 현대인
❻ 수미상관 ❼ 촉각 ❽ 비판

어휘 체크 본문 019쪽

1 ③
2 • 차단—한 → 차가운(차디찬) • 비인 → 빈 • 호올로 → 홀로
3 ①

1 다의어의 의미

이 시에서는 화자의 시선에서 빈 하늘을 배경으로 등불 하나만 덩그러니 떠 보이는 광경을, 등불이 하늘에 걸린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의 '걸려'는 '어떤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벽이나 못 등에 매달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옷걸이에 많은 옷이 걸려 있다는 의미로 쓰인 ③이다.

오답노트 ❶ '시간이 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❷ '병이 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❹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들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❺ '눈이나 마음 등에 만족스럽지 않고 언짢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2 고쳐쓰기

1연에 사용된 시적 허용은 '차단—한', '비인', '호올로'가 있다. 이를 고쳐 쓰면 '차가운(차디찬)', '빈', '홀로'가 된다.

3 한자어의 의미

'고층(高層)'은 '건물의 층수가 많은 것.'이라는 뜻이다.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계층. 또는 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어휘는 '고위층(高位層)'이다.

실전 02 님의 침묵 | 한용운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다면 많이 힘들고 슬프겠죠? 이 시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임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어요. 화자가 이별할 수 없었던 '님'은 어떤 존재인지, 시를 통해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불교적, 상징적, 의지적, 역설적
주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특징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함
•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됨

슬픔의 표현(영탄법)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나'가 사랑하는 존재(연인, 조국, 부처 등) 『』: 반복법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만남(과거) ← 대조 → 이별(현재) : 경어체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직유법) ← 대조 → 보잘것없는 것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참된 사랑(진리)을 깨닫은 순간(감각적 형상화) 임의 절대성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1~4행(기): 임과의 이별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역설법, 대구법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함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후각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세속적 세계의 일
▶ 5~6행(승): 이별 후에 느끼는 슬픔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시상의 전환(슬픔 → 희망) 이별의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여 극복하고자 함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
▶ 7~8행(전):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깨달음의 표현(영탄법) 임에 대한 사랑과 재회에 대한 믿음(역설법)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임이 부재한 상황을 임이 침묵하고 있다고 여김
▶ 9~10행(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님의 침묵 본문 020~02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시의 화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어요. (○ ×)

시어(구)

- 이 시에서 '단풍나무 숲'은 '푸른 산빛'과 대조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 3행에서 임과의 사랑의 맹세를 빗대어 쓴 2어절의 시구는 무엇인가요? 황금의 꽃

표현

- 5행의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는 어떤 심상이 나타나 있나요?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후각화)

문제

1 ③ **2** ⑤ **3** ④

학습노트

- **상실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
- **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1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

화자는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이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일임을 알기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다고 하였다. 이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고 하며 이별의 슬픔을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화자는 임의 말소리와 얼굴을 잊지 못하며 임에 대한 사랑을 이어 가고 있다.

❷ 화자는 임이 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임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❹ 화자는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다고 하였다.

❺ 화자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으로 옮겨 부었을 뿐, 자신을 자책하고 있지 않다.

2 표현 표현상 특징

1행에서 '님은 갔습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임을 잃은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고(ㄴ), 9행에서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재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ㄹ).

오답노트 ㄱ. 이 시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문답법은 쓰이지 않았다.

ㄷ. 이 시에서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뿐, 임과 재회한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배경지식 역설적 표현의 개념과 효과

개념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
효과	• 강한 인상과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음 • 모순된 표현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음 •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숨겨진 진리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음

3 시어(구) 시어의 의미 + 주제 작품 감상 방법

독자마다 처한 입장이나 상황이 다르며, 그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 관점에서 ㉠ '님'의 상징적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 '님'을 절대자, 종교적 진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작가 한용운이 승려였음을 고려한 ⓑ의 관점이다.

오답노트 ❶ 이 시가 창작된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음을 고려할 때 ㉠ '님'은 빼앗긴 조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시는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시로 해석할 수 있다.

❷ 이 시의 작가 한용운이 승려였음을 고려할 때 ㉠ '님'은 부처나 종교적인 절대자, 불교적 진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시는 종교적인 깨달음의 고통을 노래한 시로 해석할 수 있다.

❸ 이 시가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 '님'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로 해석할 수 있다.

❺ 이 시에서 ㉠ '님'의 의미는 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님'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시에 대한 해석 또한 달라진다.

알아 두기 '님'의 상징적 의미

부처(종교적인 절대자)	이 시의 작가 한용운이 승려였음을 고려할 때, '님'은 부처나 종교적인 절대자, 불교적 진리 등이라고 볼 수 있음
빼앗긴 조국	이 시가 창작된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음을 고려할 때, '님'은 빼앗긴 조국이라고 볼 수 있음
사랑하는 연인	이 시가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님'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볼 수 있음

배경지식 한용운의 작품 세계

한용운(1879~1944)은 승려이자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호는 만해이며 용운은 법명이다. 3·1 운동 때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일제에 저항하는 데 앞장섰다.

『님의 침묵』은 1926년에 한용운이 간행한 시집으로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알 수 없어요」, 「비밀」 등과 같은 88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시집의 전체 내용은 이별하는 데서 시작되어 만남으로 끝나는 극적 구조를 지닌 한 편의 연작시로 볼 수 있다. 한용운의 문학이 지닌 특징은 바로 불교 사상과 독립사상이 탁월하게 예술적으로 결합된 데서 드러나며, 그의 작품들은 불교적인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이 두드러진다.

독해 체크 본문 022쪽

❶ 이별 ❷ 재회 ❸ 슬픔 ❹ 희망 ❺ 종교 ❻ 조국 ❼ 모순 ❽ 믿음

어휘 체크 본문 023쪽

1 ③ **2** 차마 **3** ⑤

1 어휘의 의미

〈보기〉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가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는 '맹세'의 원말이므로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을 의미하고, ⓑ는 '약하게 부는 바람.'을 의미한다.

2 부사의 쓰임

'차마'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장에 쓰여 '차마 ~하지 못했다'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시에서는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라는 긍정문에 쓰였다. 이 시에서 '차마'라는 부사는 임에게도 이별이 쉽지 않았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3 한자 성어의 의미

'거자필반(去者必返)'은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음.'이라는 뜻으로, 이 시의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시구와 의미가 통한다.

오답노트 ❶ '유유자적(悠悠自適)'은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이라는 뜻이다.

❷ '금의환향(錦衣還鄕)'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❸ '미인박명(美人薄命)'은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이라는 뜻이다.

❹ '희로애락(喜怒哀樂)'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실전 03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황지우

누구나 겨울나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추운 날씨에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던 나무가 봄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무가 겨울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기에 봄이 오면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걸까요? 계절이 흐르면서 나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시를 통해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역동적

주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나무

특징
- 나무를 의인화하여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드러냄
- 상승적,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나무의 굳센 의지를 보여 줌

나무는 자기 몸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존재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 1~3행: 나무가 지닌 생명력
나무의 자립성과 생명력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가혹한 시련의 상황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 앙상한 겨울나무의 모습을 힘겹게 벌받는 모습으로 의인화한 표현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 대립적 시어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시상의 전환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외적 상황으로 인한 굴욕적인 모습 ▶ 4~9행: 겨울-나무가 겪는 고난과 시련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무가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품기 시작함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 강한 의지와 열정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의지적인 행동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상승적 이미지 -희망적, 역동적
▶ 10~14행: 부정적 현실을 거부하는 나무의 의지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현실 극복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 봄 나무가 이루어 낸 결실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생명력이 충만한 때, 봄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고통을 극복하고 봄을 맞은 나무의 자기완성
아아, **마침내, 끝끝내**
나무의 경이로운 의지에 대한 감탄이 드러남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의 주체성, 자율성
꽃 피는 나무이다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의 결과
▶ 15~23행: 고통을 극복하고 스스로 생명력을 드러낸 봄-나무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본문 024~02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시의 화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 ⊗)

  이 시의 화자는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시어(구)

• 이 시에서는 겨 울과 봄이라는 계절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 이 시에서 시상의 전환을 위해 사용한 접속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표현

• 이 시에서는 나무를 의 인 화하여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

1 ② 2 ⑤ 3 ② 4 ②

학습 노트

• **상승적 이미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심상

1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시에서는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 터지면서'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싹을 틔우려는 나무의 의지적인 태도와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노트 ❶ 9행의 '아 벌받은 몸으로'와 21행의 '아아, 마침내, 끝끝내'에 '아, 아아'와 같은 감탄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각각 나무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나무의 의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원망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❸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인 나무가 이동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동하는 공간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❹ 이 시에는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나 모양을 흉내 내는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❺ 이 시에서는 시적 대상인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시어(구) 시구의 의미와 기능

'마침내, 끝끝내'에는 겨울–나무가 의지를 갖고 시련을 이겨 낸 끝에 결국 봄–나무가 되어 꽃을 피워 낸 것에 대한 화자의 감탄이 담겨 있다. 겨울–나무가 경험하는 절망감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노트 ❶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는 나무의 자립성과 생명력을 보여 주는 시구로,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나무의 속성을 드러낸다.

❷ 앙상한 나뭇가지가 위로 향한 모습을 '두 손 올리고'라고 표현하고 이를 '벌받는 자세'라고 한 것은 나무를 의인화하여 겨울의 추위라는 고난이 가해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❸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는 앙상하던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봄–나무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나무가 생명력과 열정, 강렬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❹ '하늘 들이받으면서'는 나무가 위로 자라며 가지를 뻗어 가는 모습을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3 화자·대상 화자와 대상의 상황 + 시어(구) 시어의 기능

㉠은 나무가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난 뒤 '푸른 잎'이 되는 과정이 비록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노트 ❶ ㉠은 화자의 감정 변화가 아니라 대상에게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❸ 이 작품의 화자는 대상인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❹ ㉠은 대상에게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❺ ㉠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 보기 어려우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도 않다.

4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에서 나무가 버티고 거부하는 모습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이고 가혹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보여 준다.

오답노트 ❶ ⓐ는 벌받는 모습으로 굴욕적인 상태에 있던 나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는 이후 강한 의지로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❸ ⓒ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서면서 이를 이겨 내려는 나무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준다.

❹ ⓓ는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의미한다.

❺ ⓔ는 나무가 '자기의 온몸으로'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변화한 것을 강조하므로, 나무의 주체성과 자발성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지식 황지우의 작품 세계

작가 황지우(1952~)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섬세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적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1980년대라는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지적인 언어로 표현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독해 체크 본문 026쪽

❶ 겨울 ❷ 거부 ❸ 극복 ❹ 감탄 ❺ 꽃 ❻ 생명력 ❼ 그러나 ❽ 의인화 ❾ 의지

어휘 체크 본문 027쪽

1 ② 2 ②

1 한자어의 의미

〈보기〉에 쓰인 '나목(裸木)'은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히 남은 나무.'를 뜻한다. '나목(裸木)'은 '말라서 죽어 버린 나무.'를 뜻하는 '고목(枯木)'과 달리 봄이 되면 잎이 다시 나는 살아 있는 나무이다.

오답노트 ❶ '고목(枯木)'의 의미이다.

❸ '교목(喬木)'의 의미이다.

❹ '고목(古木)'의 의미이다.

❺ '관목(灌木)'의 의미이다.

2 부사의 의미

'서서히'는 '천천히'와 동일하게 '동작이나 태도가 급하지 아니하고 느리게.'라는 뜻이다. '겉으로 나타내지는 아니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깊고 간절하게.'는 '은근히'의 뜻이다.

실전 04 **청포도** | 이육사

여러분은 '청포도'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선명한 푸른색의 싱싱한 청포도에서 연상되는 모습이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의 화자가 '청포도'나 '하이얀 모시 수건'과 같은 소재를 통해 무엇을 그려 내고 있는지 생각하며 시를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감각적
주제 •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특징 • 푸른색과 흰색의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
• 각 연을 2행으로 배열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음성 상징어를 감각적으로 사용함

내 고장 칠월은
①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향 ② 조국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푸른색의 이미지 ▭: 흰색의 이미지 (선명한 색채 대비)
푸른색의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풍성함과 싱그러움을 표현함
→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상징함
① 과거의 평화롭던 삶 ② 우리 민족의 역사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의태어를 사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형상화함
먼 데 하늘이 꿈꾸려 알알이 들어와 박혀
소망, 동경, 이상
▶ 1~2연: 청포도가 익어 가는 고향에 대한 추억

하늘 밑『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의인화를 통해 소망하는 세계를 나타냄
희망과 소망의 세계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희망, 꿈
① 어두운 역사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해방된 조국
② 고통과 시련을 겪은 민족 지사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①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② 조국의 광복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 희망의 이미지
▶ 3~4연: 청포를 입고 오는 손님을 기다림

손님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가정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냄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 5연: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소망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정성, 순수, 순결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하얀'의 시적 허용
확신에 찬 기대감
▶ 6연: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자세로 손님을 기다림

청포도

본문 028~02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시에서는 화자와 대상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어요. (◯ / ×)

시어(구)
•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청 포 도'는 풍요로운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 이 시에서 대상을 기다리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두 가지 시어는 무엇인가요? 은쟁반, 모시 수건

표현
• 이 시는 각 연을 2행으로 배열하여 구조적으로 안 정 감을 주고 있어요.

주제
•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작가가 이 시를 창작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조국 광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자 한다.

문제

1 ④ 2 ② 3 ⑤

학습 노트

• **조바심:**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임. 또는 그렇게 졸이는 마음

1 화자·대상 **화자의 태도**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에서 화자는 손님과 함께 청포도를 따 먹는 장면을 그려 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화자는 '내 고장'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고향을 떠나온 처지를 서러워하고 있지 않다.
❷ 화자는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❸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며,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지도 않는다.
❺ 1~2연에 화자의 평화롭던 삶이 나타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화자의 태도

화자 ⟹ (기다림) 손님

이 시의 화자는 손님이 온다고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고, 그가 올 것에 대비해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을 준비하고 있다.

2 시어(구) **시구의 의미**

이 시에서 ㉠ '내가 바라는 손님'은 화자가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상으로,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이다. 이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ㄹ)를 상징하며, 창작 배경이나 작가의 삶을 고려할 때 조국의 광복(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 화자·대상 **대상의 특성** + 표현 **표현상 특징**

㉮의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은 화자가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하여 정성스럽게 마련해 두려는 소재로, 정성과 순수, 순결을 상징한다. 따라서 빛이 바랜 느낌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성 어린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 '푸른 바다'는 푸른색 계열의 시어이며 하늘 밑에 있고 가슴을 연다는 시구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하늘'과 맞닿아 넓게 트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❷ ㉯ '흰 돛단배'는 흰색 계열의 시어이므로, 푸른색 계열의 시어인 '하늘', '바다'와의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❸ ㉰ '손님'은 '청포'를 입고 있는 푸른색 계열의 시어이며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므로, 반갑게 느껴지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❹ ㉱ '청포도'는 푸른색 계열의 시어이며 화자의 '희망'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상징하므로, 싱그럽고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알아 두기 시어의 색채 대비

푸른색		흰색	
• 청포도	• 하늘	• 흰 돛단배	• 은쟁반
• 푸른 바다	• 청포	• 하이얀 모시 수건	

효과: 주제를 형상화하고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독해 체크 본문 030쪽

❶ 청포도 ❷ 소망 ❸ 손님 ❹ 확신 ❺ 풍요
❻ 정성 ❼ 청포 ❽ 은쟁반 ❾ 일제 강점기 ❿ 광복

어휘 체크 본문 031쪽

1 ④ **2** ① **3** ③

1 음성 상징어

〈보기〉의 '주저리주저리'는 '너저분한 물건이 어지럽게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④ '짤랑짤랑'은 '얇은 쇠붙이나 작은 방울 등이 자꾸 흔들리거나 부딪쳐 울리는 소리.'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오답노트 ❶ '글썽글썽'은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자꾸 그득하게 고이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이다.

❷ '번쩍번쩍'은 '큰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이다.

❸ '올망졸망'은 '작고 또렷한 것들이 고르지 않게 많이 벌여 있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이다.

❺ '힐끔힐끔'은 '거볍게 곁눈질하여 슬쩍슬쩍 자꾸 쳐다보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이다.

2 바꿔 쓰기

〈보기〉의 '고달픈'은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한.'이라는 뜻이므로, 이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어휘는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시달려서 기운이 빠진.'이라는 뜻의 ① '지친'이 적절하다.

오답노트 ❷ '가냘픈'은 '몸이나 팔다리 등이 몹시 가늘고 연약한.'이라는 뜻이다.

❸ '고결한'은 '성품이나 인격이 매우 훌륭하고 깨끗한.'이라는 뜻이다.

❹ '통달한'은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등을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한.'이라는 뜻이다.

❺ '활기찬'은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이라는 뜻이다.

3 어휘의 의미

이 시에서 '함뿍'은 '물이 쭉 내배도록 젖은 모양.'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③에서 '함뿍'은 '분량이 차고도 남도록 넉넉하게.'라는 뜻으로 쓰였다.

실전 05

낙화 | 이형기

여러분은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이 시에서 화자는 '꽃이 지는 것'을 통해 이별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꽃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과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주목하며 시를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성찰적, 애상적
주제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특징 • 자연 현상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
•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함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떠나야 할 순간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것의 아름다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이별의 시간)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이: 이별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사람)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설의법, 영탄적 어조)
▶ 1연: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

㉠『봄 한철』: 자연 현상인 낙화를 인간사의 이별과 견주어 봄 (봄 한철: 꽃이 무성하던 시절. 젊은 시절)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하강의 이미지, 나의 사랑은: 꽃)
▶ 2연: 격렬한 감정을 이겨 내고 떠나가는 낙화(이별의 순간)

분분한 낙화……
(분분한 낙화: 어지럽게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 → 이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낙화를 통해 무성한 녹음을 지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임. 역설법)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별에 대한 인식)
▶ 3연: 축복에 싸여 떠나가는 낙화(이별의 인식)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낙화의 결과 ①: 성숙의 과정)
머지않아 열매 맺는
(머지않아 열매 맺는: 낙화의 결과 ②: 내적 성숙)
㉡가을을 향하여
(가을을: 성숙의 계절)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열매를 맺기 위해 낙화하듯 성숙을 위해 청춘을 희생함)
▶ 4~5연: 녹음과 결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낙화(이별의 의미)

헤어지자
(헤어지자: 이별에 대한 수용적 태도)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 의태어, 꽃잎이 지는: 이별의 모습)
▶ 6연: 꽃잎이 아름답게 지는 모습(이별의 모습)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직유법을 활용하여 내면의 성숙을 구체화하여 표현함)
내 영혼의 슬픈 눈.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의 아픔을 인내함으로써 내적 성숙이 이루어짐)
▶ 7연: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낙화 본문 032~03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과 이 별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어(구)

- 1연에서 '이별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구는 무엇인가요? 가야 할 때
-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별의 결과로 생기는 내적 성숙

표현

- 이 시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인생을 대응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 ×)

문제

1 ③ 2 ⑤ 3 ③ 4 ⑤

학습 노트

-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 **역설적 표현:**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어긋나는 듯하나 그 속에 진리를 담는 표현 방법
- **추상적:** 일정한 형태나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예 사랑, 우정, 행복 등

1 화자·대상 화자의 태도

화자는 꽃이 진 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별의 아픔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음을 드러내며, 이별의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노트 ❶, ❷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거나 이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다. 임과의 이별을 인식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❹, ❺ 화자는 임과 이별하며 절망적인 현실에 체념하거나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

2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시는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꽃답게 죽는다', '꽃잎이 지는'과 같이 주로 하강의 이미지를 갖는 시구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1연에서 떠나야 할 순간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❷ 3연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이별'과 긍정적 의미를 지닌 '축복'을 연결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내적 성숙을 가져다주는 이별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별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부각한다.
❸ 7연에서 직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면의 성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❹ 6연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사람이 섬세한 손길을 흔드는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배경지식 다양한 표현 방법

역설법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 예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반어법	나타내려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 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설의법	누구나 알고 있거나 예측되는 결과를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3 시어(구) 시어의 의미

㉠ '봄 한철'은 꽃이 한창 피어 있던 때, 곧 사랑이 무르익었던 시절을 뜻한다. ㉡ '가을'은 꽃이 진 뒤 열매를 맺는 때로, 이별을 겪고 이르게 될 성숙의 시간을 뜻한다.

4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보기〉에서는 이 시에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하였다. '슬픈 눈'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별의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내면의 성숙만이 남았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에는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다.
❷ '격정을 인내한'에는 이별의 격정적 슬픔을 참고 인내한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는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내면이 성숙한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❹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에는 내면의 성숙을 위해 이별을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34쪽

❶ 축복 ❷ 결실 ❸ 이별 ❹ 수용 ❺ 하강 ❻ 낙화 ❼ 역설 ❽ 성숙

어휘 체크 본문 035쪽

1 ④ 2 ④ 3 낙화

1 접두사의 쓰임

〈보기〉의 '한철'은 '한창 성한 때.'라는 뜻으로, 여기서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④ '한시름'은 '큰 시름.'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한-'은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오답노트 ❶ '한낮'은 '낮의 한가운데.'라는 뜻으로, 여기서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❷ '한겨울'은 '추위가 한창인 겨울.'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❸ '한밤중'은 '깊은 밤.'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❺ '한추위'는 '한창 심한 추위.'라는 뜻으로, 여기서 '한-'은 '정확한' 또는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2 다의어의 의미

〈보기〉에서 '지다'는 '꽃이나 잎 등이 시들어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낙엽이 지기 전에'라고 쓴 ④이다.

오답노트 ❶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❷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❸ '내기나 시합, 싸움 등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상대에게 꺾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❺ '묻었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닦이거나 씻겨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3 한자어의 의미

이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낙화'는 '떨어진 꽃. 또는 꽃이 떨어짐.'이라는 뜻이며, '이별, 결별'을 의미한다.

실전 06

제망매가 | 월명사

누군가와 이별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때로는 그리움과 슬픔을 이겨 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해요. 이 작품의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나보내며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화자가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며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10구체 향가
성격 애상적, 추모적, 종교적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특징 •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
•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함

생사(生死) 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예 있으매 (여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승)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죽은 누이)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소식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
▶ 1~4구: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의 이른 죽음(요절))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죽은 누이(누이의 죽음))
한 가지에 나고 (한 부모)
가는 곳 모르온저. (죽어서 가는 곳을 알 수 없음)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요절한 누이에 대한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함
▶ 5~8구: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인생의 무상함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누이와 재회할 수 있는 종교적 공간)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종교적 극복의 의지)
▶ 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 및 극복

제망매가

본문 036~03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작품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 ⊗)
화자는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지만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시어(구)
• '미타찰'은 화자와 대상이 재회할 이상적 공간을 의미해요.

표현
• 9구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문제

1 ② **2** ① **3** ⑤

학습 노트

• **삶에 대한 무상감:**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 **대조적 표현:** 서로 반대되거나 차이가 뚜렷한 두 대상을 맞세워 그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
• **반어적 표현:** 실제로 나타내려는 뜻과 반대로 말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1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작품은 누이의 죽음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한 가지에 나더라도 떨어지고 나면 잎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죽어서 가는 곳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2 화자·대상 화자와 대상의 상황 + 시어(구) 시구의 의미

〈보기〉를 통해 죽은 대상은 화자의 누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사(生死) 길은 / 예 있으매'는 화자의 처지가 아니라 죽은 누이의 처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답 노트 ❷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서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할 만큼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웠음을 추측할 수 있다.
❸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에서는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❹ '한 가지에 나고'에서는 화자와 누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❺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에서는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3 종합 작품 간 비교 감상

〈보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지만, 이 작품은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오답 노트 ❶ 이 작품에서는 '아아', 〈보기〉에서는 '어즈버'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❷ 이 작품은 누이의 죽음을 상실의 대상으로 삼았고 〈보기〉는 지나간 고려 왕조를 상실의 대상으로 삼았다.
❸ 이 작품은 현실에서 '미타찰'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시상을 확장하고, 〈보기〉는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❹ 이 작품은 누이와의 만남에 대한 다짐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보기〉는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독해 체크

본문 038쪽

❶ 죽음 ❷ 종교 ❸ 누이 ❹ 재회 ❺ 이른
❻ 미타찰 ❼ 무상함 ❽ 아아

어휘 체크

본문 039쪽

1 ① **2** ④

1 문맥적 의미

㉠에 사용된 '예'는 '여기'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2 어휘의 의미

ⓐ는 '무엇이라고 말하다.'를 뜻하는 '이르다[2]'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를 뜻하는 '이르다[3]'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전 07 **만흥(漫興)** | 윤선도

'만흥'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한가롭게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화자가 이러한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 6수)
성격 자연 친화적, 풍류적
주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
특징 • 자연과 인간 세상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냄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 ↔ □: 세속적인 삶

산수 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 하니
(속세와 떨어진 자연의 공간 / 소박한 생활을 의미함)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그 가치를 모르는 속세의 사람들 / 영탄법)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화자 자신을 이르는 말 / : 안분지족)
▶ 제1수: 분수를 지키며 자연 속에서 살아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소박한 생활을 의미함)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노니노라
(자연 속에서 / 설의법)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것이 있으랴 〈제2수〉
(그 밖의 다른 일 = 부귀영화, 세속의 일)
▶ 제2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감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를 바라보니
그리던 임이 온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설의법)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제3수〉
(자연과의 교감(물아일체), 의인법)
▶ 제3수: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김

그 누가 삼공(三公)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설의법)
이제사 생각하니 소부(巢父) 허유(許由)가 냑돗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제4수〉
(주제와 관련된 화자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말)
▶ 제4수: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자부심을 느낌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셔서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 제5수: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소임임

강산(江山)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설의법)
『임금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나이다
(「 」: 임금의 은혜에 대한 찬양)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 〈제6수〉
▶ 제6수: 자연에 은거하게 해 준 임금께 감사함

만흥(漫興)

본문 040~04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화자는 〈제3수〉에서 그리던 임을 만난 반가움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고 있어요.
(○, ⊗)
화자는 자연에서의 즐거움이 임을 만난 반가움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시어(구)
• 〈제2수〉에서 속세의 삶을 나타내는 4어절의 시구는 무엇인가요? 그 남은 여남은 일
•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강 산임을 〈제5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표현
• 이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법으로, 질문의 형식을 띠지만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닌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요? 설의법(설의적 표현)

문제

1 ③ 2 ② 3 ④ 4 ②

학습 노트

• **재야:** 초야에 파묻혀 있다는 뜻으로, 공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민간에 있음을 이르는 말
• **고사:**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 **역설적 표현:**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어긋나는 듯하나 그 속에 진리를 담는 표현 방법

1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

이 작품의 〈제1수〉에서 화자는 산 속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삶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❷ 〈제1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그 모르는 남들'이 웃는다 하였지만, 이에 대한 걱정이나 안타까움을 내비치지는 않았다.
❹, ❺ 〈제1수〉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뿐, 속세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2 표현 **표현상 특징**

이 작품에서는 자연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시구와 세속적인 삶을 나타내는 시구를 대립적으로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가치관을 부각하고(ㄷ), 〈제4수〉에서 중국 고사 속 인물인 '소부'와 '허유'를 활용하여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ㄱ).

오답노트 ㄴ. 이 작품에서 역설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ㄹ. 이 작품에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는 활용되지 않았다.

3 시어(구) **시어의 의미**

'삼공'은 삼정승,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일컫는 말이고, '만승'은 만 대의 수레라는 뜻으로, 왕 또는 왕의 자리를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삼공'과 '만승'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의미하며,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과는 대비된다.

4 주제 **작품의 주제**

〈제3수〉는 그리운 임에 대한 반가움도 자연이 주는 즐거움에 비해서는 못하다며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임금에 대한 충절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노트 ❶ 〈제2수〉에서 화자는 보리밥 풋나물을 먹고사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❸ 〈제4수〉에서 화자는 '임천 한흥'이라는 시구를 통해 주제와 관련한 화자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❹ 〈제5수〉에서 화자는 하늘이 '다툴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며 자연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임임을 밝히고 있다.
❺ 〈제6수〉에서 화자는 만족스러운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 은혜' 덕분이며 이를 갚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42쪽

❶ 자연 ❷ 임금 ❸ 안분지족 ❹ 세속 ❺ 소박
❻ 대립 ❼ 설의법 ❽ 물아일체

어휘 체크 본문 043쪽

1 ④ **2** ⑤ **3** ③

1 한자 성어의 의미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이라는 뜻이다. 〈제5수〉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에게 인간 만사는 맡기지 않고 다만 강산을 지키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세속의 일을 멀리하고 자연을 지키며 사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태도이므로, 욕심이 생긴다는 뜻의 '견물생심'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의 의미로, 화자는 산수 간 바위 아래 초가를 짓고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다고 말하고 있다.

❷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의 의미로, 화자는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뒤 바위 끝 물가에서 노니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

❸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의 의미로, 화자는 말도 웃음도 나누지 않으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못내 좋아하고 있다.

❺ '연군지정(戀君之情)'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의미로,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며 지낼 수 있는 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며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어휘의 의미

㉠ '낫다'는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뜻이다. 화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취가 삼공이나 만승의 자리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 ⑤의 '나은'은 겨울과 여름을 견주어 여름이 더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노트 ❶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는.'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❷ '낳다'의 활용형으로, '뱃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❸ '낮다'의 활용형으로, '높낮이로 잴 수 있는 수치나 정도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❹ '낮다'의 활용형으로,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고어의 의미

㉡ '냑돗더라'는 '약았더라, 영리하더라.'라는 뜻이다. 소부와 허유는 중국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았던 인물들이다. 화자는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그들이 참으로 영리했다고 함으로써,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이 그만큼 좋은 것임을 그들이 먼저 알아보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난다.

실전 08

속미인곡 | 정철

이 작품의 작가는 조선 시대 문신인 정철이에요. 명망 높은 사대부가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품에 담긴 이면적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감상해 볼까요?

갈래 양반 가사, 서정 가사, 정격 가사
성격 서정적, 충신연주지사
주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
특징 •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림
•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님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임 계신 곳(한양))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
㉮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가. (화자: 을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뫼**에 올라가니 (임에게 좀 더 가까이 가려는 화자의 노력) ▭: 화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는 공간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가. ▭: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간신)
산천(山川)이 어두운데 **일월**(日月)은 어찌 보며 (부정적인 시대 상황 / 임금)
지척(咫尺)을 모르는데 **천 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먼 곳, 임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냄)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의 소식을 알 수 없어 절망감을 느낌)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첨(茅簷) 찬 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임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는 화자의 모습)
잠시 동안 역진(力盡)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임을 볼 수 있는 매개체)
옥(玉)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네.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려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이는데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방해물) ▶ 본사 2: 을녀의 임에 대한 걱정과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아아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홀로 된 화자의 쓸쓸한 심정)
『차라리 죽어져서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임금에 대한 충절)
(멀리서 잠깐 임을 바라보다 짐 – 소극적)
님 계신 창 안에 번드시 비추리라.』
『 』: 죽어서라도 임을 보겠다는 화자의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나타남
각시님 달은커녕 ㉤궂은비나 되소서. → 갑녀의 말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임의 옷을 적심 – 적극적)
▶ 결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을녀의 다짐과 갑녀의 위로

속미인곡

본문 044~04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화자·대상

- 이 작품에는 임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

시어(구)

-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해요.
- 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시어는 무엇인가요? 궂은비

표현

- 이 작품은 두 여인의 대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문제

1 ③ 2 ③ 3 ③ 4 ④

학습 노트

- **탈속적 공간:**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공간 ↔ 세속적 공간
- **객관적 상관물:** 시에서 시인 또는 화자가 정서와 사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사물

1 화자·대상 **화자의 태도** + 시어(구) **시구의 의미**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는 현실을 슬퍼하며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현실을 벗어나 탈속적 공간을 지향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노트 ❶ 화자는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는 임과의 거리를 좁혀 보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❷ '산천'이 어두워서 '천 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임과의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❹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는 임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이리저리 서성이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의 노력이 드러난다.

❺ 꿈에서 임을 만난 화자는 마음에 품었던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목이 메고 만다. 여기에서 임을 만나고도 회포를 풀지 못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2 표현 **표현상 특징**

설의적 표현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이 작품에서 '지척을 모르는데 천 리를 바라보랴.'는 의문의 형식을 빌려 임의 소식을 알 길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계절의 변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지는 않는다.

❷ 과거와 미래를 대비한 표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❹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은 이 작품에서 찾을 수 없다.

❺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음성 상징어가 활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 시어(구) **시어의 기능**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밝은 '반벽청등'은 임의 부재에 따른 외로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안개'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임을 볼 수 없게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다.

❷ '빈 배'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❹ '닭소리'에 화자가 꿈에서 깨어나므로, 화자가 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꿈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이다.

❺ 을녀는 임을 멀리서 비추는 '낙월'이 되고자 하는데 갑녀는 오랫동안 내리며 가까이에서 임을 볼 수 있는 '궂은비'나 되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제안하고 있다.

4 시어(구) **시어의 의미** + 주제 **작품의 주제**

'옥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네.'는 꿈에서 본 임의 모습으로, 임이 많이 변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늙으셨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임금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노트 ❶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님'은 '임금'을 의미하고, '일월'은 해와 달로 '임금'을 상징한다.

❷ '산천'이 어둡다는 것은 당시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이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드러난다.

❸ '바람'과 '물결'은 임과 화자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뜻하는 소재로, 화자가 임금에게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❺ 화자가 죽어서라도 '낙월'이 되어 임 계신 창 안을 비추겠다고 한 것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46쪽

❶ 그리움 ❷ 임 ❸ 구름 ❹ 꿈 ❺ 빈 배 ❻ 낙월 ❼ 적극적 ❽ 다짐

어휘 체크

본문 047쪽

1 ② 2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갔구나. 3 ②

1 **한자 성어의 의미**

'일취월장'은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이라는 뜻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나타낸 '지척을 모르는데 천 리를 바라보랴'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노트 ❶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의 의미로, '님 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❸ '좌불안석(坐不安席)'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로,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❹ '혈혈단신(孑孑單身)'은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의 의미로, '가엾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❺ '일편단심(一片丹心)'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로, '차라리 죽어져서 낙월이나 되어서 / 님 계신 창 안에 번드시 비추리라'의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이다.

2 **고어의 의미**

'거의로다'는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현대 국어의 '거의'와 뜻이 크게 다르지 않아 시구 '오늘도 거의로다.'는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갔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3 **사전적 의미**

'강천(江天)'은 '멀리 보이는, 강 위의 하늘.'을 뜻하는 말이다. 화자가 물가에 홀로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장면에 쓰였다.

2 산문 문학

예제 01 봄·봄 | 김유정

여러분은 누군가와 한 약속이 계속 미뤄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이 글의 '나'는 점순이와 혼인하기를 바라지만, 장인의 계속되는 핑계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장인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지요. '나'와 장인, 점순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익살스러운 사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들의 모습과 작품의 해학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며 글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해학적, 향토적, 토속적
주제 어수룩한 데릴사위와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
특징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의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함
• 토속어와 비속어, 인물의 희극적 행동을 통해 해학성을 유발함

봄·봄 ①

본문 054~05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짐작했나요?
> (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나'는 점순이가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 '나'는 점순이와의 성례를 미루는 장인에게 불만을 품고 일을 게을리했어요. (○, ⊗)
(나)에서 '나'는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 왔다고 하였다. 절정에서 점순이의 말을 듣고 일을 안 하는 대목이 나오기는 하지만 해당 대목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배경·소재
• 당시 노동력이 중요했던 농촌의 시대상을 드러내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데릴사위

서술
• 이 글은 강원도 지역의 토속어를 사용하여 농촌 마을의 향토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문제

1 ⑤ **2** ④ **3** ④ **4** ②

1 서술 **서술상 특징**
이 글은 성례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장인과 데릴사위의 갈등을 다룬 단편 소설이다. 인물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두 인물의 대조적인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이 글에서 갈등하는 인물은 데릴사위인 '나'와 장인으로, 두 사람의 갈등과 관련하여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❹ 이 글은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고 일관적으로 '나'의 시점에서 서술한다.
❸ 이 글에 '나'와 장인의 갈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다)에서 '나'는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 점순이의 키를 재어 볼까 생각했을 뿐, 장인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하여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우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때 눈어림으로 키를 재어 보았을 뿐이다.

오답노트 ❶ (가)에서 '나'는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점순이가 자라야 된다고 하고 만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음을 알 수 있다.
❷ (가)에서 괄호 속에 드러난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를 통해 장인이 '나'의 먹성에 대한 걱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❸ (가)에서 '나'는 장인의 집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삼 년 하고 일곱 달 동안을 했다고 하였다.
❺ (다)에서 '나'는 빨리 성례하기 위해 점순이 대신 물을 길어 주고,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렸다고 하였다.

▶ 정답의 근거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 번 재 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움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제—미, 키두!"
하고 논둑에다 침을 퉤 뱉는다. ……
'나'의 답답한 심정과 어수룩함 – 해학성 유발
'나'와 점순이의 순진함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답답함 – 비속어를 사용하여 해학성 유발

3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가)에서 장인은 성례를 시켜 달라는 '나'의 요구에 점순이가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대답을 되풀이한다. 그러는 사이 '나'는 삼 년 칠 개월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을 해 왔다. 즉, 장인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없는 점순이의 키를 구실로 삼아 '나'의 성례 요구를 무마하려 한다.

오답노트 ❶, ❷ 장인은 성례를 명목으로 '나'를 부려 먹으려 하므로, 점순이와 성례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거나 점순이의 키가 어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❸ 장인은 애초에 '나'와 성례를 전제로 계약했으므로, 어리다는 이유로 성례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괘씸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❺ 장인은 점순이의 키가 덜 자랐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루고 있으므로, 점순이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인물·사건 **내용 이해**
㉡이 '나'와 장인이 계약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성례할 날을 '딸이 자라는 대로'라고 모호하게 정하여 성례를 언제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를 통해 성례를 명목으로 '나'를 공짜로 부려 먹으려는 장인의 교활한 속셈을 알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의 장인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벙벙하는 모습에서 '나'의 어수룩한 성격이 드러난다.

❸ ㉢은 작은 키에 옆으로만 자라는 점순이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❹ ㉣은 장인이 알아서 성례를 시켜 주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을 장인의 말을 빌려 제시하고 있다.
❺ ㉤에서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불만이 드러난다.

봄·봄 ②

본문 056~05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나'가 지게를 벗어 던지고 바깥마당에 드러누운 까닭은 무엇인가요?

>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일할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 '나'와 장인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 장인이 성례를 시켜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 상황의 다급함을 드러내며 해학성을 유발하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배경·소재

- (사)에서 장인과 '나'의 싸움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바지가랭이

서술

- (마)에는 서술 주체의 생각을 괄호를 활용하여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 ×)

문제

5 ④ **6** ③ **7** ③

5 서술 서술상 특징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단편 소설이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나'의 관점에서 내용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사건이나 다른 인물의 심리가 '나'의 잘못된 추측과 판단에 의해 왜곡되어 제시된다. 즉 이 글은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를 서술자로 내세움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어수룩한 '나'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빠르고 긴박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❷ 이 글에 '나'의 내적 성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❸ '나'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심리가 왜곡되어 제시된다.
❺ 이 글은 '나'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속마음을 두루 밝히지 않는다.

알아 두기 「봄·봄」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 '나'는 주인공이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임
효과	• 독자가 서술자의 심리를 생생히 느끼는 효과가 있음 • 세상 물정에 어두운 '나'의 관점에서 내용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이 '나'의 추측과 판단에 의해 왜곡되어 제시됨 •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가 토속적 어휘와 사투리를 사용하여 서술함으로써 해학성을 빚어냄

6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마)에서 '나'는 울타리 구멍으로 자신과 장인의 싸움을 엿보고 있는 점순이를 의식하여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는 등 적극적으로 반격한다. 점순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나'뿐이며, 장인은 일을 하지 않고 꾀병을 부리는 '나'가 괘씸하여 모질게 대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노트 ❶ 〈보기〉에서 점순이는 구장님한테 갔다가 성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나'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❷ 〈보기〉에서 '나'를 충동질한 점순이는 (마)에서 '나'와 장인의 싸움을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엿보고 있다.
❹ 〈보기〉에서 '나'는 점순이와 내외를 하느라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답변하고 있다.
❺ (마)에서 '나'가 적극적으로 장인에게 반격한 것은 점순이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7 서술 서술상 특징

㉦ '이 녀석의 장인님'은 상대를 낮추는 '이 녀석'과 상대를 높이는 '장인님'을 한데 붙여 쓴 표현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이 나란히 놓이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꾀병을 부리는 '나'를 나무라고 있을 뿐,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을 함께 쓰고 있지 않다.
❷ 성례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을 함께 쓰고 있지 않다.
❹ '나'와 장인의 비정상적인 싸움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을 함께 쓰고 있지 않다.
❺ 상황의 다급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을 함께 쓰고 있지 않다.

봄·봄 ③

본문 058~05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점순이는 '나'와 장인이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들었나요? 장인
- 장인은 '나'를 달래며 어떤 약속을 하였나요?

> 장인은 '나'에게 올갈에 점순이와의 성례를 꼭 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배경·소재

-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임을 나타내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히연 (한 봉)

서술

- 이 글은 '나'와 장인이 화해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며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 ⊗)

이 글은 '나'와 장인이 화해하는 장면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후에 '나'와 장인의 싸움 장면을 제시하며 마무리하였다.

문제

8 ④ **9** ④ **10** ⑤ **11** ③

8 서술 구성의 효과

이 글은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나'와 장인의 싸움의 우스꽝스러움을 극대화한다.

오답 노트 ❶, ❺ '나'와 장인은 (아)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❷ '나'와 장인의 싸움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싸움이다.
❸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알아 두기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한 효과

절정 1	'나'와 장인의 우스꽝스러운 싸움: '나'가 장인의 수염을 잡아채며 싸움이 시작됨
결말	'나'와 장인의 일시적 갈등 해소: 희극적인 싸움이 끝나고 '나'가 다시 일을 하러 감
절정 2	'나'의 반격과 이중적인 점순이의 태도: 점순이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나'가 어리둥절함

↓

결말을 절정 사이에 삽입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해 '나'와 장인의 싸움의 우스꽝스러움을 극대화시켜 해학성을 부각하고 작품의 긴장감과 해학성을 강조함

9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아)에서 '나'의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 준 사람은 점순이가 아니라 장인이다.
오답 노트 ❶ (자)에서 '나'는 장인이 땅에 쓰러져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고 겁도 났다고 하였다.
❷ (자)에서 바짓가랑이를 잡힌 장인은 상황이 위급해지자 점순이를 부르며 도움을 청하였다.
❸ (차)에서 장모는 '나'에게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며 장인이 지게막대기로 '나'를 나려조기도록 도왔다.
❺ (아)에서 '나'는 올갈엔 꼭 성례를 시켜 준다는 장인의 말에 눈물까지 날 정도로 고마워하였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 어휘 **속담의 의미**
'나'를 충동질했던 점순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장인의 편을 들며 '나'를 망연자실하게 한다. 이러한 '나'의 심정을 속담으로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란 매우 힘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가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❷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❹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11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장인이 "올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라고 말하며 '나'의 등을 뚜덕여 준 것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즉 '나'에게 계속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이다.

예제 **02** **임경업전** | 작자 미상

누구나 한 번쯤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영웅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겁니다. 특히 사회에 바라는 것이 있거나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영웅의 등장을 꿈꾸죠. 조선 후기 민중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는 영웅 소설인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역사 소설, 군담 소설
성격 민족적, 비판적
주제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
특징 •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에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함
•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달리 비극적으로 끝남
•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이 나타남

임경업전 ① 본문 060~06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자신보다 세 자와 대군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에서 임경업의 충절이 드러나요.
• 김자점은 호국에서 돌아온 임경업에게 상을 내릴 것을 주장했어요. (○, ⊗)
김자점은 임경업을 대역 죄인이라고 모함하였다.

배경·소재
• 이 글은 실제 역사적 사건인 병 자 호 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서술
• 이 글은 어떤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나요?
> 이 글은 전 지 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전말까지 서술하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② **3** ⑤

1 서술 **서술상 특징**
(가)에서는 임경업과 호왕 간의 대화, (나)에서는 임경업과 세자, 대군 간의 대화, (다)에서는 김자점과 임금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낭만적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❷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❸ 이 글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특정한 소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❺ 이 글에는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없다. 인물이 처한 상황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가)에서 호왕이 권위를 내세워 임경업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임경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 있다. 호왕은 이러한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세자와 대군을 풀어 주었다.

오답 노트 ❶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에 탄복했을 뿐, 임경업의 보복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다.

❸ 임경업은 호왕에게 세자와 대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기는 했으나, 그 대가로 자신의 향복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❹ 호왕은 임경업이 한결같이 충절을 지켰기 때문에 세자와 대군을 풀어 준 것일 뿐, 세자와 대군의 도움을 받아 임경업의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은 아니다.

❺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에 탄복하여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돌려보내 준 것일 뿐, 세자와 대군이 조선에 돌아가 임경업을 처벌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아니다.

▶ 정답의 근거

"내어 베어라."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십보지하에 있느니라."
「 」: 임경업의 당당한 태도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하여,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짐

『"장군이 내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忠臣)이라. 내
「 」: 충성심, 절개, 의리를 중시하는 호왕의 성격이 드러남
어찌 충절을 해하리요.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하며,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하더라.

알아 두기 '임경업'과 '호왕'의 갈등 양상

갈등 내용	호왕이 권위를 내세워 임경업에게 항복을 요구함
해소 과정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임경업의 충의에 감복한 호왕이 임경업의 요구를 들어줌

↓

임경업의 용맹과 충의가 강조됨

3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임금은 임경업을 '만고충신'이라 하며 그가 자신을 해롭게 하더라도 아무도 해치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김자점의 참소에도 임경업에 대한 신의를 굽히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이 임경업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노트 ❶ 임경업은 향복하라고 권유하는 호왕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의 절개와 충성심이 청중에게 즉각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❷ 임경업은 조선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는 인물이다. 따라서 호왕이 임경업을 베라고 명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청중이 청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❸ 호왕이 소원을 말하라 하자 세자는 금은을 청하였으나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사람을 청하였고, 호왕은 이를 기특히 여겼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대군의 모습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❹ 김자점이 임경업을 모함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김자점이 아무 잘못이 없는 임경업을 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졌을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임경업전 ②

본문 062~06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임경업이 이유 없이 잡혀가자 의주 백성들은 남녀노소 없이 슬퍼했어요. (◯ ×)
- 옥에서 김자점의 흉계를 알게 된 임경업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 임경업은 옥 문을 깨치고 탈출하여 상을 만나러 갔어요.

서술

- (바)에서 임경업은 지난날 겪은 일을 요 약 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어요.

문제

4 ① 5 ① 6 ⑤

4 서술 서술상 특징

임경업과 김자점의 대립 구도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어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오답 노트 ❷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리라.'와 같이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❹ 임경업과 적대자인 김자점의 갈등이 나타나지만, 도술 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❺ 임경업이 전옥 관원을 통해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흉계임을 알게 되었을 뿐,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악인을 징벌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인물·사건 인물의 역할

㉠ '전옥 관원'은 임경업이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힌 것이 모두 김자점의 흉계임을 알려 주면서 임경업에게 누명을 벗으라고 조언하였다.

오답 노트 ❷ 전옥 관원은 임경업의 불쌍한 처지를 알고 임경업이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흉계임을 알려 주기는 하나, 자신이 직접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❸ 전옥 관원은 임경업에게 누명을 벗으라는 말은 하였지만, 임경업을 풀어 준 것은 아니다. 임경업은 스스로 옥문을 깨고 탈출하였다.

❹ 김자점의 지시를 받은 인물은 옥졸이며, 전옥 관원은 강직한 인물로 임경업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다.

❺ 전옥 관원은 임경업이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흉계임을 알려 줄 뿐, 김자점과 임경업의 갈등을 중재하지는 않았다.

▶ 정답의 근거

㉠ 전옥(典獄) 관원은 강직한지라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더러 이르기를,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이니, 잘 주선하여
임경업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임경업이 옥에 갇힌 이유를 알려 줌
누명을 벗으라."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6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와 태도

ⓔ에서 임금은 임경업에게 그간의 사정을 듣고 크게 노하여 충신인

임경업을 죽이려고 한 김자점을 꾸짖고 있다. 따라서 차분한 목소리와 타이르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에서 임경업은 자신이 옥에 갇힌 이유를 모른 채 세자와 대군이 자신의 일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❷ ⓑ에서 임금은 멀리 타국에서 돌아온 임경업을 반기는 한편, 자신에게 청죄하는 임경업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❸ ⓒ에서 임경업은 여러 어려움을 거친 끝에 임금을 다시 만난 상황에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감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여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❹ ⓓ에서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김자점의 흉계임을 알게 된 임경업은 크게 노하여 김자점을 꾸짖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크게 분노한 표정과 큰 목소리로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은 적절하다.

배경지식 실존 인물인 임경업과 김자점

임경업	조선 인조 때의 명장(1594~1646). 이괄의 난에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음
김자점	조선 중기의 문신(1588~1651). 인조반정 때에 공을 세워 영의정에 이르렀음. 효종이 즉위한 후 파직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선이 북벌(北伐)을 계획하고 있음을 청나라에 밀고하여 역모죄로 처형됨

임경업전 ③

본문 064~06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대군이 임경업을 '만고 충신'이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임경업에 대한 대군의 신의가 높음을 알 수 있어요.

- 상은 꿈에 임경업이 나오기 전까지 임경업이 자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서술

- 이 글은 주인공이 죽은 이후의 후일담까지 전하고 있어요. (◯ ×)

문제

7 ① **8** ④ **9** ① **10** ⑤

7 서술 서술상 특징

임금이 꿈을 꾸기는 하였으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장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❷ 충신이자 영웅인 임경업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을 제시하여 작품의 비극성을 고조하고 있다.

❸ '기축 9월 26일이라.'에서 임경업이 죽은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❹ 결말 부분에서 간신인 김자점을 처형함으로써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❺ 이 글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의 상황과 사건의 내막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8 인물·사건 내용 이해

우의정 이시백은 김자점이 반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임금에게 이를 알렸지만, 임경업이 임금의 꿈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다.

오답 노트 ❶ (아)에서 대군은 김자점을 의심하여 임금에게 김자점이 만고 충신인 임경업을 해치려 한다고 아뢰었다.

❷, ❸ (자)에서 임경업이 죽은 후 임금은 승지를 보내어 위문하고, 대군은 친히 조문하고 예관을 보내 삼 년 제사를 받들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는 임경업의 공을 인정하였기에 그의 죽음을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❺ (자)에서 임경업의 자손과 친척들은 임경업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급히 경성에 이르렀으나, 임경업이 이미 죽었음을 알고 통곡하였다.

9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임경업은 임금의 꿈에 나타나 김자점이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과 김자점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오답 노트 ❷ 꿈을 통해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이 드러날 뿐, 임금의 비극적 죽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❸ 임금과 임경업은 갈등 관계가 아니므로, 꿈이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❹ 꿈에 등장한 임경업은 자신이 죽은 이유와 김자점의 실체를 밝혔을 뿐, 임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❺ 임경업은 임금에게 진실을 알려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지는 않았다.

10 주제 작품의 주제 의식

임금은 임경업이 죽은 이유를 알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할 만큼 임경업을 아끼는 인물이다. 따라서 임금이 임경업의 자식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을 위로하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아무 죄가 없는 임경업이 김자점의 흉계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설정은 민중의 소망이 좌절된 부정적 현실의 책임이 지배층에게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❷ 임경업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임경업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이며, 민중이 자신들의 소망이 반영된 영웅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❸ 김자점이 역심을 품고 임경업을 해하였다는 것은 나라의 위기에도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지배층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❹ 임금은 김자점의 삼족을 처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사리사욕만 채우던 지배층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작품의 주제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의 심리를 담음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는 간신 때문에 임경업과 같은 영웅이 희생된 현실을 반영함

실전 01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박태원

계획 없이 아무 데나 어슬렁거리는 사람의 눈에 비친 풍경과 그것을 보며 머릿속에 떠오른 잡다한 생각을 주저리주저리 적어 놓은 것도 한 편의 소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만나 볼 작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구보 박태원을 따라 1930년대의 서울 한복판을 여행하며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현대 소설, 심리 소설, 모더니즘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심리적, 관찰적
주제 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 의식
특징
- 한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사가 진행됨
- 당대 서울의 풍경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줌
- 하루에 걸친 여정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여로형 구조를 보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①

본문 066~06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유학을 다녀왔어요.
-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 센 성격 자체는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 / ×)

배경·소재
- 밤늦게 집에 돌아온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 펴 놓는 것으로, 아들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원고지

서술
- 이 글에서 주인공은 이름 대신 '아들'이라고 지칭되고 있어요.

문제

1 ③ 2 ④ 3 ③ 4 ③

학습 노트

- **허영심:** 자신의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필요 이상의 겉치레나 외관상의 화려함에 들뜬 마음

1 서술 **서술상 특징**

(가)~(다)에서 서술자는 어머니의 내면 심리만 직접 서술하고 있을 뿐, 아들 등 다른 사람의 내면 심리는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아들의 경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한다'처럼 겉으로 드러난 표정과 행동, 그리고 말이 제시되지만 그 속마음이 직접 설명되지는 않는다. 아들이 '흔연히 응낙하는' 모습 역시 어머니가 지켜본 바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 노트 ❶ (나)의 '어머니의 사랑은 보수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 줄 때, 그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 준다.'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머니는 얼마든지 뻔뻔스러울 수 있다.' 등에 서술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나 있다.

❷ 거의 모든 문장에서 쉼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문장의 끊어 읽기를 유도하고 있다.

❹ (나)의 '대체 무얼 사 줄 테냐. 무어든 어머니 마음대루. 먹는 게 아니래두 좋으냐. 네.'와 같이 큰따옴표 없이 인물 간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❺ (가)의 시작 부분에 '아들은'을 소제목처럼 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2 인물·사건 **내용 이해**

(다)에서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나 관청 등에서 일만 잘하는데, 동경에 유학까지 다녀온 자기 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나)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글을 팔아 돈을 구한 것을 두고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몇 푼의 돈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에서도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 건너가 공부를 하고 온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❷ (나)에서 아들은 치마 두 감의 가격을 듣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하지만, 어머니가 형수에게 치마를 양보하자 이내 넉넉하다며 옷감을 갖다 끊으라고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았다.

❸ (다)의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❺ (가)에서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 놓고 있을 때 옆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언제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였다.

정답의 근거

……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엘 건너가 공불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하여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 」: 고등 교육을 받은 아들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납득하지 못함

3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은 어머니가 아들의 벌이가 신통치 않은 것을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맏며느리의 치마를 같이 해 주는 것에 아들이 부담을 느끼는 듯하자 맏며느리의 치마만 해 주라고 양보하려는 것이다.

오답 노트 ❶ 어머니는 뭐 잡수시고 싶은 것이라도 있느냐는 아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아들을 생각해서 ㉠과 같이 선물을 사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❷ ㉡에서 아들이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하는 것은 치마 두 감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 자신의 처지에 부담이 되어 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❹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옷감을 끊으라며 돈을 내놓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아들이 어렵게 번 것을 알기에 ㉣과 같이 선뜻 받기를 망설이고 있다.

❺ ㉤은 어머니가 아들이 해 준 치마를 자랑하는 일이 자주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글을 팔아 돈을 버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 줄 만큼 돈을 버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나)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해 준 치마를 입고 일갓집에 가서 치마 자랑할 기회를 엿보다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아들 자랑을 한다고 하였다. 즉, ⓐ '치마'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소재이자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②

본문 068~06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구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종로 네거리로 향했어요. (○, ×)

  구보는 아무런 사무도 없이 종로 네거리로 향하였다.

배경·소재

- 구보는 홀로 남겨져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고 전 | 차에 뛰어올랐어요.

서술

- 이 글의 서술자는 구보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어요. (○, ×)
- 이 글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현장감(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문제

5 ③ **6** ③ **7** ⑤

학습 노트

- **여정:**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 **집약적:**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것

5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라)에서 구보는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는 사나이를 보고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보는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므로, 사나이의 얼굴에서 행복을 엿보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바)에서 구보는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손에 든 단장과 공책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고 느낀다.

❷ (마)에서 구보는 백화점에서 본 가족의 눈에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이 가정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❹ (바)의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로 보아 구보는 자신의 여정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향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❺ (바)에서 구보는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다.

6 배경·소재 **소재의 특징**

㉠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라는 점에서 구보로 하여금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고, ㉡은 갈 곳 없이 배회하는 구보와 달리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구보가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오답 노트 ❶ ㉠과 ㉡은 구보와 인연이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

❷ 구보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❹ (마)~(바)에서 구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❺ (마)~(바)에서 구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인물·사건 **인물의 특징** +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구보는 안전지대에서 자신의 두 손에 들린 단장과 공책을 내려다보며 거기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느끼므로, 자기 자리를 찾아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구보는 대낮에도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 '시력'을 저주하는데, 이는 〈보기〉에서 제시한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자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❷ ⓑ '총독부 병원 시대'에서 '총독부'는 과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❸, ❹ ⓒ '백화점'은 일제 강점기에 쏟아져 들어온 근대 문물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고, 그 안에 있는 ⓓ '승강기'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③

본문 070~07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대합실 사람들은 서로 말을 건네지 않고, 간혹 말을 건네더라도 열차 시각과 같은 이야기에 그쳤어요. (○, ×)

배경·소재

- 구보는 사람들이 오가는 기차역을 '도회의 항 | 구'라고 표현하며, 소설가라면 마땅히 그곳과 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술

- (사)에서 서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구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은 무엇인가요? (남을 / 가엾었다)

주제

- 이 글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관계의 단절을 드러내고 있어요. (○, ×)

문제

8 ① **9** ③ **10** ②

학습 노트

- **여로:** 여행하는 길. 또는 나그네가 가는 길

8 인물·사건 **내용 이해**

구보의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세도우씨병 환자의 좌우 좌석이 비어 있었다.

오답 노트 ❷ (아)에서 젊은 아낙네는 떨어뜨린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였다.

❸ (아)에서 구보는 중년의 시골 신사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럽게 떠올렸다.

❹ (사)에서 구보는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경성역으로 가서 자신의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서 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❺ (아)의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나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통해 알 수 있다.

▶▶ 정답의 근거

……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륭(澎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병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차가운 현대인들의 모습, 사람들 간의 단절과 비인간적 모습이 부각됨

9 서술 **서술상 특징**

[A]는 경성역 대합실에서 관찰한 노파와 중년의 시골 신사에 대해 구보가 짐작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A]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❷ [A]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❹ [A]에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그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❺ [A]에서 노파의 외모는 묘사했으나, 이를 통해 노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노파에 대한 연민의 태도가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중년의 시골 신사의 경우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이 글에서 도시를 배회하는 '산책자'는 경성역 대합실에 모여 있는 군중이 아니라 그들을 관찰하는 주인공 구보이다.

오답 노트 ❶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간 뒤 경성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다시 경성역을 떠난다. 이 글은 이러한 구보의 여로를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❸ 구보는 중년의 시골 신사가 늙고 쇠잔한 노파와 되도록 떨어져 앉으려 노력하는 모습에서 현대인들의 속물근성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긴다.

❹ 구보는 남대문을 나와 맥없이 앉아 있는 지게꾼들을 보고, 경성역 삼등 대합실에서 병에 걸린 40여 세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을 관찰한다. 이들은 구보의 눈에 비친 도시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❺ 주인공 구보는 소설가이다. 구보는 대합실에서 목격한, 현대의 각박한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그 내용을 기록하려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이처럼 세태에 관해 노트에 기록하려는 것은 현대의 풍속과 세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려는 것이므로, 〈보기〉에서 설명한 고현학의 기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이 작품의 표현 기법

고현학	일상생활의 풍속을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는 고현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 서울의 풍경과 세태를 묘사함
의식의 흐름	당대 서울의 여러 풍경을 관찰하면서 떠올린 구보의 생각들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구보의 무기력함과 고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④

본문 072~07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구보는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 / ✕)

배경·소재

- 이 글에서는 너도나도 황금을 좇던 1930년대의 세태를 '황금광 시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서술

- 이 글은 구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대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술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의식의 흐름 기법

문제

11 ① **12** ④ **13** ③ **14** ⑤

학습 노트

- **의식의 흐름**: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을, 사건의 순서나 인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어지는 대로 서술하는 방법

11 서술 **서술상 특징**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구보의 시선에서 그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구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구보가 서술자는 아니다.

오답 노트 ❷ 너도나도 황금을 좇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❸ 현재형 어미 '-ㄴ-/-는-'과 과거형 어미 '-았-/-었-'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❹ (자)에는 개찰구 앞의 두 명의 사나이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차)에는 우연히 만난 중학 시대의 동창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 또한 (자)에서 황금을 좇는 사람들과 그 세태를 묘사하여 1930년대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의 시대를 '황금광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❺ 사건 간에 특별한 인과 관계 없이 구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12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은 '해라'라는 반말의 말투가 차라리 덜 불쾌할 만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듣는 '자네'라는 말이 몹시 불쾌하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 노트 ❶ ㉠은 금광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여 소설 창작에 활용하고 싶은 구보의 마음에 대한 서술이다.

❷ ㉡은 굳이 벗이라고 한다면 벗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뜻으로, 우연히 만난 동창에게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구보의 심리를 드러내는 서술이다.

❸ ㉢은 마지못해 반가운 척하며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려는 구보의 심리를 드러내는 서술이다.

❺ ㉤은 차를 마시자는 호의를 거절할 만큼 용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구보의 성격을 드러내는 서술이다.

13 서술 **서술자의 시각**

ⓒ는 사나이의 말이 구보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힌 진술이다. 구보는 바로 다음 문단에 가서야 뒤따라오는 여성을 발견하므로, 이 시점의 구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는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자신의 시각에서 관찰하여 서술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작품 속 인물인 구보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오답 노트 ❶ ⓐ는 두 명의 사나이를 무직자라고 판단해 버리는 구보의 인식을 반영한 서술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❷ ⓑ는 황금을 찾아 나서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에 비해 진실할 수도 있다는 구보의 인식을 반영한 서술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❹ ⓓ는 구보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고 느낀 바에 대한 서술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❺ ⓔ는 칼피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구보의 인식을 반영한 서술이므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인물·사건 **인물의 생각**

구보는 순수해야 할 시인들마저 금광을 좇을 정도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진 때에, 돈만 있으면 천한 인물이라도 연애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노트 ❶ 중학 동창이 세상 물정에 어두운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❷ 구보가 순수한 열정을 바쳐야만 인생의 처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❸ 중학 동창이 황금광으로 나섰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❹ 구보는 중학 동창이 여전히 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독해 체크 본문 074쪽

❶ 관찰 ❷ 직업 ❸ 지식인 ❹ 병 ❺ 물질
❻ 소제목 ❼ 쉼표 ❽ 산책 ❾ 의식의 흐름

어휘 체크 본문 075쪽

1 ⑤ **2** ②

1 다의어의 의미

ⓐ의 '들어서기'는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 서기.'라는 뜻으로,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대문을 지나 마당 안으로 옮겨 선다는 ⑤의 '들어서며'이다.

오답 노트 ❶ '정부나 왕조, 기관 등이 처음으로 세워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❷ '아이가 뱃속에 생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❸ '어떤 상태나 시기가 시작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❹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속담 활용

'울며 겨자 먹기'는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구보는 속물적인 동창생과 같이 차를 마실 생각이 없지만, 그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억지로 차를 마시러 따라가는 상황이므로 ②는 속담 활용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이다.
❸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먼 곳에 사는 친족보다 좋다는 뜻으로, 자주 보는 사람이 정도 많이 들고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❹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❺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배경지식 '구보'의 캐릭터를 물려받은 작품

산책자로서의 '구보'가 지식인의 내면에 비친 1930년대 경성의 세태를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었기에, 이후의 작가들이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빌린 작품을 창작하였다. 최인훈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연작 소설을 통해 1970년대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냈고, 오규원은 「시인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시를 통해 시인이 생활인으로서 갖는 인식을 표현하였다.

실전 02

사평역 | 임철우

여러분은 기차나 지하철, 혹은 버스에 함께 탄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작품은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의 고단한 삶과 교감을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어요. 작품 속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정서를 지니고 있는지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성찰적, 회상적
주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애환
특징
-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에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설로 재구성함
- 중심인물 없이,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이력과 내면을 서정적으로 그려 냄
- 회상과 성찰의 구조를 지님

사평역 ① 본문 076~07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사람들이 난로가에 모여 기다리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완행열차
- 농부에게 제복을 입은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 ⊗)
  농부에게 제복을 입은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다.

배경·소재
- 이 글은 한겨울 시골 간이역 대 합 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서술
- '그녀들의 목소리가 대합실 사방 벽을 쨍쨍 울리며 튕겨 다닌다.'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시 각 화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

1 ⑤ **2** ② **3** ⑤ **4** ④

학습 노트
- **모티프**: 작품을 이루는 바탕이 되는 이야기나 제재. 다른 갈래의 작품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쓰기도 함

1 인물·사건 내용 이해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이 타려고 기다리는 열차는 연착 중인 완행열차이다. 사평역은 시골 간이역이므로 특급 열차는 서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가)에서 여자들은 불기를 쬘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한마디씩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였고, 덕분에 푹 가라앉아 있던 대합실이 부쩍 활기를 띠는 것 같다고 하였다.
❷ (가)에서 난로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어느덧 일곱으로 불어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열차를 기다리며 난로 주위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❸ (나)에서 역장은 난롯불에 몸을 녹이는 승객들을 위해 톱밥을 가득 채운 바께스를 들고 왔으며, 이에 농부가 역장에게 추위에 고생한다며 얼른 인사를 차렸다고 하였다.
❹ (다)에서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았다고 하였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

농부, 청년, 미친 여자, 중년 사내는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들인 반면, 역장은 이런 인물들에게 온기를 나눠 주며 이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인물이다.

오답노트 ❶ 농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읍내 병원에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인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❸ 청년은 대학생이었으나 학생 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한 처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❹ 미친 여자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❺ 중년 사내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인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인물이다.

3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 '특급 열차'가 스쳐 지나간 뒤 사람들은 대합실로 돌아와 한동안 모두들 입을 봉하고 있다. 저마다 실망한 기색일 뿐, 서로의 처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워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서술 **갈래의 전환**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막차를 기다리는 인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 글과 〈보기〉 어느 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보기〉의 화자는 작품 안에서 '나'로 등장하지만,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인 위치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제시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한다.

❷ 〈보기〉에서는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시하지만, 이 글에서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내면 심리까지 생생하게 제시한다.

❸ 〈보기〉와 달리 이 글의 인물들은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내용 전개에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인다.

❺ 〈보기〉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삶의 내력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5 서술 **서술상 특징**

이 글은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 모인 인물들의 삶의 이력과 내면을, 회상과 성찰의 방식을 통해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이 내용 전개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오답노트 ❶ 이 글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을 통해 인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❷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현재와 각 인물들의 과거 회상을 교차하며 서술하고 있다.

❹ 1970~8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가상의 공간인 사평역 대합실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

❺ '춘심(전형성을 지닌 이름)'을 제외하고는 '사내', '청년'과 같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알아 두기 작품의 서술상 특징

-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서술한다.
- 회상과 성찰의 구조를 보인다.
- 인물들이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인다.
- 원작 시 「사평역에서」의 시구와 정서, 이미지 등을 인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 1인칭 시점의 화자가 나타나는 원작 시와 달리,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6 인물·사건 **인물의 정서**

(라)에서 중년 사내는 허 씨를 대신하여 허 씨의 노모를 찾아갔지만, 노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도 마을을 떠나 소식이 영영 끊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중년 사내는 어머니의 죽음도 모른 채 감방 안에서 죽게 될 허 씨를 생각하며 연민을 느낀다.

오답노트 ❷, ❹ 중년 사내는 허 씨의 노모가 이미 죽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허탈해할 뿐, 허 씨를 원망하거나 허 씨에게 미안해하고 있지 않다.

❸, ❺ 중년 사내는 찾아갈 가족이 없는 허 씨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낄 뿐, 허 씨를 그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다.

7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바)에서 청년은 대학에서 제적당한 처지이지만,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가족들에게 차마 퇴학당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서울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따라서 집을 나선 청년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과 앞날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릴 뻔했을 것이다.

오답노트 ❶ 어머니가 청년을 배웅해 주면서 꾸깃꾸깃 때에 전 돈을 손에 쥐여 주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는 청년이 퇴학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❷ 청년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기는 하나, 청년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❹ 어머니와 동생들이 동구 밖까지 청년을 배웅해 주었는데, 청년은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떠나는 것을 속상해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과 희생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것이다.

❺ 청년이 과거에 집에 내려와 농사나 짓겠다고 했다가 노발대발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빈 적이 있기는 하나, 청년은 이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평역 ②

본문 078~07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중년 사내는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산골 마을을 찾아갔어요. (○, ⊗)
  중년 사내는 감방에서 만난 허 씨의 노모를 만나기 위해 산골 마을을 찾았다.
- 시선을 통해 각 인물의 삶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역장

서술

- 이 글은 인물의 회상을 통해 각자의 삶의 이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 (바)에서 사투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생동감과 현장감, 사실성을 높인다.

문제

5 ③ **6** ① **7** ③

학습 노트

- **무명의 호칭:** 등장인물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연령대나 성별 등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부르는 호칭

사평역 ③

본문 080~08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서울 여자는 사평댁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서로 다른 감정을 느껴요. (○, ×)
- 대학생은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 ×)

대학생은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배경·소재

- 서울 여자의 삶을 나타내는 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돈

서술

- (자)~(카)에서 인물들은 각자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

8 ④ 9 ⑤ 10 ④

학습 노트

- **안위:**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

8 서술 구절의 기능

㉠은 인물들의 삶이 고달픔을 짐작하게 하는 탄식의 말이다. 절정 부분에서는 ㉠의 말을 계기로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게 된다.

오답 노트 ❶ 사람들은 각자 생각할 뿐,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는다.

❷ 사람들이 서로 말꼬리를 잡고 다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❸ 사람들은 각자 생각할 뿐, 기다리던 열차를 다시 떠올리지 않는다.

❺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할 뿐, 대합실 안의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않는다.

▶ 정답의 근거

㉠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뭇이간디……."
(인물들의 삶이 고달픔을 짐작할 수 있는 탄식임 → 절정 부분에서 인물들이 각자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9 인물·사건 인물의 가치관

(카)의 대학생은 현실의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데 참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신념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고민하는 것이다.

오답 노트 ❶ 중년 사내는 산다는 일을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데, 벽돌담은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다. 따라서 중년 사내가 생각하는 삶은 세상과의 단절로 인한 고독함, 답답함, 막막함이 느껴진다.

❷, ❸ 서울 여자는 돈이라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는 손님들에게 "또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모습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사)를 통해 서울 여자가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인정 많고 따뜻한 인물임도 알 수 있다.

❹ (카)를 통해 대학생이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른 척하고 사는 삶을 '잠'이라고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 +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자)에서 '작은 산골 간이역'은 현재 중년 사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특급 열차가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 가 버리는 곳으로, 사회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소외된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은 산골 간이역'은 중년 사내가 가고 싶은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노트 ❶, ❷, ❸ 중년 사내의 삶을 고려할 때 '벽돌담'은 교도소를 빗댄 표현으로,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며 '시간마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공간이다.

❺ (자)에서 중년 사내는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사평역 ④

본문 082~08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청년이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을 눈여겨보고 새삼 놀란 까닭은 무엇인가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과 평화스러움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의 모든 승객들은 반가워하며 열차에 올라탔어요. (○, ×)

'미친 여자'는 기차를 타지 않고 대합실에 남아 있다.

배경·소재

-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애정을 상징하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톱밥
-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내리는 날씨를 배경으로 삼아 원작 시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문제

11 ② 12 ② 13 ④

학습 노트

- **공간적 배경:**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소. 단순한 무대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처지나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서술의 초점:** 서술자가 어느 인물이나 상황에 시선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하는지를 이르는 말. 초점이 옮겨 가면 이야기의 중심도 함께 옮겨 감

11 배경·소재 배경의 의미 + 주제 작품의 주제

완행열차만 가끔 서는, 가상의 시골 간이역인 '사평역'에서 사람들은 열차를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회상한다. 하지만 현실의 고단한 삶을 잊을 수 있는 완전한 세계는 사평역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❹ 사평역은 시골 간이역이므로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외진 공간이며,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❸, ❺ 사평역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잠시 쉬어 가는 공간이자,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다.

12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 '야간 완행열차'는 인물들이 돌아갈 일상으로 데려다주는 소재이다. 농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갈 읍내 병원으로, 청년은 서울로, 서울 여자는 자신의 음식점으로, 저마다 갈 곳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열차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인물들의 방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노트 ❶ ㉠ '야간 완행열차'는 쉬어야 할 밤에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역마다 정차하며 간다는 점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❸ ㉠ '야간 완행열차'는 열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므로, 인물들이 열차에 오르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 갈 것임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❹ ㉠ '야간 완행열차'가 출발한 뒤 서술의 초점이 사평역 대합실에 남아 있는 역장과 미친 여자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❺ 이 글은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의 이야기이므로, ㉠ '야간 완행열차'가 두 시간 연착하게 설정함으로써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아 두기 '사평역'의 의미

사평역	완행열차만 가끔 서는, 가상의 시골 간이역
의미	•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외진 공간 •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잠시 쉬어 가는 공간 •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공간 • 작품 속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간

13 종합 종합적 감상

ⓒ '역장'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톱밥을 가져다주고, 홀로 남은 ⓓ를 위해 난로를 끄지 않고 톱밥을 더 부어 주려 하는 인물이다. 난로를 매개로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쪽에 가까우므로, 소외된 존재로 보기 어렵다.

오답 노트 ❶, ❷ ⓐ '청년'은 난로에 톱밥 한 줌을 넣으며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고 있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 '중년 사내' 역시 톱밥 한 줌을 난로에 뿌리며 허 씨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도 같은 확실하지 않은 얼굴을 떠올리고 있다.

❸ ⓐ '청년'이 난로에 톱밥을 넣는 것을 보고 ⓑ '중년 사내'가 ⓐ '청년'을 따라 난로에 톱밥을 넣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❺ ⓓ '미친 여자'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떠난 후 난로 곁에 다가오는 것을 통해 그녀가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외된 존재이며 열차를 타고 복귀할 일상이 없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알아 두기 '눈'과 '난로'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눈	• 낭만적이고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함 • 막차를 연착하게 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함
난로	• 인물들이 자신의 과거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회상의 매개물임 •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함 • 대합실 밖의 추위와 대비되어 따뜻한 열기를 제공하는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함

독해 체크 본문 084쪽

❶ 난로 ❷ 역장 ❸ 소외 ❹ 간이역 ❺ 성찰
❻ 사평역 ❼ 산업화 ❽ 회상

어휘 체크 본문 085쪽

1 ④
2 (1) 아주 익숙하여 버릇이 된 (2) 몹시 가난하던
3 ①

1 한자 성어의 의미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서울 여자는 자신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평댁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병든 사평댁의 딱한 사정을 알고 지니고 있던 돈까지 쥐여 주고 돌아온 인물이다. 즉, 서울 여자는 은혜를 입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인물로 볼 수 없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역장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톱밥을 가져다주고, 홀로 남은 미친 여자를 위해 난로를 끄지 않고 톱밥을 더 부어 주려 하므로, 역장의 태도를 나타낸 한자 성어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르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적절하다.

❷ 청년은 자신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가족에게 퇴학당한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찾아갈 사람도 없는 도시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처지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적절하다.

❸ 중년 사내는 고향이 이북이지만 피란 통에 가족과 헤어져 떠돌며 살아왔고, 출소한 뒤 찾아간 허 씨의 노모마저 이미 세상을 떠나 돌아갈 곳도 찾아갈 사람도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중년 사내의 처지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뜻하는 '사고무친(四顧無親)'은 적절하다.

❺ 중년 사내는 감방 동료였던 허 씨를 대신해 그의 노모를 찾아갔다가, 찾아갈 곳 하나 없어진 두 사람의 처지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중년 사내와 허 씨의 처지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은 적절하다.

2 관용 표현의 의미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 경우, 그 단어 구성을 이르는 말이다. '입에 붙은'은 '아주 익숙하여 버릇이 된'을 의미하고 '가랑이를 찢어 내던'은 '몹시 가난하던'을 의미한다.

3 바꿔 쓰기

'으레'는 '틀림없이 언제나.'를 뜻하는 말이다. 완행열차가 늘 지각한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어쩌다 가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전 03

광장 | 최인훈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에 임의로 그어진 38선이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이후 포로의 신분으로 남한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사건 전개 과정에 나타난 남북한 사회의 이념과 현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와 갈등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해 볼까요?

갈래 장편 소설, 관념 소설, 분단 소설
성격 관념적, 철학적, 회고적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특징
- 상징적인 소재와 배경이 사용됨
- 남북한의 이념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
- 주인공이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됨

광장 ①

본문 086~08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남한 측 설득자는 명준을 설득하면서 무엇이 되어 달라고 했나요?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

서술
- 이 글은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과거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 ⊗)
  이 글은 '말한다', '쳐다본다' 등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 (나)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을 때, 남한 측 설득자와의 대화는 명준의 [상][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

1 ① **2** ④ **3** ② **4** ③

학습 노트

- **장면:** 같은 인물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이는 사건의 광경
- **단호함:** 결심이나 태도, 입장 등이 과단성 있고 엄격함
- **초연함:**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함

1 서술 **서술상 특징**

(가)와 (나)에서는 북한 측과 남한 측의 설득자와 명준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❷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시점이다. 그러나 이 글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해 있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❸ (가)와 (나)에서는 인물이 겪은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인물의 대화 장면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❹ (가)와 (나)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❺ (가)와 (나) 사이에 한 번 장면의 전환이 나타나 있을 뿐, 잦은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은 찾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가)에서 북한 측 설득자는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한으로 돌아올 것을 권하고 있을 뿐, 남한을 선택했을 때 겪게 될 위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❶, ❸ 참전 용사는 연금 법령을 통해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명예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❷ 중립국도 자본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❺ 계속해서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명준이 혹시 북한으로 갔을 때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 판단한 북한 측 설득자는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한다며 명준을 안심시키고 있다.

3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북한 측 장교가 명준에게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명준이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길게 이야기하거나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거운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노트 ❶ 북한 측 장교는 명준을 회유하기 위해 부드럽게 웃으며 긍정적 인상을 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❸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미는 것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❹ 명준이 계속 "중립국."만 외치자 북한 측 대표자는 서로 상의를 하는데, 이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❺ 적극적으로 명준을 설득하던 장교가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는 것에서 자신의 설득이 실패하자 명준에게 적대적인 태도로 돌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가)와 (나)에서 명준은 북한 측과 남한 측 설득자의 어떤 말에도 '중립국'만을 말하며 자신의 결심이 단호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명준은 북한과 남한에 환멸을 느껴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상을 추구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❷ 명준은 북한과 남한의 삶을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므로, 현실에 순응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❹ 북한과 남한에 환멸을 느껴 중립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세상일에 초연하다기보다는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❺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인데, 명준의 '중립국' 선택은 이와는 무관하다.

광장 ②

본문 088~08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명준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긍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
  명준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좇던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배경·소재
- 이 글에서 '마지막 돛대'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의 희망

주제
- 명준이 닿길 바라는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은 [중][립][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문제

5 ③ **6** ① **7** ④

학습 노트

- **몽환적:** 현실이 아닌 꿈이나 환상과 같은. 또는 그런 것
- **매개하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주는

5 서술 **서술상 특징**

(다)~(라)는 명준의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명준이 남한과 북한, 6·25 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판단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명준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꿈의 세계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❷ 서술자는 명준의 심리를 모두 알고 전달하는 전지적 서술자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❹ (다)~(라)에서는 명준의 심리가 제시되었을 뿐, 특정한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❺ 명준은 허황된 이념을 좇았던 자신의 과거와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통해 명준이 겪는 인식의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바다'는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하고, '한 잔의 물'은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의 '잘못'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상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현실을 망각한 것을 가리킨다.

7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 주제 **작품의 주제**

명준은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대립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일상적 삶을 살고자 중립국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명준의 중립국행이 이념 대립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은 명준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명부에 이름을 적고 나선 후에 보인 반응이다. '마음껏 웃음을 터뜨'린 것에는 이념적 선택을 강요받았던 억압적 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명준의 후련한 심정이 담겨 있다.

❷ 마술사를 언급한 부분은 '허황하고', '철없는', '잘못', '환상', '마술' 등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매우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술사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마술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적절하다.

❸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헛된 이념을 좇는 현실의 모순에 대해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들'에 대해 명준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❺ ㉤은 무엇인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로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광장 ③

➔ 본문 090~09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명준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중립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있다.
- 명준은 유 토 피 아의 꿈을 꾸고 월북했어요.

배경·소재

- 명준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펼쳐진) 부채

서술

- (바)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준은 '두 마리 새'를 발견하고 인식의 전환을 보이고 있어요. (◯ ×)

문제

8 ② **9** ② **10** ④

학습 노트

- **입체적 성격:** 고정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성격
- **요약적 진술:** 사건의 중요 내용(핵심)만 간추려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 전개를 빠르게 하고 독자의 이해를 도움
- **표상되어:**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하던 것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

8 서술 **서술상 특징**

명준은 중립국행 배를 타고 가면서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한다. 대학생이었던 명준의 삶, 그 이후 월북한 일과 북한에서의 삶, 은혜와 함께했던 일 등을 회상하는 명준의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져 현재는 부채의 사북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물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면서,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❸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1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❹ 바다 위의 배가 현재 명준이 있는 공간이다. 회상을 통해 제시된 내용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서술하고 있지 않다.

❺ 과거의 일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약적 진술로 인물 간의 갈등 해소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9 서술 **서술상 특징 +**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에서는 명준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준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명준이 선장의 뒤를 쫓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❸ 명준이 복도를 거쳐 선장실로 올라가는 행동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❹ 복도에서 선장실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명준이 선장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❺ 명준이 복도에서 선장실로 이동하고 있을 뿐, 복도와 선장실을 대비하여 묘사하고 있지 않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부채의 가장 좁은 자리, 즉 사북 자리는 명준이 중립국행 배에 탄 상황을 의미한다. 사북 자리는 삶의 광장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좁아

진 것을 의미하므로, 명준이 느끼는 삶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삶의 위기감이 해소되기 시작한 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는 것을 통해 ⓐ가 부채의 넓은 테두리 부분으로 표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명준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보고 그러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이때 명준은 정치를 경멸했다고 하였다.

❷ ⓑ는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로 표상되어 ⓐ 시절보다 삶의 광장이 좁아진 때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명준은 이상향에 대한 꿈을 지녔으며 은혜와의 만남을 하숙집에서 갖고는 했다.

❸ ⓒ는 ⓑ를 표상하는 부분보다 조금 더 부채의 안쪽 부채꼴로, 사북 자리의 바로 위쪽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때 명준은 은혜를 전장에서 만나 동굴에서 은혜와 시간을 보내고는 했다.

❺ ⓐ에서 ⓑ를 거쳐 ⓒ로 전개된 삶의 과정은 명준의 삶의 광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알아 두기 '부채'의 각 부분과 명준의 삶의 과정

부채의 각 부분		명준의 삶
끝 넓은 테두리		남한에서의 대학 시절
안쪽 좀 더 좁은 너비	→	월북 이후의 삶
안쪽 부채꼴		전쟁 중 은혜와의 재회
사북 자리		중립국행 배를 탄 상황

광장 ④

본문 092~09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명준이 바다에 투신했음을 의미한다.

배경·소재

- '큰 새와 꼬마 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은 은혜와 명준의 딸

서술

- (아)의 밤 중과 (자)의 이 튿 날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표지예요.
- (아)에서 서술의 초점을 바꾼 것은 명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 (◎ ×)

문제

11 ② 12 ③ 13 ⑤ 14 ③

11 인물·사건 사건의 의미

명준의 죽음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허상,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은혜와 이루지 못한 사랑의 성취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무관심은 명준의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

12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막바지까지 몰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뒤를 돌아본 명준은 '푸른 광장'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3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 '푸른 광장'은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으로, 이념이 배제된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는 참된 광장을 의미한다. 이는 곧 명준이 찾던 이상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준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을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노트 ❶, ❷, ❸ '푸른 광장'은 명준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공간인 광장을 명준은 남한과 북한에서 찾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❹ '푸른 광장'은 은혜와 자신의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광장으로, 명준이 투신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14 주제 작품의 주제 +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광장은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밀실은 개인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명준이 바라는 이상 사회, 즉 '활발한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이 있는 사회는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룬 사회이다. 따라서 명준이 광장과 밀실 이외의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보기〉의 '타락과 방종에 가까운 개인의 자유만 있는 밀실', '개인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밀실'을 참고할 때, '밀실'은 자유로운 개인적 삶이 있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❷ 〈보기〉의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광장', '모든 사회적 결정이 공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강요되는 광장'을 참고할 때, '광장'은 공동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통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❹ 〈보기〉의 '명준은 활발한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상 사회를 꿈꾸었'다는 내용을 통해 명준은 광장과 밀실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곳을 바람직한 삶의 공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❺ 북한은 광장만 있고 밀실은 없는데, 여기서 광장도 '모든 사회적 결정이 공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강요되는 광장'으로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남한은 밀실만 있고 광장은 없는데, 여기서 밀실도 '타락과 방종에 가까운 개인의 자유만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밀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준은 북한과 남한 사회 모두 진정한 의미의 광장과 밀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광장'과 '밀실'의 의미



독해 체크 본문 094쪽

❶ 중립국 ❷ 바다 ❸ 자유 ❹ 공존 ❺ 현실
❻ 부채 ❼ 광장 ❽ 이념

어휘 체크 본문 095쪽

1 ④ **2** ⑤ **3** ①

1 문맥적 의미

'재건하다'는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등을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다.

오답 노트 ❶ '수준이나 정도 등을 끌어올리다.'라는 뜻의 어휘는 '제고하다'이다.

❷ '역량이나 능력 등을 모아서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의 어휘는 '재기하다'이다.

❸ '어떤 일이나 문제 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의 어휘는 '재고하다'이다.

❺ '미혹한 세계에서 생사만을 되풀이하는 중생을 건져 내어 생사 없는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다.'라는 뜻의 어휘는 '제도하다'이다.

2 속담의 의미

남한 측 설득자는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조국을 등지는 것이, 작은 종기 때문에 몸 전체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작은 것을 해결하려다 큰 것을 잃는 상황을 뜻하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와 의미가 통한다.

오답 노트 ❶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❷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❸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❹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사전적 의미

'개선'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옴.'이라는 뜻이다. '전쟁을 시작함.'을 뜻하는 어휘는 '개전'이다.

실전 04

이생규장전 | 김시습

여러분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을 꿈꿔 본 적이 있나요? 고전 소설의 특징을 살펴보며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담은 글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한문 소설, 전기 소설, 명혼(冥婚) 소설
성격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특징 •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죽은 사람과의 사랑을 다루는 전기적 요소가 두드러짐

이생규장전 ① 본문 096~09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이생과 최 여인은 사랑에 빠지지만, 이생이 지방으로 보내지자 최 여인은 병이 났어요. (◯, ×)

배경·소재
•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인가요? 송도(우리나라)
•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혼인과 관련된 당대의 관습은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아니라 두 집안의 부모가 매자를 통해 혼인 의사를 주고받는다.

서술
• 이 글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 ×)

문제

1 ⑤ **2** ④ **3** ③

학습 노트

• **궁색한:** 아주 가난한

1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가)에서 최 여인은 부모가 자신의 간곡한 청을 거절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며, 다른 가문에는 절대로 시집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청을 거절해도 이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최 여인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과 이생 사이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밝혔다.

❷ 최 여인은 절대로 다른 가문에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❸ 최 여인은 『시경』과 『역경』 등 옛 문헌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생각한 바를 전하였다.

❹ 최 여인의 부모는 최 여인의 마음을 알고 달래 주어 그녀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해 주었다.

2 서술 서술상 특징

(나)에서는 최 여인의 부모가 보낸 매자가 두 집안 사이를 오가며 청혼과 거절의 말을 전하고, 그 과정이 세 차례 반복되면서 혼인이 성사되기까지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3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와 ⓓ는 최 여인의 아버지가 이생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말로, 최 여인의 아버지는 상대 가문의 두 차례의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고 거듭 혼인을 청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에서는 혼인의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배필을 서둘러 구할 필요가 없다며 혼인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보였다.

❷ ⓑ에서는 집안 사정을 들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을 칭찬함과 동시에 최 여인도 그에 못지않다는 점을 내세워 혼인을 재차 청하였다.

❹ ⓒ에서는 상대의 궁색한 형편을 문제 삼아 혼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궁색한 형편을 이유로 혼인을 거절하였다.

❺ ⓓ에서는 ⓒ로 인한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절차와 의장을 자신의 집안에서 처리할 것을 언급하며 혼인을 재차 청하였다.

이생규장전 ②

본문 098~09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이생은 최 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지만 최 여인의 환신을 반가워할 정도로 최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

배경·소재

- 이 글은 홍 건 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주제

- 이 글의 제목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마)에서 제목의 의미가 제시된 구절을 찾아 쓰세요.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 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문제

4 ② **5** ① **6** ③ **7** ⑤

학습노트

- **전기적:**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4 서술 **서술상 특징** + 배경·소재 **작품의 배경**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노트 ❶ 이 글은 홍건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최 여인이 죽음을 맞는 사건이 전개되어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❸ (라)에서 이생은 아내의 집에 찾아가는데 이곳에서 죽은 최 여인의 환신과 만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❹ (마)의 최 여인의 말에서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서로 사랑하며 지냈던 행복한 시절, 최 여인이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일, 이승에 되돌아온 이유 등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❺ 이 글은 귀신과 사람의 사랑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 즉,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흥미를 더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5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 어휘 **한자 성어의 의미**

㉠에서 이생은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이 꿈만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노트 ❷ '인과응보(因果應報)'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을 뜻한다.

❸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❹ '결초보은(結草報恩)'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❺ '진퇴양난(進退兩難)'은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어려움이라는 뜻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6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는 도적에게 맞서다 처참한 죽음을 당한 최 여인의 상황을 드러낸 부분으로, 이생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노트 ❶ ⓐ에는 이생과 함께 백 년 동안 사이좋게 살아가고 싶었던 최 여인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❷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의 횡액에 해당하므로, 인물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❹ ⓓ의 '짝 잃은 새'는 최 여인 자신을 빗댄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사랑을 잃은 최 여인의 슬픔을 알 수 있다.

❺ ⓔ에서 최 여인은 홍건적에게 정조를 잃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생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해 한이 맺혔음을 토로하고 있다.

7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 배경·소재 **작품의 배경**

최 여인과 이생이 사랑에 빠진 것은 부모님이 정해 준 사람과 결혼하는 당시의 유교 문화 즉, 가부장적 질서를 벗어나 자유연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노트 ❶ 홍건적의 난으로 죽은 최 여인이 환신하여 이생과 재결합하는 것에서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도교 사상이 나타난다.

❷, ❹ 여자가 어릴 때부터 규중의 법도를 익히는 것이나 정절을 중시하는 것은 당시의 유교적 관습과 사상을 보여 준다.

❸ '삼세'는 불교의 '전세, 현세, 내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세의 인연을 언급한 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보여 준다.

이생규장전 ③

본문 100~10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최 여인은 가산을 잃지 않고 산골짜기에 묻어 두었어요. (◯×)

배경·소재

- 죽은 부모님의 해골을 거두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에서 당시 사람들이 효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어요.

서술

- (아)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구절을 찾아 쓰세요.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주제

- (사)에서 드러나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문제

8 ③ **9** ① **10** ⑤ **11** ⑤

8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이생은 출세가 좌절되어서 속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최 여인의 환신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두문불출하는 삶을 택한 것이다.

오답 노트 ❶ (바)에서 이생은 죽은 최 여인의 환신에게 기쁨과 고마움을 드러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❷ (사)에서 이생은 두문불출하며 늘 최 여인과 함께 시구를 지어 주고받으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아)에서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최 여인이 이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몇 해 동안 함께 세월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❹ (아)에서 최 여인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 앞에서 다시 이별해야 함을 슬퍼하고 있다.

❺ (아)에서 최 여인이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는데 다시 슬픈 이별이 찾아왔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알아 두기 **등장인물의 특성**

이생	• 시문에 능하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선비 • 사별한 최 여인과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임
최 여인	• 이생과의 신의와 절개를 지키는 양가의 규수 • 이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임

9 서술 **서술상 특징 +** 주제 **작품의 주제**

이생이 부모의 유골을 거두어 합장하고 제사를 지낸 사건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❷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나타나 이생과 부부의 연을 이어 가는 부분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므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❸, ❹, ❺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면 작품 전체에 신비한 분위기를 줄 수 있고, 인물이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극적으로 드러내어 부각할 수 있다.

알아 두기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전기 소설의 특징**

전기 소설의 특징

-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한 일을 다룬 소설을 말함
-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거나, 현실 속 인물들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함

↓

「이생규장전」의 전기적 요소

죽은 최 여인이 환신으로 이승에 되돌아와 이생과 함께 부부의 연을 이어 감

10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최 여인은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에 천제가 자신을 환신시킨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최 여인이 전생의 죄악을 갚기 위해 이승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오답 노트 ❶, ❸ [A]는 슬픈 이별이 닥쳐왔다는 최 여인의 말에 이생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물은 것에 대한 대답으로,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과 환신이 잠시 동안만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❷ 최 여인은 천제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기에 자신을 환신시켜 이생을 만나 시름을 풀게 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❹ 최 여인은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1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사)에서 최 여인은 이생과 즐겁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삼신산 같은 수명으로 백세 영화를 누리면서 원앙처럼 한평생을 보내겠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묏버들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와 떨어져 있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❷ 기울어 가는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조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❸ 임과 이별하고 오면서 느낀 슬픔을 냇물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조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❹ 임과의 이별로 인한 비통함을 노래한 시가이므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생규장전 ④

본문 102~10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이생은 작별을 고하는 최 여인에게 함께 황 천 으로 갈 것을 청했어요.

배경·소재

- (자)에서 이생과 최 여인의 이별을 의미하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깨진 거울

서술

- 이 글은 마지막에 이야기 밖 사람들의 반응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 ×)

문제

12 ⑤ **13** ② **14** ① **15** ④

***학습* 노트**

- **애상적**: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12 주제 **작가의 관점**

죽은 최 여인의 환신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실려 있으니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라진다.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승에 잠시 머물 수는 있으나 결국 저승으로 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생사관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최 여인의 말에서 이승에서의 시간이 다하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저승으로 가려면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❷ 죽은 최 여인의 환신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죽음 이후 곧장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사라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❸ 이 글에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❹ 최 여인의 말에서 죽으면 결국 저승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서술 **서술상 특징**

(자)는 이별의 상황과 그로 인한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차)에서 노래를 부르던 최 여인은 눈물에 목이 메고, 이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고 하였다. 즉 (자)의 노래는 인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없다.

오답노트 ❶, ❺ (자)의 노래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이별을 앞둔 최 여인의 슬픔을 절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❸, ❹ 1연에서는 앞서 일어났던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 주며, 2연에서는 최 여인과 이생이 이별할 것임을 암시한다.

14 인물·사건 **사건의 전개 양상** + 어휘 **한자 성어의 의미**

ⓐ에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은 순환되는 것임을 이르는 말인 '흥진비래(興盡悲來)'가, ⓑ에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무상함을 나타내는 말인 '회자정리(會者定離)'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노트 ❷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므로,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지 않다.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을 이르는 말이므로,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❸ '회자정리(會者定離)'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이므로,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다. 하지만 '일편단심(一片丹心)'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❹ '일편단심(一片丹心)'은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지 않다. '환골탈태(換骨奪胎)'는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❺ '흥진비래(興盡悲來)'는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이므로, 이생과 최 여인의 행복이 파국을 맞이하는 ⓐ에 적절하다. 하지만, '설상가상(雪上加霜)'은 최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는 ⓑ에 적절하지 않다.

15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에서 최 여인은 이생에게 부모의 장례가 아니라 자신의 장례를 지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이생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 준 최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❷ 이생은 부모의 장사를 스스로 지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❸ 최 여인은 저승의 법을 어기면 이생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이승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❺ 이생이 아내가 떠난 후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것에서 최 여인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음을 알 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104쪽

❶ 홍건적 ❷ 환신 ❸ 재회 ❹ 비현실적 ❺ 정서
❻ 사건 ❼ 비극적 ❽ 저승

어휘 체크 본문 105쪽

1 ⑤ **2** ② **3** ③

1 **한자 성어의 의미**

〈보기〉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흩어져 달아난 상황이므로, 이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을 뜻하는 '풍비박산(風飛雹散)'이 적절하다.

오답노트 ❶ '권토중래(捲土重來)'는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이다.

❷ '순망치한(脣亡齒寒)'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❸ '와신상담(臥薪嘗膽)'은 '불편한 섶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❹ '천고마비(天高馬肥)'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아 높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르는 말.'이다.

2 **바꿔 쓰기**

'면한'은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게 된.'이라는 뜻이다.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한.'이라는 뜻의 '피한'이다.

3 **사전적 의미**

'횡액'은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이라는 뜻이다. '뜻밖에 재물을 얻음. 또는 그 재물.'을 뜻하는 어휘는 '횡재'이다.

배경지식 「이생규장전」이 실린 『금오신화』

조선 전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집으로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재자가인적(才子佳人的) 인물이고, 한문 문어체로 사물을 극히 미화시켜 표현했으며, 초현실적인 요소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전기 소설(傳奇小說)의 일반적인 성격에 해당한다. 또한 인간성을 긍정한 점, 현실 속에서 제도나 인습, 인간의 운명 등과 대결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점도 특징적이다.

실전 05 **흥부전** | 작자 미상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본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이 작품에서 흥부는 다친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고, 그 보답으로 뜻밖의 복을 받게 돼요. 반면 놀부는 흥부가 받은 복을 따라 하려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되지요. 인물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판소리계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교훈적
주제 • 표면적: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 이면적: 빈부 간의 갈등
특징 • 과장된 표현, 익살스러운 표현 등으로 해학성을 드러냄
• 장면의 확대 등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보임

흥부전 ①

본문 106~10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흥부는 다친 제비를 보고 무자비한 세상을 탓하고 있어요. (○, ⊗)
흥부는 다친 제비를 보고 궁벽한 살림의 자신을 탓하고 있다.

배경·소재
• 구 렁 이의 등장은 이후 이어질 제비의 보은담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해요.

서술
• 이 글에는 서술자가 직접 생각을 밝혀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문장이 쓰였어요. (◎×)
• 이 글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린 부분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은 무엇인가요? (구만 / 보았다)

문제

1 ③ 2 ⑤ 3 ⑤ 4 ③

학습 노트

•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대상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고전 소설에서 나타남

1 인물·사건 **인물의 성격**

흥부는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하고 끝까지 돌본다. 또한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제비의 처지를 더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약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흥부는 사회 구조에 대해 문제 삼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❷ 흥부가 제비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비를 돌본 것은 아니다.
❹ 흥부가 가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❺ 앞부분 줄거리에서 흥부가 쌀을 구하거나 매품팔이를 하려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가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서술 **서술상 특징**

이 글은 전지적 서술자가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흥부의 말이 직접 제시되며 '반갑다', '불쌍하다', '섭섭하다' 등에서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❷, ❹ (다)에서 '아장아장', '한들한들', '실근실근'과 같은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제비의 행동을 리듬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❸ (라)에서 시간이 지나 제비가 강남으로 가는 계절이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 '구렁이'는 제비를 위협하며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고, ㉡ '제비'는 흥부에게 치료를 받으며 이후 보은담으로 이어지는 사건 전개의 중심 소재가 된다.

오답 노트 ❶ ㉡ '제비'는 ㉠ '구렁이' 때문에 다치게 되고, 흥부에게 치료를 받은 후 은혜를 갚는다. 이와 같이 ㉠과 ㉡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연성을 강조하는 소재로 보기 어렵다.
❷, ❸ ㉠ '구렁이'는 흥부와 대립하는 존재이고, ㉡ '제비'는 흥부와 정답게 지내는 존재이다. 따라서 ㉡은 ㉠과 달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❹ 흥부의 현실적 어려움은 가난으로, ㉠ '구렁이'는 가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 '제비'와 흥부의 정신적 성장은 관련이 없다.

4 서술 **서술상 특징**

ⓒ '그것이 흥부 은혜를 갚을 제비인데 죽을 리가 없었다.'는 서술자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이후 제비가 흥부의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흥부전 ②

본문 108~10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제비는 강남에 갔다가 우연히 다시 흥부 집을 찾아왔어요. (○, ⊗)
보답을 위해 보은표 박씨를 물어온 것을 보면 제비가 흥부를 일부러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 흥부 부부는 박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박씨를 심었어요. (○, ⊗)
흥부 부부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박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제비가 기특하여 박씨를 심었다.

배경·소재
• 박씨에 새겨진 '보 은'이라는 글자는 지명을 뜻하면서 동시에 '은혜를 갚음.'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서술
• 이 글은 과 장된 표현으로 비현실적인 상황을 강조하여 박 의 비범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문제

5 ⑤ 6 ③ 7 ⑤ 8 ⑤

학습 노트

• **개연성**: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산문 문학에서 중시되며 개연성이 부족한 경우 우연성이 드러남
• **신의**: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익살스럽게**: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데가 있게

5 인물·사건 **내용 이해**

흥부는 제비와 다시 만나 반가워하기만 할 뿐, 제비가 다시 떠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바)에서 흥부는 제비가 물고 온 보은표 박씨를 보고 '이렇게 물고 온 게 기특하'다고 하였다.

❷ (마)에서 흥부는 '먼 길 무사히 갔는지 걱정을 놓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❸ (바)에서 흥부 내외는 뒤뜰 햇볕 잘 드는 곳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거름을 놓아 박씨를 단단히 심었다.

❹ (마)에서 흥부는 제비 다리에 부러진 자취가 완연한 것을 보고 자신이 치료해 준 제비임을 알아차렸다.

6 서술 **전개 방식**

[A]에서는 흥부 부부가 씨앗의 정체를 오이씨, 강낭콩 등으로 추측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A]에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배열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A]에 부부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❹ [A]에서는 씨앗의 정체를 추측하고 있을 뿐, 사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❺ [A]에 부부간의 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대화를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7 배경·소재 **소재의 기능**

㉠ '박씨'는 이후 박을 타는 사건으로 이어지며 박을 통해 제비의 보은이 계속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오답 노트 ❶ 흥부 부부는 제비가 기특하여 박씨를 심었을 뿐, 박씨를 심으며 희망을 품고 있지는 않다.

❷, ❸ 박씨는 흥부의 가난한 생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거나 사실적으로 보여 주지 않는다.

❹ 흥부는 박씨를 받기 위해 제비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다.

8 종합 **종합적 감상**

ⓔ는 서술자가 사건의 의미를 덧붙이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지만, 흥부가 박의 덕을 보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박넝쿨이 자라 흥부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며, 앞으로 흥부가 박의 덕을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에서는 '간사하여 한번 가면 잊'는 사람들의 마음과 대비하여 제비의 신의를 높이 사는 흥부의 태도가 드러난다.

❷ ⓑ에서는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하며 넘노는 제비의 행동을 제시하여 박씨의 존재를 흥부에게 알리고자 하는 제비의 모습이 드러난다.

❸ ⓒ에서는 '보은, 옥천, 연산' 쪽으로 돌아서 왔다고 생각하며 '보은'을 지명으로 이해하는 흥부의 순박한 모습이 드러난다.

❹ ⓓ에서는 박넝쿨이 밧줄처럼 곧게 뻗었다는 비유와 잎사귀가 삿갓만 하다는 과장을 활용하여 박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양상으로 자라나고 있음이 강조된다.

흥부전 ③

본문 110~11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동자들이 흥부를 찾아온 까닭을 글에서 찾아 5어절로 써 보아요.
  흥부씨 높은 덕이 날짐승에까지 미쳤으니

배경·소재

- 이 글은 박에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 환상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서술

- (자)에서는 궤에서 쌀과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장면을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주제

- 이 글에서는 흥부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 구체적인 물질적 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

문제

9 ④ **10** ⑤ **11** ⑤

학습 노트

- **보은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대상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 까치가 머리로 종을 쳐 자신을 구하여 준 선비의 목숨을 살리는 이야기 등이 있음

9 서술 **서술상 특징**

이 글에서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흥부와 아내, 동자의 행동과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❷ 이 글은 이야기 내부가 아닌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서술하고 있다.

❸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것은 맞으나, 인물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❺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것은 맞으나,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교차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0 인물·사건 **인물의 태도** + 서술 **말하기 방식**

[A]에서 흥부는 "옛날 초나라 시절에 신선이 유자 속에서 바둑을 두었단 말은 들었다"와 같이 과거의 사례를 언급한 뒤, 박에서 동자가 나온 현재의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 정답의 근거

"옛날 초나라 시절에 신선이 유자 속에서 바둑을 두었단 말은 들었어도 (고사를 언급함) 우리 조선 땅에서 박통 속에 동자 들었단 말은 들어본 적 (현재의 상황에 놀라움을 나타냄) 이 없는데? 그런데 내 이름은 어찌 알며, 내가 풀밭에 누워도 진드기 한 마리 붙을 데 없는 사람인데 무엇하러 찾아왔을까?"

11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자)에서 흥부는 궤에서 돈과 쌀이 끊임없이 나오자, 이를 보고 기뻐하며 돈과 쌀이 꾸역꾸역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선행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은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보기〉에서 보은담을 통해 선행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주체는 독자이다.

오답 노트 ❶, ❷ 박에서 푸른 옷 입은 동자 한 쌍이 걸어 나온 것은 비현실적 요소로,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을 통해 보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흥부가 이러한 동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은 흥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❸ 동자들의 말을 통해 흥부가 날짐승인 제비에게 베푼 선행이 보답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❹ 끊임없이 나오는 쌀과 돈이 든 궤를 얻음으로써 흥부 가족의 가난이 해결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흥부전 ④

본문 112~11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이 글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 흉내 낸 동물은 무엇인가요? 구렁이

배경·소재

• 놀부가 금줄을 치고 부정을 금하는 것은 제비에게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 줘요. (○, ⊗)

놀부는 제비에게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을 받고 싶어 과장하여 제비를 대하고 있다.

서술

• '그 제비가 놀부 망할 제비인데 죽을 리가 없었다.'는 제비가 훗날 놀부에게 복수를 하게 될 것을 암시해요.

주제

• 이 글은 흥부와 놀부가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드러내요. (○, ×)

문제

12 ① **13** ④ **14** ⑤

학습 노트

• **만회하려:** 바로잡아 회복하려

• **희화화:**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여 웃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표현 방법. 부정적 등장인물을 나타내거나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할 때 주로 사용됨

12 인물·사건 **내용 이해**

놀부는 제비가 강남으로 떠날 때 강남 갔다 돌아올 적에 박씨를 물고 오라고 당부하였다. 따라서 제비가 강남으로 떠나자 놀부가 박씨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❷ (타)에서 제비가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를 원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❸ (카)에서 놀부가 밤낮으로 만져 제비의 알 중 다섯 개가 곯아 버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❹ (차)에서 놀부가 날만 새면 밖에 나가 제비 몰기를 일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❺ (타)에서 부모 제비가 새끼 제비를 싸안으며 번갈아 밥을 물어다 구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답의 근거

"반갑다 내 제비야. 네 아무리 미물인들 생명의 은인을 잊겠느냐. 강남 갔다 돌아올 적에 부디 박씨를 물고 와라."

(보상(박씨)을 바라며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놀부)

13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A]에서 놀부는 제비를 치료해 주기 위해 제비가 떨어지거나 구렁이가 나타나 제비가 다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답노트 ❶ [A]에서 놀부는 제비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구렁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 구렁이 흉내를 내고 있다.

❷ [A]에서 놀부는 제비에게 손을 싹싹 비비기는 하지만 이는 제비에게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비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행동이다.

❸ [A]에서 놀부는 다친 제비를 치료하여 잘못을 만회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가 다치기를 바라고 있다.

❺ [A]에서 놀부는 부모 제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14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이유는 치료에 대한 보답으로 제비에게 박씨를 얻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비의 다리가 나은 것은 복을 얻기 위한 놀부의 계획대로 된 일이며, 놀부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제비가 놀부를 원망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오답노트 ❶ 놀부는 제비가 집에 오자 정화수를 놓고 제비에게 절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놀부의 지나친 욕심을 희화화하며 웃음을 자아낸다.

❷ 놀부는 제비를 '제비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부르지만 제비가 다치지 않자 제비 다리를 직접 부러뜨린다. 이는 제비를 극진히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❸ 놀부는 제비 다리를 직접 부러뜨리고는 이를 모른 체하다가 발견한 척하는데, 이는 자신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 태도를 꾸며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❹ 놀부는 제비 다리를 치료할 때 흥부를 따라 하지만 민어 껍질과 비싼 실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이는 흥부가 복을 받게 된 과정을 따라 하지만 과장하고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114쪽

❶ 제비 ❷ 부자 ❸ 이별 ❹ 구렁이 ❺ 은혜 ❻ 쌀 ❼ 희화화 ❽ 암시

어휘 체크

본문 115쪽

1 ② **2** ②

1 **사전적 의미**

ⓑ의 '명'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힘.'을 뜻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은 '운명(運命)'의 뜻이다.

2 **한자 성어의 의미**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흥부가 다친 제비를 치료한 뒤 복을 받은 것은 착한 행동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이므로, 새옹지마는 해당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노트 ❶ '자업자득(自業自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의 의미로, 제비에게 악행을 저지른 놀부가 화를 입은 상황과 어울리는 표현이다.

❸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의 의미로, 놀부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제비의 마음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❹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로, 흥부의 은혜를 잊지 않은 제비의 행동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❺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의 의미로, 이 작품의 주제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실전 06

성난 기계 | 차범석

'기계'는 감정을 지니지 않은 사물이기 때문에 흔히 인간미가 없는 사람을 기계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난 기계'라는 제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극의 중심인물인 회기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희곡, 단막극, 사실주의 극
성격 사실적, 세태 고발적
주제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과 회복의 가능성
특징
-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함
-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로 이루어짐
- 물질문명 속에서 현대인이 소외되고 비인간화되는 세태를 고발함

성난 기계 ①

본문 116~11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회기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어요. (○, ⊗)
  회기는 수술에 자신이 없어 인옥의 수술을 거절하였다.
- 인옥은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를 '기 계'에 빗대어 나타냈어요.

배경·소재
- 수술 대신 회기가 인옥에게 권한 것은 무엇인가요? 좋은 약

형상화 방식
- 이 글과 같은 희곡에서는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을 지 시 문을 통해 제시해요.

문제

1 ⑤ 2 ⑤ 3 ④ 4 ③ 5 ④

학습노트

- **비관하여:**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겨

1 인물·사건 **인물의 특징**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라는 인옥의 말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오답노트 ❶ '이때 금숙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를 통해 금숙이 인옥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음을 알 수 있다.
❷ 회기는 수술을 해 달라는 인옥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태도를 보인다.
❸ 회기는 인옥의 수술을 거절하며 자신은 원래 자신 없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회기가 인옥의 수술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❹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이라는 인옥의 대사를 통해 인옥이 담배 포장공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 주제 **작품의 주제**

㉠은 인옥이 애원했음에도 회기가 수술을 거절하자, 사람의 정이라고는 없는 그 모습을 '기계'에 빗대어 드러낸 말이다.

오답노트 ❶, ❷ 인옥은 자신의 수술을 거절하는 회기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회기가 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❸ 회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의미로 '기계' 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상실된 비인간적인 태도를 지적하려는 의도이다.
❹ 회기가 수술비 때문에 수술을 거절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 '알맹이'는 내면의 상태, 정신세계, 인간성 등을 의미하고 ㉢ '포장'은 겉모습, 육체 등을 의미한다.

오답노트 ❶, ❸ '손'과 '육체'는 ㉢ '포장'의 의미로 볼 수 있고, '마음'과 '정신'은 ㉡ '알맹이'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❷ '나'와 '어린것들'은 인옥이 마음으로 생각한 대상이므로, 모두 ㉡ '알맹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❺ '좋은 약'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을 의미하고,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형상화 방식 **지시문의 적절성**

인옥은 수술을 해 달라는 애원에도 냉정하게 거절하는 회기를 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것이므로, ⓒ에는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노트 ❶ 인옥이 회기에게 수술을 해 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므로, ⓐ에는 '다시 애원하며'가 어울린다.
❷ 회기가 수술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에는 '냉정하게'가 어울린다.
❹ 회기가 가족을 위한 마음을 드러내는 인옥의 말을 듣고 답변하는 상황이므로, ⓓ에는 '약간 감동하며'가 어울린다.
❺ 회기가 근본적인 치료 대신 임시방편을 권한 것에 대한 인옥의 비판에 난처한 상황이므로, ⓔ에는 '약간 난처해하며'가 어울린다.

5 형상화 방식 **갈래의 전환**

[A]는 희곡, 〈보기〉는 소설이다.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으나, [A]에서는 인물의 심리가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오답노트 ❶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❷ 희곡은 사건을 현재형으로 나타낸다.
❸ 희곡인 [A]는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제시되는 데 비해, 소설인 〈보기〉는 인물의 행동을 서술자가 묘사하고 있다.
❺ [A]와 〈보기〉는 모두 회기와 인옥의 갈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알아 두기 「성난 기계」의 등장인물

회기	폐 전문 외과 의사. 냉정하고 빈틈이 없으나 자신보다 비인간적인 상현을 만난 후 인간성을 회복함
금숙	간호사. 회기를 흠모하며 인옥을 딱하게 여김
인옥	담배 공장의 포장공.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으며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회기에게 수술을 부탁함
상현	인옥의 남편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함. 돈과 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비정함을 보임

성난 기계 ②

본문 118~11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회기는 의사를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는 세상의 시선에 공감하고 있어요. (○, ⊗)

  회기는 의료 행위를 하나의 노동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 회기가 미국에서 폐 외과를 전공할 때 지녔던 두 가지 마음은 무엇인가요?

  호기심, 공명심

- 상현은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고 있어요.

배경·소재

- 상현은 아내가 공장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담배를 팔아 벌이를 했어요.

문제

6 ④ **7** ② **8** ⑤ **9** ⑤

학습 노트

- **회의감**: 의심이 드는 느낌
- **종속되어**: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게 되어

6 인물·사건 **내용 이해**

금숙의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일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라는 말을 통해 봤을 때 회기가 수술을 거절한 것은 인옥의 경우가 처음이다.

오답노트 ❶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고 아내가 수술을 상현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❷ 상현은 아내가 공장에서 몰래 숨겨 나오는 담배를 파는 일을 벌이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현의 아내가 공장에서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❸ 회기가 지금까지 수술에 실수가 없었다는 점과 귀중한 생명을 살려 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금숙은 회기의 의사로서의 능력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❺ 회기는 수술을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계적인 노동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요즈음 세상은 돈 있고 병 치료도 하는 법이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로 보아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한 형편으로 수술하는 데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오답노트 ❶, ❸, ❺ 아내의 수술과 관련하여 공장이나 감독관, 자식들의 의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❹ 아내가 자신과 수술에 대해 의논하지 않은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수술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8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의 적절성**

㉤은 상현이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자신의 무능함과 가난한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어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은 회기가 수술을 완고하게 거절한 이유를 묻는 금숙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냉정했던 것인지를 돌아보는 상황이므로, 회의감이 느껴지는 어조는 적절하다.

❷ ㉡은 상현이 치료비는 걱정 없다는 아내의 말과 달리 돈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므로,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펄쩍 뛰는 듯한 연기는 적절하다.

❸ ㉢은 회기가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려는 태도는 적절하다.

❹ ㉣은 상현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속마음을 들킨 상황이므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은 적절하다.

9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인옥이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일 뿐,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노트 ❶ 경제적 이유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을 통해 비정한 현실이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❷ 수술을 거절당한 상현의 아내를 가엾게 여기는 금숙은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성을 중시하는 인물이므로, 그러한 현실에 종속되지 않은 인물로 볼 수 있다.

❸ 아픈 환자의 수술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회기는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로, 비정한 현실에 종속된 인물로 볼 수 있다.

❹ 의사로서의 도의심을 느끼지 못하고 공명심으로 의사 생활을 한다는 회기의 태도는 비정한 현실이 인간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난 기계 ③

본문 120~121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상현은 아내가 죽더라도 수술할 돈으로 자신과 아이들이 살아남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 ×)
- 회기는 상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해요.
- 금숙은 회기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배경·소재

- 회기가 금숙에게 준비해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회기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인가요? 수혈용 혈액

문제

10 ⑤ **11** ⑤ **12** ③

학습 노트

- **대단원**: 희곡의 구성 단계 중 마지막 단계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됨

10 형상화 방식 **작품의 특징**

이 글은 회기가 근무하는 병원(외과 과장실)이라는 단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즉 공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노트 ❶, ❹ 이 작품은 회기, 인옥, 상현, 금숙이라는 소수의 인물만 등장하며, 인물들이 인옥의 수술을 두고 대화하는 단순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❷, ❸ 전반부에 인옥의 수술을 냉정하게 거부하던 회기는 후반부에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한다. 즉 전반부에서 부정적 인물 유형이었던 회기가 후반부에서는 긍정적 인물 유형으로 변화하고, 이를 통해 인간성 상실과 회복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알아 두기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립 구조

전반부		후반부
인옥이 회기에게 수술을 부탁하지만 회기는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거부함	⇔ 대립 구조	인옥의 남편 상현의 비인간적 태도에 분노한 회기는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함
회기: 부정적 인물 유형	변화 ⇒	회기: 긍정적 인물 유형

11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 주제 작품의 주제

㉠의 '포장'과 '알맹이'는 담배에 빗대어 인간의 겉모습과 내면을 표현한 말이지, 특정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노트 ❶ 회기가 ㉠의 깨달음을 얻고 인간성을 회복한 것에서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❷ ㉠은 문맥상 겉과 속이 모두 인간다워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❸ ㉠은 대단원에 이르러 회기가 겉과 속이 모두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❹ ㉠에서 담배의 '포장'은 겉모습을 의미하고, '알맹이'는 내면을 의미한다.

알아 두기 '알맹이', '포장'의 의미

인옥: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회기: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수술을 거절하며 약을 권하는 회기에 대한 반응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하며 깨달음을 드러낸 반응

알맹이	내면, 정신
포장	외면, 육체

12 인물·사건 내용 이해 + 주제 제목의 의미

'성난 기계'는 냉정하고 비인간적이던 회기가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노트 ❶ 회기가 수술을 실패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❷ 인옥의 수술을 냉정하게 거절하던 회기는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인옥을 수술하기로 결심한 회기는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❹ 회기가 의사 생활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❺ 회기가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간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알아 두기 '기계'와 '성난 기계'의 상징적 의미

인옥: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 기계처럼…….	→	금숙: 기계가 노하셨네요.
기계		성난 기계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회기의 모습을 '기계'에 빗댐		냉정하던 회기가 인간성을 회복하였음을 의미함

독해 체크 본문 122쪽

❶ 돈 ❷ 비인간적 ❸ 수술 ❹ 회복 ❺ 포장
❻ 대립 ❼ 변화 ❽ 분노 ❾ 희망

어휘 체크 본문 123쪽

1 ④ **2** ④ **3** ④

1 다의어의 의미

ⓐ의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라는 뜻이다. 김치를 담그는 데 굵은소금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쓴 ④가 이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 노트 ❶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❷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❸ '합당치 못한 일을 강하게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❺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 한자 성어의 의미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봄.'이라는 뜻이다. 회기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인옥의 처지를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다.

오답 노트 ❶ '애걸복걸(哀乞伏乞)'은 '소원 등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빎.'이라는 뜻이므로, 인옥이 회기에게 거듭 수술을 청한 상황에 어울린다.

❷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뜻이므로, 아내의 목숨보다 돈을 앞세우는 상현의 모습에 어울린다.

❸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므로, 가난한 형편에 남편이 수술을 반대하는 인옥의 상황에 어울린다.

❺ '심기일전(心機一轉)'은 '어떤 동기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짐.'이라는 뜻이므로, 상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인옥을 수술하기로 마음을 바꾼 회기의 상황에 어울린다.

3 사전적 의미

'주시하다'는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보다.'라는 뜻이다.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하다.'라는 뜻의 어휘는 '좌시하다'이다.

실전 07 **오발탄** | 이범선 원작, 나소운·이종기 각색

6·25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했어요. 전쟁 이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글을 감상해 볼까요?

갈래 시나리오
성격 비판적, 사회 고발적
주제 전후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로 인한 개인의 상실과 절망
특징
- 1959년에 발표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함
- 다양한 영상 기법을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주인공의 인간상과 내면의 허무 의식 표출에 중점을 둠

오발탄 ①

본문 124~12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영호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 ⊗)
  영호는 제대 후 취직하지 않고 2년이 넘도록 방황하고 있다.

배경·소재
- 영호는 철호와의 대화에서 인생은 돈값만큼만 들여다보고 마는 요지경이 아니라며 좀 더 넓은 테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어요.

형상화 방식
- 이 글은 대사를 통해 인물들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 ×)

문제

1 ① 2 ③ 3 ④ 4 ④

학습 노트
- **독백**: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임

1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의 특징

현실에 순응하면서 양심을 지키려는 철호와 양심이나 윤리 따위를 버려야 잘살 수 있다는 영호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철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등 언쟁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❷ (가)와 (나)에서 공간이 달라지고 있으나 인물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아니며,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사건 전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❸ 이 글은 시나리오로,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제시된다.

❹ (가)와 (나)에 인물이 독백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부각되고 있다.

❺ (가)와 (나)에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나타나지 않는다.

2 인물·사건 인물의 심리

철호는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며 영호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염려하고 있다(ㄴ). 또한 영호는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이라고 말하고 있다(ㄷ).

오답 노트 ㄱ. 영호는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는 일은 싫다고 말하면서 취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철호는 이러한 영호의 생각에 반대하고 있다.

ㄹ. 영호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심과 윤리를 저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철호를 존경하고 있다. 따라서 영호가 철호의 무능력을 탓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아 두기 S# 74에 나타난 철호와 영호의 대조적인 태도

철호	영호
•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치통의 고통도 참고 견딤 •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가치관을 지님	• 가난한 삶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성실하게 일할 생각을 하지 않음 •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가치관을 드러냄

3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의 효과

[A]에서는 명숙이 엿듣고 있는 화면에 철호와 영호의 음성을 효과음(E)으로 처리함으로써 철호, 영호와 다른 공간(골목)에 있는 명숙이 두 사람의 갈등 상황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명숙이 철호와 영호를 오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❷ 철호와 영호가 갈등하는 원인은 취직을 하지 않는 영호의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명숙과 관련이 없다.

❸ 명숙이 철호와 영호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❺ 명숙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호와 영호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

정답의 근거

S# 75. 철호의 집 골목
철호와 영호가 말다툼을 하는 공간(집 방 안)과 다름

[A]
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효과음(E)을 이용함. 명숙이 엿듣는 화면에 철호와 영호의 음성을 결합함

철호 E: 그게 바루 억설이란 말이다.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영호 E: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 철호와 영호의 말다툼을 엿듣는 명숙

4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영호는 양심이나 윤리를 저버리더라도 잘살고 싶다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 '용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영호는 취직을 하지 않아 철호와 갈등을 겪고 있다. 영호가 남들이 꺼리는 궂은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❷ 아픈 걸 견디면서 돈을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은 철호이며, 영호는

이런 삶을 비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❸ 영호는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며, 이를 더 넓은 테두리로 나간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더 좁은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호의 욕망과 거리가 멀다.

❺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에 맞게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철호의 가치관에 더 가깝다.

오발탄 ②

본문 126~127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명숙은 철호에게 영호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어요. (○, ⊗)

  명숙은 철호에게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배경·소재

- (라)에서는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텅 빈 실 내'라는 공간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형상화 방식

- (바)에서는 소 리와 화면을 결합하여 선명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어요.

문제

5 ② **6** ③ **7** ④

학습 노트

- **자괴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5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의 효과**

철호는 비극이 연달아 일어난 상황에서 영호에게 이전에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신념과 대조적으로 절망적 상황을 맞이한 철호의 비참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노트 ❶ 철호는 절망감에 빠진 상황이므로 자부심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❸ 철호가 영호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 하지는 않는다.

❹ 철호는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❺ 철호는 가족에게 잘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알아 두기 **철호의 상황과 S# 107의 형상화 방식**

철호의 상황	• 영호가 은행 강도로 잡혀갔다는 소식에 경찰서에 다녀옴 •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고 충격에 빠짐
↓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 위로 철호가 영호에게 했던 말이 효과음으로 겹침	인물의 절망적인 상황과, 인물의 심리(아내의 죽음이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고자 한 자신 때문이라는 자괴감)를 선명하게 제시함

6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에서 철호가 화석 같다고 한 것은, 그가 아내의 죽음을 짐작하고 큰 충격을 받았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노트 ❶ 철호는 자신에게 원망스럽게 말하는 명숙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내가 위독한 상황임을 알리려는 명숙의 의도를 철호가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❷ 철호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 아내의 병실 앞에서 조용히 노크한다. 이는 철호가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 준다.

❹ 철호는 시체 안치실 문 앞에 와서 손잡이를 잡다가 힘없이 놓고 돌아선다. 이는 철호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시신 확인을 미루는 것을 보여 준다.

❺ 철호는 길옆에 늘어선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면서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철호가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7 형상화 방식 **형상화 방식의 특징**

〈보기〉에서는 '철호는 갑자기 이가 쑤시는 것을 느꼈다.'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사)에서는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사)의 공간적 배경은 〈보기〉와 동일하게 거리(길가)이다.

❷ (사)에 장면 해설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없으며, 인물의 행동만 제시되어 있다.

❸ (사)의 사건은 〈보기〉와 동일하게 철호가 길가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치과에 들어가는 것이다.

❺ (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기〉와 동일하게 철호 한 명뿐이다.

오발탄 ③

본문 128~12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인물·사건

- 철호가 의사에게 앓던 이를 몽땅 뽑아 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배경·소재

- 택시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는 철호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 ×)

형상화 방식

- 시나리오에서 효과음을 뜻하며, (차)에서 독백을 할 때 쓰인 기호는 무엇인가요? E

주제

-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전후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로 인한 개인의 상실과 절망

문제

8 ② **9** ⑤ **10** ②

학습 노트

- **부조리한**: 이치에 맞지 아니하거나 도리에 어긋난
- **애틋한**: 정답고 알뜰한 맛이 있는

8 인물·사건 **인물의 의도**

과다 출혈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철호가 말한 ㉠ '가자…….'는 절망적 상황에 대한 철호의 절박함을 보여 주며,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오답 노트 ❶ 철호는 죽은 아내가 있는 동대문 부인 병원으로 가려다가 목적지를 바꾼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막연히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❸ 철호는 비극적 현실로 인해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은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❹ 철호는 비극적 현실로 인해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살아가려는 다짐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❺ 철호는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은 가족에게 애틋함을 느끼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9 배경·소재 **소재의 의미 +** 주제 **작품의 주제**

사전적으로 '잘못 쏜 탄환'이라는 뜻의 ⓔ '오발탄'은 이 글에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존재, 즉 절망적 상황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철호를 비유하는 말이다.

오답 노트 ❶ ⓐ '어금니'는 철호에게 고된 삶을 안겨 주던 상징적인 소재이다.
❷ ⓑ '자동차'는 철호가 타고 있을 뿐,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주제를 부각하지 않는다.
❸ ⓒ '동대문 부인 병원'은 아내가 입원해 있던 곳이다.
❹ ⓓ '종로서'는 동생 영호가 잡혀 있는 곳이다.

알아 두기 '오발탄'의 의미

- 운전수: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 철호: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

오발탄의 의미
-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철호의 모습을 비유함
-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을 상징함

10 인물·사건 **인물의 처지와 상황**

〈보기〉의 윌리 로만은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윌리 로만이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철호는 절망적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그에 비해 윌리 로만은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다.
❸ 철호는 가장으로서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으며, 윌리 로만 역시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 주려는 책임감을 보이고 있다.
❹ 철호는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의 방향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다. 윌리 로만 역시 아들의 배반과 회사의 해고 통보로 인해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다.
❺ 철호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결국 부조리한 현실이라는 외부적 요소로 인해 좌절하고 만다. 윌리 로만 역시 성실하게 일하려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가족, 회사 등의 외부적 요소로 인해 좌절하고 만다.

독해 체크 본문 130쪽

❶ 치과 ❷ 양심 ❸ 가난 ❹ 해방 ❺ 자괴감
❻ 절망 ❼ 방향 ❽ 비판

어휘 체크 본문 131쪽

1 ③ **2** ③ **3** ②

1 바꿔 쓰기

'만치'는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는 같은 의미의 격 조사인 '만큼'이다.

오답 노트 ❶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등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❷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❹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❺ '처럼'은 '앞말과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2 한자 성어의 의미

〈보기〉에서 철호는 동생 영호가 은행 강도로 경찰서에 잡혀 있고,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이어서 생기는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인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❷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❹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의 의미이다.
❺ '호사다마(好事多魔)'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의 의미이다.

3 사전적 의미

'구실'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이라는 뜻으로, 사람 구실, 부모 구실 등과 같이 쓰인다.

실전 08

규중칠우쟁론기 | 작자 미상

여러분의 생활필수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물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조선 시대 여인들의 필수품이었던 바느질 도구들의 대화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세태가 무엇인지 글을 통해 감상해 볼까요?

갈래 국문 수필, 내간체 수필
성격 교훈적, 풍자적, 논쟁적, 우화적
주제 •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 풍자
•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삶 추구
특징 • 부녀자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함
• 3인칭 시점의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서술함

규중칠우쟁론기 ①

본문 132~133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글쓴이

• 이 글은 서술자인 척 부인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 ×)
이 글은 3인칭 시점의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표현

• 이 글은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 ×)
• 이 글에서 규중 칠우가 의논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침선의 공(옷을 짓는 공)

주제

• 이 글에서 척 부인과 교두 각시, 세요 각시, 청홍 각시는 저마다 앞다투어 공 치 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문제

1 ④ 2 ③ 3 ② 4 ④

학습 노트

• **이해관계:** 서로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는 관계

1 표현 **표현상 특징**

이 글은 수필이지만 작품 속의 '나'가 아니라 규중 칠우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다. 작가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묘사 위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인물의 내면은 직접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은 규중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바느질 도구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❷, ❸ 이 글에서는 바느질 도구가 사람처럼 저마다 공치사를 하는 등의 허구적인 설정을 통해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❺ 이 글에 등장하는 규중 칠우의 이름은 각각의 생김새와 쓰임새에 따라 붙여졌다. 예를 들어 바늘은 허리가 가는 생김새에 따라 '세요 각시(細腰閣氏)'라 하고, 인두는 불에 달구어 사용하는 쓰임새에 따라 '인화 부인(引火夫人)'이라 한다.

2 표현 **내용 이해**

청홍 각시는 세요 각시를 향해 실 없이 바늘만으로는 옷을 성공적으로 꿰맬 수 없다며 자기의 공을 부각하고 있다. 척 부인과 교두 각시가 하는 일인 재단의 중요성을 부정하며 그 공을 깎아내리는 것은 세요 각시이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을 시작하며 글쓴이는 선비가 문방사우를 가까이하듯 규중 부인들도 바느질에 쓰이는 일곱 가지 도구를 가까이하여 벗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다.

❷ 척 부인은 온갖 옷감을 나열하며 길이와 넓이를 재는 마름질이 옷을 짓는 일 중에서 가장 공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❹ 세요 각시는 자신의 날래고 빠른 바느질이 아니면 옷을 이룰 수 없다며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있다.

❺ 교두 각시는 두 다리를 빨리 놀려 내달으면서 자기 공을 자랑하는데, 이 모습에서 교두 각시의 급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3 주제 **글쓴이의 의도**

(나)에서 척 부인, 교두 각시, 세요 각시, 청홍 각시는 자신의 공만 내세우고 다른 이들의 공은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이기적이고 남을 헐뜯는 세태에 대해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이 글에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❸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은 이 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가), (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❹ 이 글의 규중 칠우는 각자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므로,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만 추구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❺ 이 글의 규중 칠우가 남을 깎아내리기는 하나, 남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주제 **작품의 주제**

〈보기〉의 글쓴이는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때 전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규중 칠우에게 옷을 짓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옷이 제대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보기〉의 글쓴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규중 칠우는 저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❷ 〈보기〉의 글쓴이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이 글의 규중 칠우는 각자 자신의 공만 내세우며 주목받고 싶어 한다.

❸ 〈보기〉의 글쓴이는 전체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의 조화는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몫의 역할이 잘 수행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❺ 이 글의 규중 칠우는 이미 자신이 가진 재주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규중칠우쟁론기 ②

본문 134~135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글쓴이

• 이 글은 바느질 도구의 쓰임새를 예찬하기 위해 창작되었어요. (○, ×)
이 글은 공치사만 일삼는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고 역할과 직분에 따라 성실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표현

• (다)에서 감토 할미가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않은 골무의 특성을 빗댄 표현은 무엇인가요? 낯가죽이 두꺼워

주제

• (마)에서 규중 부인은 인간을 원 망 하는 칠우를 꾸짖고 있어요.

문제

5 ③ 6 ④ 7 ③

5 표현 **표현상 특징**

이 글에서 자신의 공을 이야기하던 규중 칠우는 규중 부인의 말을 듣고 대화의 화제를 규중 부인에 대한 원망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노트 ❶ 이 글에서 규중 칠우 사이의 우열은 가려지지 않는다.

❷ 규중 칠우가 각자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이를 규중 부인에게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니다.

❹ 규중 칠우는 규중 부인의 꾸중을 듣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다.

❺ 규중 칠우의 불평을 들은 규중 부인의 반성은 제시되지 않는다.

6 표현 **표현의 의미**

㉣은 얄미울 정도로 쌀쌀맞고 인정이 없는 것은 사람이고 공을 모르는 것은 부녀자라는 의미로, 척 부인이 매정하게 굴며 자기의 공을 알아주지 않는 규중 부인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노트 ❶ ㉠은 감토 할미가 세요 각시의 뒤를 따라다니는 청홍 각시를 나무라는 말로, 크고 훌륭한 자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❷ ㉡은 감토 할미가 공치사하는 말로, 세요 각시에게 찔리는 것을 견딜 만큼 인내심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❸ ㉢은 규중 부인이 공치사하는 말로, 칠우가 공이 있으나 사람이 칠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칠우의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❺ ㉤은 세요 각시가 사람에 대해 불평하며 하는 말로, 자신이 사람을 미워해서 찌르려고 하는 것을 감토 할미가 밀어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7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보기〉에 따르면 칠우는 서로 공을 내세워 다툰다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규중 부인이 개입한 뒤에는 공을 세우고도 대접받지 못하는 처지를 하소연한다. 교두 각시가 언짢고 노엽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다루면서도 공은 몰라주는 규중 부인을 향한 것으로, 벗들과 공을 다투는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인화 부인의 자랑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것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❷, ❹ 척 부인의 탄식과 세요 각시의 원망을 통해 공을 몰라주는 데 대한 서운함과 대접받지 못하는 이의 처지를 읽을 수 있다.

❺ 감토 할미의 사죄에서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감토 할미의 모습과 잘 보이려는 이만 아끼는 규중 부인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알아 두기 감토 할미와 규중 부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점

감토 할미	규중 부인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하고도 아첨을 통하여 자신만 곤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자만 잘 봐주는 사회 지배층의 모습

↓

감토 할미를 총애하는 규중 부인의 모습은 아첨이 통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음

독해 체크 본문 136쪽

❶ 공치사 ❷ 불평 ❸ 바늘 ❹ 인두 ❺ 관찰 ❻ 아첨 ❼ 인간

어휘 체크 본문 137쪽

1 ⑤ 2 ④ 3 ①

1 **한자 성어의 의미**

〈보기〉는 옷을 짓는 공이 내 으뜸이라며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인 '자화자찬(自畵自讚)'이 적절하다.

오답노트 ❶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한다.

❷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옭아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옭혀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❸ '자업자득(自業自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을 뜻한다.

❹ '자포자기(自暴自棄)'는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한다.

2 **속담의 의미**

〈보기〉에서 '진주(眞珠) 열 그릇이나 꿴 후에 구슬'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의 속담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이다.

오답노트 ❶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❷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❺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사전적 의미**

'가하다'는 '옳거나 좋다.'라는 뜻이다. '정도가 지나치다.'를 뜻하는 어휘는 '과하다'이다.

3 갈래 복합

실전 01

(가) 누항사 | 박인로
(나) 가난한 날의 행복 | 김소운

여러분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고전 시가인 「누항사」와 현대 수필인 「가난한 날의 행복」은 모두 가난한 삶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요. 이들 작품 속에는 가난을 뛰어넘는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답니다. 그 가치를 찾아보며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가) 누항사

갈래 은일 가사

성격 전원적, 사색적, 사실적

주제 누항에 묻혀 사는 선비의 궁핍한 삶, 안빈낙도와 유교적 도리를 추구하는 자세

특징
- 대화체와 일상 언어를 사용함
- 임진왜란 이후 사대부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

소 한 번 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이웃집 소 주인의 말 /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님)
친절하다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시간적 배경: 저녁)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기침 에헴이를 오래토록 하온 후에
(화자가 인기척을 내는 모습)
어와 그 뉘신고 염치없는 내옵노라
(소 주인의 말 / 화자의 대답)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신고
(거의 지났는데)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마는
(소를 빌리러 오는 것)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 왔노라
(□: 화자의 궁핍한 처지가 드러남)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줌 직도 하지마는
「」: 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소 주인의 말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꿩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 내고

갓 익은 삼해주(三亥酒)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음식과 술 접대의 고마움)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말하기가 어려워라』

대화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고

헌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 오니
(화자의 초라한 모습)
풍채 적은 모습에 개 짖을 뿐이로다
▶ 본사 3: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돌아옴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설의적 표현)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恨)을 돕는구나
(남의 사정에 아랑곳없는 오디새. 화자의 슬픔을 고조하는 존재 –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는구나
(자신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농사지으며 즐거워하는 소리도 흥겹지 않음)
세상 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매정한 세태)
아까운 저 쟁기는 볏보님도 좋을시고
(쟁기 날이 잘 관리된 상태)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련마는

빈 집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소가 없어 쟁기를 사용할 일이 없음)
봄 농사도 거의로다 팽개쳐 던져 두자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함)
▶ 본사 4: 매정한 세태를 한탄하며 밭갈이를 포기함
강호(江湖)에서 큰 꿈을 생각한 지도 오래더니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꿈)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아 잊었구나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되새기는 공간)
무심한 백구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욕심 없이 자연에 사는 존재로, 화자가 함께하고자 하는 대상)
다툴 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중략〉
(자연을 속세와 대비된 공간으로 인식함)
▶ 결사 1: 자연을 벗 삼아 살기를 소망함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히 여기노라 – 안빈낙도, 안분지족

자연 친화적 태도, 풍류를 즐기는 삶을 지향함

평생 한 뜻이 따듯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도다

『태평천하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 유교적 도리를 지키며 살고자 함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를 그르다고 할 이 누가 있으리』
(설의적 표현)
▶ 결사 2: 빈이무원의 삶을 추구하면서 충효와 우애, 신의를 지향함

(나) 가난한 날의 행복

갈래 경수필

성격 교훈적, 회고적

주제 가난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특징
- 몇 개의 독립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옴니버스식 구성 방식을 사용함
- 경구를 사용하여 주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함

(가) 누항사 / (나) 가난한 날의 행복 본문 140~142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가) 누항사

화자·대상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농가를 들어도 흥이 나지 않아요. (○ / ×)

표현

- (가)에서는 농부에게 소를 빌리러 간 장면을 대화체를 사용하여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 (가)에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의태어는 무엇인가요?
  허위허위, 설피설피

(나) 가난한 날의 행복

글쓴이

- (나)는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중로의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이에요.

주제

- (나)의 글쓴이는 지난날의 가난을 잊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 / ×)
  글쓴이는 지난날의 가난과 그 속에 빛나던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하였다.

문제

1 ④ 2 ⑤ 3 ② 4 ⑤

학습 노트

• **풍류**: 자연을 가까이하며 멋과 여유를 즐기는 삶의 태도.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지향하던 삶의 한 모습임

1 표현 **표현상 특징**

(가)에는 화자와 소 주인이 주고받은 말이, (나)에는 중로 여인이 한 말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 화자와 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가)와 (나) 모두 특정한 인물을 통해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❷ (가)에서는 '무정한 오디새'를 통해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화자의 슬프고 서러운 정서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❸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❺ (가)에서는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던 구체적 일화를 제시하여 자신이 겪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글쓴이가 중로의 여인에게 들은 일화를 제시한 후 가난과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2 시어(구) **시어의 의미** + 표현 **배경의 의미**

(가)의 '풍월강산'은 화자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다시금 떠올리며, 자연을 벗 삼아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공간이다. 그리고 (나)의 '경춘선'은 중로의 여인이 남편에게서 따뜻한 애정을 느꼈던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오답 노트 ❶ (가)의 '풍월강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며, (나)의 '경춘선'은 따뜻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따라서 두 공간 모두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❷ (가)의 '풍월강산'은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아니며, (나)의 '경춘선' 역시 중로의 여인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아니다.

❸ (가)의 '풍월강산'은 이상적인 공간이므로 낭만적인 세계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경춘선'은 현실적인 공간이므로 환상적인 세계라고 보기 어렵다.

❹ (가)의 '풍월강산'은 먹고사는 것이 누가 되는 처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춘선'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부부의 애정을 보여 줄 뿐, 삶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3 주제 **구절의 의미**

(나)에서 중로의 여인 부부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의 행복과 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가난하더라도 따뜻한 애정이 있으면 행복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가)의 화자는 자연과 벗 삼아 살기를 소망하면서 자연을 속세와 달리 갈등이 없는 순수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툴 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부분이며, 농민과 갈등을 겪은 것에 대한 괴로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가)의 화자는 사대부이지만 소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이다. 해당 부분에서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한 채 물러나므로,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화자의 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❷ (가)의 화자는 친절하다고 여긴 이웃집에 소를 빌리러 갔다가 소를 빌리지 못한 채 돌아온다. 해당 부분에서 '세상 인정 모른 한숨'은 각박해진 사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❸ (가)의 화자는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농민으로 살아갈 여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❹ (가)의 화자는 농사를 포기하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꿈을 떠올리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독해 체크 본문 143~144쪽

(가) 누항사

❶ 소 ❷ 자연 ❸ 안빈낙도 ❹ 충효 ❺ 의태어 ❻ 자연물 ❼ 궁핍 ❽ 유교

(나) 가난한 날의 행복

❶ 회상 ❷ 사랑 ❸ 춘천 ❹ 솔직 ❺ 부 ❻ 행복

어휘 체크 본문 145쪽

1 ④ 2 ② 3 ③

1 **속담의 의미**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나)에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갑자기 가난해진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2 **한자 성어의 의미**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이라는 뜻이다. (가)의 화자는 '단사표음을 이도 족히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따듯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도다'라며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답 노트 ❶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뜻한다.

❸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뜻한다.

❹ '감언이설(甘言利說)'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뜻한다.

❺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뜻한다.

3 **다의어의 의미**

ⓐ의 '놓다'는 '손으로 무엇을 쥐거나 잡거나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거나 힘을 빼서 잡고 있던 물건이 손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다.'라는 뜻이다. 아이가 쥐고 있던 풍선 줄을 손에서 뗐다는 의미로 쓴 ③이 이와 가장 유사하다.

오답 노트 ❶ '무늬나 수를 새기다.'라는 의미로 썼다.

❷ '일정한 곳에 기계나 장치, 구조물 따위를 설치하다.'라는 의미로 썼다.

❹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를 잊거나 풀어 없애다.'라는 의미로 썼다.

❺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라는 의미로 썼다.

실전 02

(가) 어이 못 오던가 ~ | 작자 미상
(나) 규원가 | 허난설헌 / (다) 찰밥 | 윤오영

지금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그려 보는 마음을 떠올리며 다음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가) 어이 못 오던가 ~

갈래 사설시조

성격 연정적, 해학적, 과장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

특징 • 연쇄법, 열거법 등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해학과 과장을 통해 솔직하게 표현함

㉠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 초장: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함
(임이 부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임을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너 오는 길에 무쇠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 』: 연쇄법, 열거법, 과장법을 통해 임이 오지 못하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나타냄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櫃)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 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한자 필(必) 자 모양으로) (꼭꼭)
잠겨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 중장: 임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상상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도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랴 ▶ 종장: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수많은 날 중에 단 하루라도 자기에게 와 볼 날이 없느냐는 원망의 표출)

– 작자 미상

(나) 규원가

갈래 규방 가사

성격 고백적, 자조적, 체념적

주제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의 한스러운 삶

특징 • 여러 대상에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여 표현함
• 유려하고 우아한 문체를 사용하여 규방 여인의 섬세한 정서를 드러냄

(이미, 벌써)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 』: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늙어 버린 현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 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높은 벼슬아치의 아내) (군자의 좋은 아내)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요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부부의 인연)
장안 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장안의 풍류를 즐기는 남편을 의미함)
당시에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남편에 대한 화자의 조심스러웠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15~16세) (□: 화자의 과거의 모습)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 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시샘하여
(자기의 처지를 조물주의 탓으로 여기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나타남)

㉡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올에 북 지나듯
(여성의 생활과 가까운 소재를 통해 세월의 흐름을 표현함)
『설빈화안(雪鬢花顔)이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이 되었구나』
『 』: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여 화자의 현재 처지를 부각함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늙고 초라해진 자신에 대한 자조, 어린 탄식 – 체념적 태도)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중략〉 ▶ 기: 과거 회상과 흐르는 세월에 대한 한탄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현실에서 임(남편)을 만나지 못하므로 꿈에서라도 보고자 함)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화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견우직녀가 평소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혀서도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
칠월 칠석 일 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않거든
(일 년에 한 번)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 』: 임의 소식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함
난간의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화자의 쓸쓸함을 부각함)
ⓐ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섧다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
세상의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설의법을 통해 임(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외로움을 강조함)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임을 향한 원망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 결: 임에 대한 기다림과 운명에 대한 한탄

– 허난설헌, 「규원가」

(다) 찰밥

갈래 경수필

성격 고백적, 회고적, 서정적

주제 찰밥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특징 • 찰밥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매개로 하여 어린 시절을 회상함
• 현재 시점과 과거 회상을 오가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됨

(가) 어이 못 오던가 ~ / (나) 규원가 / (다) 찰밥

본문 146~149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가) 어이 못 오던가 ~

화자·대상

• (가)의 화자는 임이 오지 않는 상황에 체념하고 있어요. (○, ⊗)
(가)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다.

시어(구)

• (가)에서 임을 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무쇠 성, 담, 집, 뒤주, 궤, 쌍배목 외걸쇠, 금거북 자물쇠

(나) 규원가

화자·대상

• (나)의 화자는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처지를 조 물의 시샘 때문으로 여기고 있어요.

시어(구)

• (나)에서 임의 소식조차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약수

표현

• (나)는 여성 화자의 독백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

(다) 찰밥

글쓴이

• (다)에서 글쓴이가 과거를 회상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소풍을 가려고 찰밥을 들고 나서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찰밥을 싸 주셨던 기억을 떠올렸다.

표현

• (다)는 현재 시점과 과거 회상이 교차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문제

1 ③ 2 ① 3 ④ 4 ⑤
5 ④ 6 ①

학습 노트

- **무상감:** 모든 것이 덧없다는 느낌
- **열거:** 의미나 기능이 비슷한 단어나 구절을 나열하여 내용을 강조함
- **감정 이입:**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감정을 직접 받아들여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감정 이입된 대상은 화자와 동일시됨

1 종합 작품 간의 공통점

(가)와 (나)는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다)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노트 ❶ 낙관적이라는 것은 상황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이므로, 대상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나 슬픔을 드러낸 (가)~(다)와 관련이 없다.

❷ (나)는 '소년 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는 원족을 갈 때 찰밥을 싸 갔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회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❹ 무상감은 덧없다는 느낌을 말하는데, (가), (다)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인생의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

❺ (가)~(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른 감정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2 표현 표현상 특징

중장에서 연쇄법과 열거법을 통해 임이 오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과장되게 가정함으로써 임이 오지 않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ㄱ). 또한 종장에서 '한 해도 열두 달이오 ~ 날 와 볼 하루 없으랴'라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환기하고 있다(ㄴ).

오답노트 ㄷ. (가)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을 뿐, 부정적 현실을 바꾸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ㄹ. 청자는 '너'라고 할 수 있지만, 화자가 청자인 '너'와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3 종합 소재의 의미와 기능

(다)에는 글쓴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찰밥'이 갈등을 해소해 주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❸, ❺ 글쓴이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에 소풍을 갈 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찰밥만을 싸 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정성스레 찰밥을 싸 주시던 어머니의 사랑, 격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장래에 대한 야망을 품어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❷ 현재 글쓴이는 친구들과 야유를 가기로 한 상황에서 자신이 싸 들고 가는 찰밥을 매개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4 시어(구) 시구의 의미 + 표현 표현상 특징

㉤은 어머니가 원족 때마다 정성껏 찰밥을 싸 주신 일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소풍이나 등산을 가려면 으레 찰밥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이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넘겨다보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정성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노트 ❶ ㉠은 '~ 못 오던가'라는 의문형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❷ ㉡은 여성의 생활과 가까운 소재(베올에 북)를 통해 세월의 흐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❸ ㉢은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만난다는 것으로, 이는 임에게 소식조차 오지 않는 화자의 신세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에는 견우직녀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❹ ㉣은 '~ 있을까'라고 하여 설의법을 통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알아 두기 「규원가」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

- 천연 여질, 설빈화안: 과거 화자의 아름다웠던 모습
  ↔ 면목가증: 현재 화자의 보기 싫어진 모습
- 꿈: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임을 보고자 하는 수단
  ↔ 잎, 벌레: 꿈에서 임을 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
- 견우직녀: 일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서로 만나기에, 임을 만나지 못하는 화자와 대비되어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5 표현 표현상 특징

ⓐ는 대나무 푸른 숲에서 우는 새의 소리를 두고 서럽다고 표현한 것이다. 즉 임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외로움과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새'라는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다.

오답노트 ❶ ⓐ에는 겉으로는 모순되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❷ ⓐ에는 '죽림'과 '새 소리'라는 자연 현상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❸ ⓐ에는 문장 성분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는 도치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❺ ⓐ는 화자의 외로움과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새'라는 대상에 이입하여 표현한 것이지, 화자의 상황과 대조되는 대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6 화자·대상 화자의 정서 + 시어(구) 시어의 의미

(나)에서 화자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임을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서나 보려 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화자도 임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 잠이 든 상황에서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임을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의 '꿈'과 〈보기〉의 '꿈'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노트 ❷, ❹ (나)와 〈보기〉 모두 화자와 임이 서로를 이해하거나 화자가 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❸, ❺ (나)와 〈보기〉 모두 꿈을 통해 화자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거나 지난 삶을 돌아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독해 체크 본문 150~152쪽

(가) 어이 못 오던가 ~

❶ 이유 ❷ 원망 ❸ 가정 ❹ 장애물 ❺ 반복
❻ 열거 ❼ 연쇄 ❽ 설의

(나) 규원가

❶ 세월 ❷ 운명 ❸ 한탄 ❹ 원망 ❺ 꿈
❻ 견우직녀 ❼ 새 ❽ 직유

(다) 찰밥

❶ 회상 ❷ 눈물 ❸ 어머니 ❹ 과거 ❺ 찰밥
❻ 사랑 ❼ 그리움

어휘 체크 본문 153쪽

1 ② **2** ⑤ **3** ③

1 어휘의 의미

'섧다'는 '원통하고 슬프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어휘는 '서럽다'이다.

2 한자 성어의 의미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글쓴이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❷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한다.

❸ '유구무언'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❹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한다.

3 사전적 의미

'속절없다'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뜻이다.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다.'를 뜻하는 어휘는 '부질없다'이다.

실전 03

(가) 상한 영혼을 위하여 | 고정희
(나) 은전 한 닢 | 피천득

여러분은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이겨 내고 있나요? 두 작품에는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존재가 등장해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에서는 상처 입은 존재가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은전 한 닢〉에서는 사회적으로 낮은 처지에 있는 거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 속 존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가) 상한 영혼을 위하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미래 지향적
주제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특징 •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도를 부각함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 상처가 있는 존재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갈대가 겪는 시련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 새로운 생명력과 희망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통을 견디려는 의지
▶ 1연: 상처 입은 존재에게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자고 함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대구법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시련과 고통을 각오한 삶의 태도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부정적 현실이나 암담한 상황
설의법
▶ 2연: 외로움과 시련을 각오하고 고통과 함께 나아가고자 함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고통을 수용하여 더 성숙해지는 공간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거부할 수 없는 대상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대구법, 부정형 서술을 통해 미래의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강조함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절망적인 상황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연대의 가능성 제시
▶ 3연: 고통이 끝나리라는 확신과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냄

(나) 은전 한 닢

갈래 경수필, 서사적 수필
성격 회상적, 체험적, 극적
주제 •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
•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

특징 • 대화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림
• 여운을 주는 결말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

(가) 상한 영혼을 위하여 / (나) 은전 한 닢

본문 154~156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가) 상한 영혼을 위하여

화자·대상

• (가)의 화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살아가자고 노래하고 있어요. (○ ×)

시어(구)

• (가)에서 상한 영혼을 빗대어 표현한 자연물은 무엇인가요? (상한) 갈대, 부평초 잎

• (가)에서 '캄캄한 밤'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해요.

표현

• (가)의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지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나) 은전 한 닢

글쓴이

• (나)의 글쓴이는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화를 서술하고 있어요. (○ ×)

• (나)에서 거지는 '나'에게 은전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표현

• (나)는 대화 형식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어요.

주제

• 거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맹목적인 소유욕과 집착에 대한 연민

문제

1 ③ **2** ⑤ **3** ③ **4** ⑤

학습 노트

• **원경, 근경:** 원경은 멀리 보이는 경치나 대상을, 근경은 가까이 보이는 경치나 대상을 의미함. 시상이나 글을 전개할 때 원경에서 근경으로, 혹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제시하기도 함

1 표현 시상 전개 방식

(가)에서는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는 갈대, 물이 고이면 꽃을 피우는 부평초 등 자연물의 속성을 먼저 제시한 뒤, 이로부터 고통에 맞서 나아가자는 삶의 태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가)에서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❷ (가)에서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❹ '뿌리 깊은 벌판'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일 뿐, (가)에서 실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❺ (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글쓴이 글쓴이의 태도

(나)에서 '나'는 거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다 말을 건네고, 경계하며 달아나려는 거지를 안심시킨 뒤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돈을 모았는지 사연을 묻고 있다.

오답 노트 ❶ '나'가 거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❷ '나'가 거지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여기거나 충고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❸ '나'는 거지가 돈을 모은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은 사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❹ '나'가 거지와 자신의 처지를 견주거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3 표현 구절의 의미와 기능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는 거지가 은전을 훔치거나 길에서 주운 것이 아님을 밝히며 은전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여 동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노트 ❶ ⓐ에서는 '밑둥 잘리어도'라는 부정적 상황을 가정한 뒤 '새순은 돋거니'로 이를 뒤집어,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❷ ⓑ에서는 '가자'라는 청유형 표현을 반복하여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❹ ⓓ에서는 '마흔여덟 닢'과 같은 구체적인 수량을 제시하여 은전을 얻기까지의 오랜 노력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❺ ⓔ에서는 인물의 말로 글을 마무리하여, 은전 한 닢을 갖고 싶었을 뿐이라는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4 종합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나)에서 거지는 구걸을 통해 '한 푼 한 푼 얻은 돈'을 모아 목표를 이루었으므로, 누구의 도움도 구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가)의 '상한 갈대'는 상처 입은 존재를 빗댄 표현으로, (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처지에 놓인 거지와 연결된다.
❷ (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다짐은 (나)에서 여섯 달에 걸친 거지의 인내와 연결된다.
❸ (가)에서 뿌리 없는 부평초도 꽃을 피운다는 것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이므로, (나)에서 가난 속에서 돈을 모아 은전을 갖게 된 거지의 모습과 연결된다.
❹ (가)에서 어디서나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희망의 실현을 의미하므로, (나)에서 거지가 마침내 은전 한 닢을 갖게 된 결과와 연결된다.

알아 두기 이 작품의 양면적 주제

은전 한 닢을 얻기 위한 거지의 행동	긍정적 평가	소망을 이루려는 노력과 성취의 기쁨
	부정적 평가	소유욕이나 무의미한 집착에 대한 경계

독해 체크

본문 157~158쪽

(가) 상한 영혼을 위하여
❶ 흔들림 ❷ 확신 ❸ 상처 ❹ 꽃 ❺ 새순
❻ 청유형 ❼ 운율 ❽ 설의적

(나) 은전 한 닢
❶ 상해 ❷ 은전 한 닢 ❸ 만족감 ❹ 객관적 ❺ 소망
❻ 집착 ❼ 대화 ❽ 여운 ❾ 성취 ❿ 소유욕

어휘 체크 본문 159쪽

1 ⑤ **2** ② **3** ③

1 다의어의 의미

ⓐ의 '서자'는 '서다'의 활용형으로 '부피를 가진 어떤 물체가 땅 위에 수직의 상태로 있게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⑤이다.

오답 노트 ❶ '사람이 어떤 위치나 처지에 있게 되거나 놓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❷ '질서나 체계, 규율 등이 올바르게 있게 되거나 짜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❸ '장이나 씨름판 등이 열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❹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어느 한곳에서 멈추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 한자 성어의 의미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오랜 고생 끝에 바라던 바를 이룬 거지의 상황과 어울린다.

오답 노트 ❶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❸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❹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❺ '자업자득(自業自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이라는 뜻이다.

3 사전적 의미

'충분히'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라는 뜻이다.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게.'라는 뜻의 어휘는 '충실히'이다.

실전 04

(가) 새 1 | 박남수
(나) 어부 | 이옥

우리를 둘러싼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누군가는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할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자연을 구성하는 자연물에서 인간의 삶과 닮은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문학 작품에서 자연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해요.

(가) 새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주지적, 비판적, 상징적

주제 자연의 순수성에 대한 옹호와 인간 문명의 폭력성 비판

특징 • 대립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도치법을 사용하여 새의 순수성을 강조함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속삭이듯 서걱이는 – 청각적 이미지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자연, 사랑, 생명, 순수의 표상)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 도치법
(사랑과 생명, 순수의 노래)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대구법
(「」: 가식과 꾸밈이 없는 순수함)
『두 놈이 부리를
(「」: 새의 움직임을 통해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 1연: 새의 순수한 노래와 사랑
(순수한 사랑)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 2연: 가식 없는 새의 순수성

3

(인간의 폭력성, 비정성)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순수성을 파괴하는 인간)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새)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의 순수성) ▶ 3연: 순수성을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

(나) 어부

갈래 고전 수필

성격 비판적, 교훈적, 풍자적, 우의적

주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군주의 도

특징 • 인간 세계를 물속 세계에 빗대어 표현함
• 유추의 방식을 통해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군주의 역할을 제시함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민본주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함

(가) 새 1 / (나) 어부

본문 160~162쪽

감상 스킬로 확인하기

(가) 새 1

화자·대상

• (가)의 화자는 새를 관찰하며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 ⊗)

(가)의 화자는 자연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있으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시어(구)

• (가)의 1연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는 2어절의 시구를 두 가지 찾아 쓰세요. 바람의 여울터, 나무의 그늘

표현

•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가요? 도치법을 사용하여 새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 (가)의 2연에서는 꾸미지 않는 새의 순수성을 보여 주고 있어요.

(나) 어부

글쓴이

• (나)의 글쓴이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강자가 약자를 해친다. /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수탈한다.

표현

• (나)는 인간 세계를 물나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 (나)에서 군주를 모시는 신하를 의미하는 물고기는 무엇인가요?

고래, 곤어, 바닷장어

문제

1 ④ 2 ⑤ 3 ⑤ 4 ④

학습 노트

• **고사:**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 **영탄적 표현:** 기쁨, 슬픔, 놀라움 등의 고조된 감정을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 등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표현 방법

1 표현 **표현상 특징**

(가)는 새에 '순수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군주, 신하, 백성 등 인간 사회의 구성원을 물고기들에 빗대어 탐관오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가)와 (나) 모두 고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❷ (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❸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❺ (나)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상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가)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시어(구) **시어의 의미**

㉠ '새'는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고 ㉡ '포수'는 파괴적 속성을 지닌 문명의 세계를 의미함으로써 대립적 구조를 형성한다. ⑤에서 '순수'는 포수에게 겨냥된 '새'를 의미하고 '납'은 인간의 폭력성과 비정성을 의미하므로 서로 대립된다.

오답 노트 ❶, ❷, ❸ '바람'과 '나무', '노래'와 '사랑', '부리'와 '쭉지'는 모두 순수한 자연의 이미지이므로, 서로 유사한 의미 관계를 지닌다.

❹ '교태'와 '가식'은 인위적인 인간 문명을 의미하므로, 서로 유사한 의미 관계를 지닌다.

3 글쓴이 **글쓴이의 관점** + 주제 **작품의 주제**

㉢은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심하다(크다)는 의미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지위가 높은 자가 아랫것을 약탈하는 정도가 물고기 세계보다 인간 세계가 더 심함을 드러내며 개탄하는 것이다.

오답 노트 ❶ 물속 세계에 있는 상하 관계가 인간 세계에도 있음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쓴이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 상하 관계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탐관오리의 행태이다.

❷ ㉢은 물속 세계에 '큰 물고기'가 있듯이 인간 세계에도 '큰 물고기'가 있는데, 물속 세계보다 인간 세계가 더 심각함을 강조한 말이다. 단순히 사람들이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아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관리(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괴로움이 더 심각함을 드러낸 것이다.

❸ (나)에서 글쓴이는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현실에 대한 개탄을 드러낸 것이다.

❹ ㉢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이 물고기 세계보다 인간 세계에서 더 심함을 의미한다. 물고기 세계와 인간 세계를 동일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표현 **표현상 특징** + 주제 **작품의 주제**

(나)에서 ⓓ는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진실로 강한 자, 높은 자가 싫증 내지 않는다면 작은 물고기는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은 〈보기〉의 '백성들은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내용과 대응되므로, 이를 ⓓ와 대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나)에서 성상을 의미하는 것은 '용'이며, 성상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빗댄 것은 '비를 내려 주고'와 '큰 물결을 겹쳐 일어나게 하여 덮어' 주는 것이다.

❷ '고래와 암코래'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자신의 시서로 삼고, '교룡과 악어'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농사일로 삼는 것은 조정의 대신들이 백성들을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행태와 관련된다.

❸ 서리나 아전을 의미하는 '문절망둑, 쏘가리, 두렁허리, 가물치의 족속'은 틈을 타서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은이요 옥으로 삼는데, 이는 서리나 아전 등이 백성을 자신의 이익을 축적하는 방편으로 여기는 행태를 고발한 것이다.

❺ 〈보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백성들을 해치는 못된 관리들을 물리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용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하리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알아 두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군주가 되며, 저 큰 물고기들이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백성이 없다면 군주와 신하, 관리들이 존재할 수 없음 → 백성 없이는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움

↓

군주의 도리란 작은 물고기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임

↓

군주가 백성을 괴롭히는 신하와 관리들을 벌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독해 체크 본문 163~164쪽

(가) **새 1**

❶ 새 ❷ 비판 ❸ 순수성 ❹ 가식 ❺ 자연 ❻ 포수 ❼ 촉각적 ❽ 도치법 ❾ 운율

(나) **어부**

❶ 군주 ❷ 국가 ❸ 부정적 ❹ 은혜 ❺ 영탄법 ❻ 물고기 ❼ 학대 ❽ 탐관오리

어휘 체크 본문 165쪽

1 ②, ④ **2** 약육강식 **3** ③

1 바꿔 쓰기

'매양'은 '매 때마다.'라는 뜻으로,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매번'과 '번번이'이다.

오답 노트 ❶ '가끔'은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라는 뜻이다.
❸ '자주'는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라는 뜻이다.
❺ '틈틈이'는 '겨를이 있을 때마다.'라는 뜻이다.

2 한자 성어의 의미

강자가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자가 아랫것을 약탈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인 '약육강식(弱肉强食)'이 적절하다.

3 사전적 의미

'족속'은 '같은 패거리에 속하는 사람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어설프고 빠름. 또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어휘는 '졸속'이다.

실전 모의고사 1회

본문 167~174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④	05 ①
06 ⑤	07 ①	08 ②	09 ③	10 ②
11 ③	12 ①	13 ④	14 ②	15 ③

[01~04]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양귀자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실적, 일상적, 비판적

주제 도시 변두리 소시민의 삶의 애환과 인간적 신뢰의 회복

특징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여 그의 내면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드러냄
- 일상적인 대화와 구어체 표현을 통해 인물의 처지와 성격을 사실적으로 제시함
- 이기적인 계산이 부끄러움으로 뒤바뀌는 구조를 통해 인간적 신뢰의 가치를 부각함

01 내용 이해

본문의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를 통해 '그'는 '임 씨'가 견적을 다시 내는 동안 애를 태우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주 씨 말만 믿고 덥썩 일을 맡겼다'를 통해 '그'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임 씨'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❷ '벌써부터 서울 집값을 수소문하면서 아라비아 숫자들을 나열해 보곤 하던 아내'를 통해 '아내'는 서울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이사 가는 꿈을 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❸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이십만 원에서 이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빌었다.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다.'를 통해 '아내'가 '임 씨'에게 직접 재견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임 씨'가 스스로 다시 견적을 내겠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❺ '그는 일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를 통해 '그'가 '임 씨'를 배웅한 것은 맞으나 '아내'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2 인물의 이해

새로운 견적 금액에 대해 '그'가 계산을 다시 해 보라는 반응을 보이자 '임 씨'는 자기는 받을 것 다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임 씨'가 '그'의 반응을 보고 새로운 견적 금액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임 씨'는 '목욕탕을 다 뜯어 발길 듯이' 말하였으나 '욕조와 세면대 사이의 파이프만 교체'하였다. ㉠에서는 이러한 '임 씨'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아내'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❷ ㉡에서 '아내'는 '임 씨'에게 일 잘한다고 추켜세운 '그'를 못마땅해하며 눈을 흘기고 있다.

❸ ㉢에서 '아내'는 '임 씨'가 뽑은 견적대로 돈을 주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❹ ㉣에서 '아내'는 처음 견적과 달리 7만 원만 달라는 '임 씨'의 반응에 당황하며 미안해하고 있다.

03 소재의 기능

'견적서'는 '그'와 '아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소재로 제시되었으며, 이 견적서를 통해 '임 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인식이 바뀌게 되어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임 씨'가 '볼펜 심으로 쿡쿡 찔러 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돈을 더 받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견적이 적게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팍팍하게 사는 소시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노트 ❶ '그'는 돈 계산을 문제 삼는 '아내'의 말을 듣고 '딴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들 가정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❷ '아내'가 '임 씨'를 가리켜 '연탄 배달 신세 못 면하는 것 아니냐'며 비꼬는 것은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소시민들의 비루한 성격적 결함을 알 수 있다.

❸ '아내'는 '강변을 따라 우뚝 솟아 있는 고층 아파트를 보는 일이 괴롭다'고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삶에 대한 동경이 소시민인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❺ '임 씨'는 견적을 적게 받으면서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써비스로다가'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소시민이 지닌 건강한 심성을 엿볼 수 있다.

[05~08] (가)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윤선도

갈래 연시조

성격 자연 친화적, 풍류적, 강호 한정적

주제 사계절 자연 속에서 누리는 어부 생활의 흥취

특징
-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여음구와 조흥구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감과 흥취를 살림
-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표현으로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냄

(나) 「입춘(立春)」 | 백석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회고적, 서정적, 고백적

주제 입춘을 맞아 떠올린 고향의 겨울과 사라진 유년에 대한 그리움

특징
- 유년 시절의 고향과 현재의 도시적 삶을 대비하여 상실감을 부각함
- 토속적인 소재를 열거하여 고향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환기함
- 과거의 자신을 객관화하여 지칭함으로써 회상의 거리감을 드러냄

05 작품 간의 공통점

(가)는 '온갖 꽃', '연잎', '가을',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한고' 등에서 드러나듯이, 춘하추동 네 계절의 요소를 바탕으로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썰매', '발구', '입춘' 등 겨울과 봄에 관련된 요소를 바탕으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노트 ❸ (가)에만 해당하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

❹ (나)는 글쓴이가 입춘 무렵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느낀 감회를 서술한 수필로, 자연과 인간의 대비나 교훈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06 공간적 배경 비교

ⓐ의 '수국(水國)'은 화자가 현재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는 현실 속의 공간이다. 반면에 ⓑ의 '고향'은 입춘 무렵에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떠올린 추억 속의 공간이다. 즉, ⓐ는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이고, ⓑ는 글쓴이가 기억 속에서 떠올린 공간이다.

오답 노트 ❶ ⓑ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추구하는 삶이 실현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❸ ⓐ를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를 글쓴이가 고난을 극복하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07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가)의 '앞개'와 '뒷뫼', '밤물'과 '낮물'은 모두 화자가 생활하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 시어들을 대응시킨 표현은 속세의 속성과 자연의 속성을 대비한 것이 아니다.

❸ '만경 징파(萬頃澄波)에 실컷 용여(容與)하자'는 넓게 펼쳐진 맑은 바다에서 한가로운 마음으로 흥겹게 놀자는 의미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❹ '물가의 외로운 솔'에 대해 외롭고 씩씩한 인격체로 노래하고 있다. 〈보기〉와 관련하여 이해할 때, 이는 '솔'에 인간적인 생명력을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8 종합적 감상

㉡은 '청약립은 쓰고 있노라 녹사의를 가져왔느냐?'라는 의미로, 비오는 여름날 배를 타고 나온 화자가 소박한 삶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낸 부분이다. 따라서 ㉡을 일상적인 공간을 잠시 떠나는 허전한 마음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❹ ㉣에서 '~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년'은 어릴 적의 글쓴이 자신을 객관화하여 지칭한 표현이다.

❺ ㉤ 바로 앞의 내용으로 볼 때, ㉤은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는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그 이유를 '~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라고 말하여 설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9~12] 「장화홍련전」 | 작자 미상

갈래 고전 소설, 가정 소설, 계모형 소설

성격 전기적, 교훈적, 권선징악적

주제 계모의 흉계로 인한 가정의 비극과 권선징악

특징
- 계모와 전처 소생 자식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과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냄
-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요소를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화함

09 서술상 특징

'저 미련한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만경창파 나는 듯이 뛰어드니 진실로 가련하다' 등의 대목에서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제시되고 있다.

10 내용 이해

'홍련이 또한 집안 일을 전혀 모르다가 ~ 그 연고를 물었다.'를 통해 홍련은 장화의 죽음을 짐작한 것이 아니라 집안이 돌아가는 정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허 씨를 추궁한 것이 아니라 허 씨에게 질문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불쌍하구나, 홍련아 ~ 간장이 굽이굽이 다 녹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❸ '제 자식 장쇠를 불러 ~ 이불 밑에 넣고 나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❹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등에서 양반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는 허 씨의 말을 확인할 수 있다. 좌수는 이를 듣고 '처치할 묘책을 의논'하고 장쇠를 불러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❺ '산중에서 대호가 내달아 꾸짖기를 ~ 다리를 떼어 먹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이 글에 장화가 허 씨의 흉계를 확인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허 씨를 보고 수습지 못하고 쩔쩔맸다는 것은 허 씨가 장화를 모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다.

12 한자 성어의 적용

[A]에서는 장화를 죽음에 이르게 한 허 씨가 아무 잘못 없는 장화를 비난하고 홍련에게도 막말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인 '적반하장'이 적절하다.

[13~15] (가) 「만나는 법」 | 김종철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상징적, 고백적

주제 세대가 이어지며 가족이 만나게 되는 삶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

특징
- 어린 시절의 일화와 어머니의 임종 무렵의 일화를 나란히 배치하여 시상을 전개함
- 대화 형식과 경어체를 활용하여 담담하고 친근한 어조를 형성함
- 세대를 시간에 대응시켜 삶이 이어짐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 신경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성찰적, 고백적

주제 삶의 근원이 되어 준 세계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특징
- 빛과 관련된 시어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성장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함
-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회상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처음에 제시한 인식을 끝에서 되풀이하여 주제를 강조함

13 작품 간의 공통점

(가)에서는 화자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임종을 맞던 과거의 사건이 회상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화자의 어린 시절과 고향집을 떠나 타지를 떠돌던 젊은 시절이 회상되고 있다.

오답 노트 ❶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자연물은 나타나 있지 않다.

❷ 근경에서 원경으로 확대되는 시선의 변화는 (가)와 (나)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❺ (가)에는 대화체가 일부 나타나 있지만, (가)와 (나)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14 시구의 의미

㉡은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잠시 기운을 회복한 상황을 보여 준다. 따라서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게 된 상황을 반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은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긴 발화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어린 시절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❸ ㉢은 내일이 오는 것을 미루려는 마음이 담긴 발화로, 어머니의 임종을 미루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어머니와의 대화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❹ ㉣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전갈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❺ '어머니'와 '아내'와 '딸'은 모두 '나'와 쉽게 만나는 법을 알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들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집에 살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연결된다. 따라서 ㉤은 딸의 삶이 미래와 대응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로 보아, 화자가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화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화자는 바깥세상을 떠돌며 살았던 지난 삶에 대해 자부심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오답노트 ❶ 화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서 화자가 마주한 불빛은 '램프불'에서 '칸델라 불'로 '칸델라 불'에서 '전등불'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칸델라 불'과 '전등불'은 화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바깥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❷ '대처로 나왔다'는 화자가 더 넓은 세계로 나오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뿌리가 되어 준 '어머니'와 '할머니'의 세계와는 더 멀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❹ '실루엣'은 화자가 어른이 되어서 추억하게 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으로, 화자가 '램프불 밑'에서 보았던 과거 모성의 세계를 떠올려 준다.

❺ '내게는 다시 이것이 /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는 더 넓은 세계를 찾아 헤매다가 이제 자신의 근원이 되어 준 세계로 다시 돌아와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실전 모의고사 2회

본문 175~184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③	0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②	15 ⑤

[01~03] 「국물 있사옵니다」 | 이근삼

갈래 희곡, 장막극, 풍자극

성격 풍자적, 비판적, 서사적

주제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을 통한 세태 비판

특징
-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서사극의 기법을 활용함
- 상반된 두 가치관을 대비하여 인물의 변화를 부각함
- 반어적 표현과 희극적 어조로 출세 지향적인 세태를 풍자함

01 내용 이해

성아미가 김상범에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실을 말하는 대목은 있지만 상담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오답노트 ❶ 배영민은 아내가 친구의 일로 돈을 빌리러 왔기 때문에 외출하였다.

❷ 김상범은 사장에게 배영민이 점심 때에 술을 마신 적이 있다든지, 가불증을 안 쓰고 돈을 가져간 적이 있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사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있다.

❹ 박 전무가 성아미에게 전화한 용건은 성아미의 통화 내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❺ 김상범은 사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관객은 가상의 벽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볼 수 있지만 성아미, 사장, 배영민 등의 등장인물은 이 '제4의 벽' 때문에 관객을 인식하지 못한다(ㄱ). 하지만 김상범이 관객에게 말을 건넴으로써 이 벽이 허물어진다. 관객에게 전달하는 김상범의 말을 통해 김상범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관객들에게 직접 알리게 되는 것이다(ㄹ).

오답노트 ㄴ. 김상범이 관객에게 말을 건넴으로써 관객들이 '제4의 벽'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객들은 등장인물들이 말을 건네는 것과 상관없이 '제4의 벽'으로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ㄷ. 김상범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면서 '제4의 벽'을 허물어뜨리고는 있지만 관객의 반응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다.

03 인물의 이해

김상범은 ㉠에서 ㉡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은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김상범이 관객에게 하는 말을 보면 김상범은 ㉡에 따라 행동하여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출세의 문을 열기 위해 ㉡으로 행동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을 유지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04~06] 「박씨전」 | 작자 미상

갈래 고전 소설, 군담 소설, 여성 영웅 소설

성격 전기적, 영웅적, 도교적

주제 박씨 부인의 뛰어난 능력과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

특징
- 변신 화소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환되는 구조를 취함
-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삼되 허구적인 승리를 통해 정신적 위안을 줌
-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남성 중심 사회의 통념을 뒤집음
- 군담 소설의 성격과 함께 가정 소설의 면모도 나타남

04 인물의 이해

이 글에서 박 씨는 시아버지인 이 판서에게 "제가 전생의 죄가 커서 얼굴에 흉한 허물을 쓰고 세상에 태어나서"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박 씨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에서 죄를 지었다고 여겼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05 말하기 방식

[A]는 이 판서가 부인을 질책하며 훈계하는 태도로 한 말이므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B]에서는 박 씨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훈계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A]에서는 과거의 인물인 제갈공명의 부인 황 씨와 문왕의 정비(正妃) 태사를 들어 현재의 인물인 박 씨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❹ [A]의 "~ 어찌 우습지 않다 하겠소?", [B]의 "~ 천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박 씨의 '본바탕'이 회복되는 것은, 액운이 다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박 처사에게 명하여 원래의 얼굴 모양대로 회복시켜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이해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07~09] 「우상(偶像)의 눈물」 | 전상국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비판적, 우의적, 상징적

주제 선의를 가장한 위선적 권력의 폭력성 비판

특징
- 관찰자인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여 판단을 독자에게 맡김
- 학급이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권력의 속성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함
- 드러난 폭력과 감추어진 폭력을 대비하여 후자의 무서움을 부각함
- 반어적인 제목을 통해 주제 의식을 함축적으로 드러냄

07 내용 이해

'나'는 자신에게 기표의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형우가, 반 아이들 앞에서는 그러한 적대감을 숨기고 있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 따라서 형우가 기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동정한다고 여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아이들이 기표를 무서워한 것은 기표가 폭력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아이들이 형우의 말을 듣고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은, 기표의 어려운 처지가 밝혀지면서 동정의 대상이 된 기표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오답 노트 ❶, ❺ 〈보기〉에서 담임 선생과 형우의 행동에는 위선이 숨겨져 있다고 하였지만, 겉으로는 선의로 보이기 때문에 반 아이들이 동조하게 된다.

❷ 담임 선생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장악하고자 했는데, 기표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가 된 것은 이러한 담임 선생에게 길들여진 것을 의미한다.

❹ 기표가 남긴 편지는 담임 선생과 형우의 폭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09 표현상 특징

㉣에서는 기표 어머니가 입고 있는 '낡고 두터운 오바'를 통해 그녀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그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❶ 기표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열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❷ '벌레'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기표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❸ 돈을 꺼내 교탁 위에 놓는 행위를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담임 선생과 형우가 택한 방안을 보여 주고 있다.

❺ '부들부들'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담임 선생의 곤혹스러운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10~12] 「상춘곡(賞春曲)」 | 정극인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성격 서정적, 묘사적, 예찬적, 자연 친화적

주제 봄 경치를 완상하며 누리는 강호가도의 흥취와 안빈낙도의 삶

특징
- 화자의 시선 이동과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설의법, 대구법, 의인법 등을 활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함
-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냄
-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줌

10 시상 전개 방식

작품의 초반부에서 수간모옥을 중심으로 도화 행화, 녹양방초와 같은 자연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반부 이후에도 시냇가, 저 뫼, 봉우리, 천촌만락, 검은 들 등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 정서적 표출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화자는 '화풍'과 '녹수', 즉 솔솔 부는 화창한 바람과 푸른 물과 같은 자연을 벗하며 마음껏 술을 즐기고 있다. 이는 자연 속의 풍류 생활에서 오는 만족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속세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노트 ❶ 화자는 '홍진'에 묻힌 분들에게 '산림'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애를 견주며 상반된 두 세계를 대비하고 있다. 이때 '홍진'은 속된 세상, 혼탁한 정치 세계를 의미하며 이와 대비되는 '산림'은 화자가 있는 순수하고 자연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❷ 화자는 푸른 시냇물, 울창한 송죽과 같은 자연 속에 놓여 있으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❸ 화자는 석양 속에 핀 도화 행화, 가랑비 속에 푸르게 핀 녹양방초 등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찬탄하며, 이를 '조화신공'이 '칼'로 마름질하고, '붓'으로 그려 낸 것에 비유하고 있다.

❺ 화자가 '부귀'와 '공명'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 자신과의 관계를 드러낸 대목은, 화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출세 지향적 욕망이 나타난 내적 갈등으로 읽을 수 있다.

12 표현상 특징

㉤에서 '백년행락'은 '한평생 잘 놀고 즐겁게 지냄.'의 뜻을 지닌 말로, 화자는 '~ 이만 한들 어찌하리'와 같이 표현하여 현재 누리고 있는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은 풍자적 표현을 통해 교훈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

지 않다.

오답노트 ❶ ㉠에서 화자는 자신의 풍류 생활을 옛사람의 그것과 견주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❷ ㉡에서는 '~은 ~ 하고, ~는 ~ 하세'와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❸ ㉢에서는 '청향'과 같은 후각적 이미지, '낙홍'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❹ ㉣에서는 자연적 대상인 검은 들에 봄빛이 넘치기 시작한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13~15] (가) 「낡은 집」 | 이용악

갈래 자유시, 서정시, 이야기시

성격 서사적, 회고적, 사실적, 상징적

주제 일제 강점기 유이민의 비참한 삶과 시대의 아픔

특징
- 한 가족의 사연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듯 전달함
- 주변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진술 내용의 객관성을 높임
-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삶의 터전을 잃은 민중의 현실을 드러냄

(나) 「성에꽃」 | 최두석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

주제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특징
- 일상적인 사물을 아름다운 대상으로 형상화함
- 역설적 표현을 통해 고단한 삶이 지닌 가치를 부각함
- 유사한 대상을 나열하고 현재형으로 진술하여 현장감을 살림

13 작품 간의 공통점

(나)에는 '차가운 아름다움'이란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노트 ❶ (가)의 2연과 8연에서는 털보네가 떠나고 난 뒤의 낡은 집의 상황을 현재형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도 화자가 성에꽃에 취해 아름다움을 탐하는 모습을 현재형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❸ (가)는 겨울이라는 배경을 통해 털보네 가족의 힘든 삶을 드러내고, 봄이 와도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나)에서도 '엄동 혹한'이라는 겨울의 배경을 통해 사람들의 힘겨운 삶과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❹ (가)에서는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나)에서는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❺ (가)에서는 '노루 멧돼지 쪽제비', (나)에서는 '처녀 총각 아이 어른'처럼 유사한 대상을 나열하여 시적 정황을 보여 주고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나의 싸리말 동무'가 '첫울음을 울었다'는 진술은 동무가 태어난 일화를 서술한 것으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서정적 언술이 아니라 사건을 서술한 서사적 언술이다.

오답노트 ❶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나 '찻길이 놓이기 전'은 시대 상황과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서사적 언술이다.

❸, ❺ '털보네는 또 이들을 봤다우'는 마을 아낙네의,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는 이웃 늙은이들의 말로 제3자의 진술을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제3자의 진술은 화자의 진술에 대해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❹ '잠 이루지 못한 밤'은 화자의 동무가 꿈을 키우던 시절을 말하고, '아홉살 되던 해'는 동무의 가족이 어디론가 떠나던 해를 말한다. 이는 화자의 동무에 관한 일화를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15 소재의 의미

(가)의 ㉠ '동무'는 가난한 삶을 살았던 민중이므로 당대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고, (나)의 ㉡ '친구'는 면회가 금지될 정도로 탄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대의 사회적 상황을 보여 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오답노트 ❶ ㉡은 탄압을 당하는 인물이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 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은 신념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없다.

❷ ㉠과 ㉡은 모두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던 때와는 관련이 없다.

❸ ㉠은 화자가 추억하는 친구이거나 연민의 대상이지 화자와 동일시되는 인물로 볼 수 없고, ㉡도 화자가 안타까워하는 친구이므로 화자와 대비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❹ ㉡은 탄압을 당하므로 차가운 현실을 연상시키는 인물이라 할 수 있지만, ㉠은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인물이므로 희망적인 삶과 관련이 없다.

실전 모의고사 3회

본문 185~192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5 ⑤
06 ③	07 ②	08 ③	09 ⑤	10 ③
11 ④	12 ③	13 ②	14 ④	15 ⑤

[01~04] 「적벽가(赤壁歌)」 | 작자 미상

갈래 판소리 사설

성격 서사적, 해학적, 풍자적

주제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과정

특징
- 창과 아니리가 교차되면서 사건이 전개됨
- 중국 소설을 우리 고유의 양식으로 변용하고 수용층의 기호에 맞는 장면을 덧붙임
-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과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
- 한문 투의 표현과 일상적인 구어가 함께 나타남

01 서술상 특징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공명의 집으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오답노트 ❶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따른다.

❸ 이 글은 판소리 사설로 창과 아니리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❹ '용의 입김이 와룡강을 진동한 듯 뉘라 아니 감동허리.'에서 인물의 행동에 대해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❺ '얼굴은 관옥 같고 맑은 기운이 미간에 일어나니 군자의 절개로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02 내용 이해

㉡은 공명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덧없게 생각해서 출사하지 않으면 수많은 백성을 구제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지, 부귀영화를 멀리하는 공명의 태도를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노트 ❶ 공명이 춘수(낮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현덕(유비)의 태도는 공명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❷ 익덕(장비)이 공명이 낮잠을 자는 초당에 불을 지르려 하자 현덕은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문왕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를 타이르고 있다.

❸ 현덕이 공명을 처음 보고 군자의 절개를 지녔다고 내심 칭찬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명의 첫인상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이 글은 현덕이 공명을 세 번 찾아온 끝에 만나서 출사를 간청하는 삼고초려 장면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양반 수용층을 고려하여 삼고초려처럼 원작에서 감동이나 흥미를 주는 장면을 추가한 작품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제시된 부분은 양반 수용층의 기호를 고려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❹ 이 글에서 익덕은 공명이 현덕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 민중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❺ 이 글에서 운장(관우)이 익덕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판소리뿐 아니라 소설에서도 형상화할 수 있는 내용이며, 민중의 주체적 관점에 따라 원작을 변용한 것도 아니다.

04 말하기 방식

[A]는 공명이 현덕의 간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상황으로, 절박한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B]는 공명이 현덕의 간청을 받아들여 세상에 나가기로 한 후 앞으로의 군사 전략을 제안하는 상황으로,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내는 심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노트 ❹ 현덕은 [A]를 듣고 '하릴없어 책상을 탕탕 두드리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B]를 듣고는 구름과 안개 속에서 해와 달을 보는 것 같다며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❺ 공명은 [A]에서 '밭 갈기, 고기 낚기, 약초 캐기, 풍월 읊기' 등 자신의 현재 생활을 언급하고 있고, [B]에서는 형주를 얻은 다음 서천을 점령해 세력을 형성한 후 중원을 공략하는 미래의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05~09] (가) 「봄」 | 이성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희망적

주제 간절히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

특징
- 추상적인 대상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대상으로 설정함
- 단정적인 어조를 반복하여 확신을 강조함
-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시대 현실과 소망을 함께 드러냄

(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 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유미적, 낭만적, 상징적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특징
-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기다림의 자세를 강조함
- 역설적 표현으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정서를 압축하여 드러냄
- 기다림과 상실이 순환되는 구성을 취함
- 부드러운 어조와 우리말의 음악성을 살린 표현이 두드러짐

(다) 「물」 | 이태준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예찬적, 교훈적, 유추적

주제 물의 덕성에서 이끌어 낸 바람직한 삶의 자세

특징
- 대상의 속성을 항목별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제시함
- 유추의 방식으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를 이끌어 냄
- 영탄과 설의, 고사의 인용을 통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냄

05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는 '설움', '섭섭해 우옵내다' 등을 통해 모란을 잃은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고, (다) 역시 '얼마나 큰 즐거움인가!'와 같이 물을 보며 느낀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는 모두 대상에게서 느낀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보기〉에서는 (가)가 힘든 역경을 극복하면 새로운 세상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는 봄이 더디게 오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노트 ❶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 것은 '봄'이다. 〈보기〉에서 봄이 오는 것은 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하였다.

❷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는 '봄'이 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는 의미이다. 〈보기〉에서 이 시가 창작된 시기는 독재 정권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시기라고 하였다. 즉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고난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❹ '너를 보면 눈부셔' 하는 것은 '봄'이 오는 것에 대해 감격한 모습을 나타낸다. 〈보기〉에서 봄이 오는 것에 대해 벅찬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❺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봄'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 내고 온다는 의미이다. 〈보기〉에서 역경을 극복하면 봄이 온다고 하였다.

07 종합적 감상

[A]의 '나의 봄'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을 의미하고, [C]의 '어느 날'은 화자가 봄을 여읜 날로 화자가 슬픔을 느낀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C]의 '어느 날'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과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A]와 [D]에서 화자는 '아직' 봄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속적인 화자의 기다림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❸ [B]의 '뚝뚝'은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❹ [B]의 '설움'은 봄을 여읜 것으로 인해 느낀 감정이고, [C]의 '섭섭'은 울고 있는 감정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❺ [D]의 '봄'은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찾아볼 수 있다.

08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물의 즐거운 속성이 언급된 문단에서 물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모

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노트 ❶ 물의 아름다운 속성이 언급된 문단에서 '남의 더러움을 씻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❷ 물의 아름다운 속성이 언급된 문단에서 '남을 더럽힐 줄 모르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❹ 물의 즐거운 속성이 언급된 문단에서 '덤비는 일 없이' '능인자안'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❺ 물의 성스러운 속성이 언급된 문단에서 '무심히 흐르되' '이로 인해 윤택'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9 구절의 의미

㉤은 물의 성스러운 속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논, 밭, 과수원이 모두 물로 인해 윤택해지는 것처럼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의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봄'이므로, 힘든 상황에 있는 화자의 처지를 나타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❷ ㉡은 모란이 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봄을 여읜,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연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❸ ㉢은 화자가 모란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 느낀 서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란이 피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❹ ㉣은 물이 즐겁게 노래하며 흘러간다는 내용이므로, 어디에서나 흐르는 속성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12] (가) 「정과정(鄭瓜亭)」 | 정서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애상적, 충신연주지사

주제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과 결백의 호소

특징
-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냄
- 임금에 대한 충정을 임에 대한 사랑에 빗대어 표현함

(나) 「사미인곡(思美人曲)」 | 정철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유배 가사

성격 연군적, 여성적, 서정적

주제 임금을 향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충정

특징
-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신하의 충정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함
-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표현이 뛰어남

10 표현상의 공통점

(가)에서는 '넋이라도 임과 한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으', '슬프도다 아으'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소망과 슬픔을 드러내고, (나)에서는 '편작이 열이 와도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노트 ❶ (가)의 '잔월효성'을 색채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예찬한다기보다는 잔월효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나)에서도 '백설(白雪)', '홍상(紅裳)', '청등(靑燈)'에서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들이 나타나지만, 이것들이 대상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❷ (가)에는 '아으'라는 조흥구가 반복되지만, (나)에는 조흥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❹ (가)에서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한 경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시어의 의미

㉠은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있다. ㉡은 따뜻한 봄기운으로, 임이 계신 곳에 보내 임을 따뜻하게 해 주고 싶다는 화자의 사랑과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나)의 '옥루고처(玉樓高處)'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뜻한다. 해당 어구에서는 임금이 거처하는 곳이 추울까 걱정하는 화자의 충정이 나타나 있다.

[13~15] 「토지(土地)」 | 박경리

갈래 현대 소설, 장편 대하소설

성격 사실적, 향토적, 서사적

주제 격변기를 살아가는 민중의 고단한 삶과 애환

특징
- 토속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와 현장감을 살림
- 다양한 계층의 인물을 등장시켜 당대의 풍속과 삶의 모습을 그려 냄
-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과 상황을 제시함

13 서술상 특징

제시된 장면의 공간적 배경은 전라남도 구례로 향하는 길목의 한 주막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문의 첫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인물들이 토속어를 사용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토속어의 사용은 현장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오답 노트 ❶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직접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❸ 마지막 부분에서 긴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장면의 빈번한 전환 때문이 아니다.

❹ 제시된 부분은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반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❺ 배경으로 제시된 주막이라는 공간이 인물들의 심리와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는 처지가 불쌍하게 된 숙이의 상황을 두고 오고 간 말의 일부이다. 이는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지처럼 초라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수탈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인물의 이해

아버지를 아는 구식이 아재를 만난 숙이는 부엌에서 불을 때면서도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궁이에서 옷으로 불이 옮겨붙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정보를 눈썹이 가느다란 여사당의 말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memo



1권~3권 수록 제재

1권

작품명	저자	작품명	저자
엄마 걱정	기형도	고무신	오영수
저녁에	김광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동백꽃	김유정
가정	박목월	마지막 땅	양귀자
내 마음은	김동명	춘향전	작자 미상
먼 후일	김소월	하늘은 맑건만	현덕
동해 바다	신경림	돌다리	이태준
까마귀 싸우는 골에	정몽주 어머니	수난이대	하근찬
까마귀 검다 하고	이직	자전거 도둑	박완서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홍길동전	허균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들판에서	이강백
새로운 길	윤동주	막내의 야구 방망이	정진권
오우가	윤선도	집으로	이정향
양반전	박지원	미안합니다	장영희
소나기	황순원	이옥설	이규보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권

작품명	저자	작품명	저자
길	윤동주	꺼삐딴 리	전광용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노새 두 마리	최일남
접동새	김소월	운수 좋은 날	현진건
향수	정지용	눈길	이청준
수라	백석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흥길
꽃	김춘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첫사랑	고재종	운영전	작자 미상
광야	이육사	허생전	박지원
봄 길	정호승	홍계월전	작자 미상
청산별곡	작자 미상	결혼	이강백
님이 오마 하거늘	작자 미상	차마설	이곡
동짓달 기나긴 밤을	황진이	소	유치진
훈민가	정철	실수	나희덕
달밤	이태준	빙그레의 영역	김소연

3권

작품명	저자	작품명	저자
눈	김수영	이생규장전	김시습
추억에서	박재삼	흥부전	작자 미상
와사등	김광균	성난 기계	차범석
님의 침묵	한용운	오발탄	이범선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황지우	규중칠우쟁론기	작자 미상
청포도	이육사	누항사	박인로
낙화	이형기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제망매가	월명사	어이 못 오던가	작자 미상
만흥	윤선도	규원가	허난설헌
속미인곡	정철	찰밥	윤오영
봄·봄	김유정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임경업전	작자 미상	은전 한 닢	피천득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새 1	박남수
사평역	임철우	어부	이옥
광장	최인훈		